

M 45-131 | 2011. 7

제 131호

세계 농업
WORLD AGRICULTURE

2011. 7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익수 부연구위원 iksujje@krei.re.kr TEL 02-3299-4349 / FAX 02-962-7312
이정희 연구원 ljh8507@krei.re.kr TEL 02-3299-4159

목 차

농업 · 농정 동향

- 3 일본의 농식품안전관리 현황
- 17 미국 육류 패커의 과점화 동향과 가축거래규칙안의 영향
- 37 호주 가축시장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육우 거래 방법
- 43 콜롬비아의 농축산업 현황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55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1. 7)
- 6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1. 7)
- 7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1. 7)

세계 농업 브리핑

- 95 세계 농업 브리핑 (2011. 7)
- 113 주요 외신 동향 (2011. 7)

세계 농업 통계

- 121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 123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농업 · 농정 동향

일본의 농식품안전관리 현황

미국 육류 패커의 과점화 동향과 가축거래규칙안의 영향

호주 가축시장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육우 거래 방법

콜롬비아의 농축산업 현황

일본의 농식품안전관리 현황*

한 재 환

1. 농식품 안전 관련 주요변화

일본정부는 이원화된 농식품 안전체제로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개편논의를 전개하였다.

일본은 1996년 병원성 대장균 E.coli O157:H7 식중독, 유키지루시유업의 가공유 오염, 2001년의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식품허위표시 등 연이은 농식품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일본정부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이원화된 농식품 안전체제로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성, 신속성, 통일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개편논의를 전개하였다. 농식품 안전체계 개편 방향은 위험평가 기능을 중심으로 일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각 부처에 대한 조정기능을 갖는 신설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2003년 총리 직속기관인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식품안전기관이 다원화 시스템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담당할 위험관리와는 별도로 농식품의 안전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농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관련부처에 농식품 안전업무에 대한 권고기능을 보유하며, 위험정보 수집·교환 기능을 담당한다.

일본의 소비자정책은 내각부 국민생활국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농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재환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jhhan@krei.re.kr, 02-3299-4352).

관련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내각부는 정책의 집행권한이 없어 소비자 안전관리에 허점이 존재하였다. 최근에 농식품의 허위표시, 수입식품에서 농약·멜라민 검출 등 농식품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은 소비자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에 2008년 4월 후쿠다 총리는 소비자행정을 총괄하는 ‘소비자청’ 설립을 제안하여 2009년 9월에 내각부 소속으로 발족하였다. 소비자청 운영은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 외에도 소비자 안전관리의 틈새행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농식품 표시에 관한 일원적인 법률 제정 등 법체계에 관하여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의 농식품표시 관계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운용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용개선 등 문제점을 파악 및 검토하기 위하여 소비자청에 ‘식품표시에 관한 일원적인 법체계를 갖춘 워킹팀’을 설치하였다.

2. 농식품 안전 관련법령

2003년에 시행된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기본 이념으로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할 것을 명기함으로써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대, 시험연구체제 정비, 국내외의 정보수집·정리·활용,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영, 농식품에 관한 교육·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등의 기능을 명시하였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설립된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와 위험정보 교환업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내각부 소관으로 상위법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식품 안전관련 법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에서 관장하는 법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검사법”,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비료단속법”, “식물방역법”,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약사법(동물용의약품관계)”, “우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 “특정농산가공경영개선임시조치법”,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하는 법은 “식품위생법”, “식조처리법”, “도축장법”, “건강증진법”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으로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신설하였다.

농식품 안전관련 법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표 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후 주요 안전관련 법 개정 신설

| 부처 | 법 내용 |
|-------|---|
| 농림수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단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에 ‘국민의 건강보호’ 를 추가 - 사용방법의 준수를 의무화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료의 판매·사용·금지 회수명령을 명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단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명령 기능을 신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안전법(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사료 등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비료의 수입·제조·판매·사용금지를 명시 - 사료의 검정기관 지정제도 재검토 조항이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의 침입방지, 미생물 억제 등 가축사양과 관련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방역매뉴얼을 작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동물용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무허가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제조하는 행위를 금지 - 미승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금지 조항이 추가 - 식용동물에 대한 사용규제 범위를 확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S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부정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정비 - 감시체제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육추적가능법(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에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로 전달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 식육관련 기계류의 리스제도 도입 |
| 후생노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목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식품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 - 전반적으로 법의 개정은 규격과 기준을 재검토하고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음식에서 기인하는 사고대책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짐 - 규격과 기준의 재검토에서 잔류규제(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를 강화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존 첨가물의 사용 금지 - 특수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잠정적인 유통금지 조치 등이 포함 - 감시체제의 강화에서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수입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규정 신설 - HACCP(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승인의 갱신제 도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과대 광고나 표시를 금지하고 감시·검사 체제를 강화 |

자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농식품 안전정책 관련 주요 기관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소비자청이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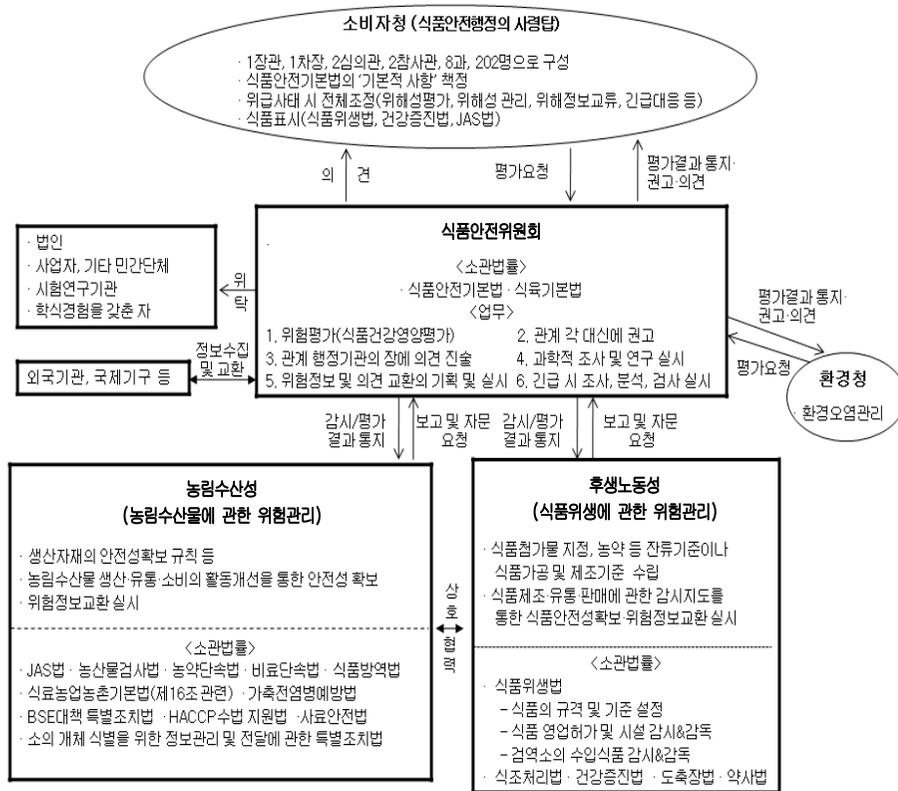
3. 일본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1) 조직 및 구성

농식품 안전정책 관련 주요 기관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그리고 소비자청이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를 총괄수행하며, 위험관리에 있

어 정책조정과 역할부여를 담당한다.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기준과 규격설정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소비자청은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적 사항을 책정하고, 식품안전사고 위급사태 시에는 전체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청은 환경오염관리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 일본의 농식품안전 관련 행정체계¹⁾



자료: 식품안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농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은 농축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안전(위험)관리를 담당한다. 후생노동성은 수입,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안전(위험)관리를 수행하는 등 2개 부처가 농식품 안전관련 정책수립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 안전관련 지도·단속을 위해 생산과 수입단계를 제외한 가공·유통·소비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1) 2009년 소비자청이 신설되기 전에는 식품안전위원회가 농식품안전관련 컨트롤 타워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소비자청이 설립된 후 식품안전위원회는 주로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조정됨.

표 2 취급단계별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체계

| 구분 | 생산 (재배·사육·양식 등) | 수입 | 국내 가공 | 유통 (보관·운반 등) | 소비 (백화점, 식당 등 종판매점) |
|-------|--------------------|-------|--------|-----------------|------------------------|
| 정책 | 농림수산물성 | 후생노동성 | | | |
| 지도·단속 | 농림수산물성/ 지방자치단체 | 후생노동성 | 지방자치단체 | | |

식품안전위원회는 과학적인 기반위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농림수산물성과 후생노동성은 위험관리를 담당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전의 일본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는 농림수산물성과 후생노동성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농식품의 생산과 안전관리는 서로 상반 관계에 있다는 판단 하에, 생산에서 출하 전 단계는 농림수산물성에서 관리하고 식품위생행정은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농식품 위험분석 기능에서 위험분석과 위험관리 기능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화와 2부처간 농식품 위험에 관한 정보교류의 비효율화를 초래하였다.

“식품안전기본법”시행은 농식품 안전에 있어서 위험을 전제로 한 위험분석이라는 새로운 수법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독립된 평가기관으로 과학적인 기반위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농림수산물성과 후생노동성은 위험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표 3 일본의 위험관리와 위험평가 조직구성

| 구분 | 식품안전 | | |
|------|-----------------------------|------------------------------|-----------------------------|
| | 농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 수산물 (가공식품) |
| 위험관리 | 농림수산물성 (소비·안전국) | 농림수산물성 (소비·안전국) | 농림수산물성 (소비·안전국) |
| | 농림수산물소비안전기술센터 | | |
| |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가공·유통관리) |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도축·가공·판매) |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가공·유통관리) |
| 위험평가 |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 | |

2) 주요 제도 및 정책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업생산공정관리)제도

일본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입농산물 대응차원에서, 농업단체와 농식품 소매업계는 자사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GAP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005년에 도입된 일본의 GAP 인증제도는 JGAP, 농림수산물성, 도도부현(都道

附縣), 유통업체, 생협 등 5개 관리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농가는 5개 관리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07년 8월 일본 GAP와 EurepGAP는 농장관리기준에 한하여 동등성을 인정하는 AMCL(Approved Modified CheckList) approach²⁾ 방식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GAP는 국내용과 수출용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기초 GAP, ② Global GAP와 동등성을 가진 JGAP)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세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도도부현에서 추진하는 기초 GAP 기준 적용을 추천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노지야채, 쌀, 보리, 과수, 화훼 등에 대해서는 기초 GAP 생산자용·산지용 관리기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며, 농가에 토양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GAP제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가들에게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Global GAP와 동등성 인증을 취득한 JGAP를 도입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국내농업생산 규범으로써 GAP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진행하며, 인증서는 GAP협회가 발급한다. 인증심사 범위는 종묘·토양·물의 안전성, 농약·비료, 수확, 농산물의 취급시설 등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대상으로 한다. GAP인증은 <그림 2>에 제시되었듯이, 국제인증기관이나 민간인증기관인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³⁾이 수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이 별도로 취하는 조치는 없으며, 해마다 실시하는 재인증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용 GAP는 Global GAP의 동등성을 인정받아 농산물 수출증대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GAP는 국내용 GAP와 EurepGAP인증제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동일한 마크를 사용할 시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GAP위원회에서는 인증마크 표시 금지조건으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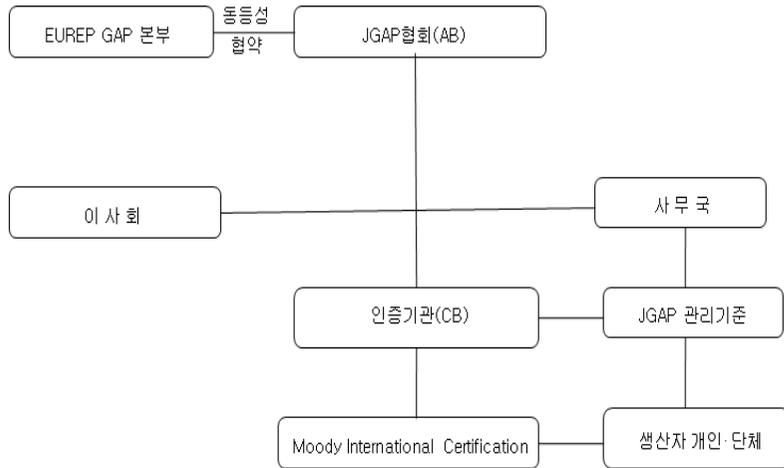
일본정부는 2011년까지 과일·야채·쌀·보리 등의 산지를 대상으로 농가에 연수 및 지도 등을 통해 주요산지 약 200개소에 GAP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GAP관리기준이 관리주체별로 다양하여 생산자·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됨에 따라 2011년까지 현재 5개의 GAP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8월 일본 GAP와 EurepGAP는 농장관리기준에 한하여 동등성을 인정하는 AMCL approach 방식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 EurepGAP의 동등성 인정은 '농장관리의 기준' 과 '심사·인증의 룰' 3개 요소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진행함. 그러나 AMCL approach 방식은 동등성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수단으로 EurepGAP측이 제안하여 '농장관리기준' 만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식임(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

3)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은 영국에 본사가 있는 국제적 규모의 인증 전문업체임. JGAP협회와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지사에서도 일본 내 모든 농산물의 GAP인증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2 JGAP협회 조직도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유통정책단,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2008.60)."

표 4 일본의 국내용·수출용 GAP 비교

| 구분 | 국내용 GAP | 수출용 GAP |
|----------|----------------------------|--|
| 농장관리기준 |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쌀·청과물 제2.1판 |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청과물 제2.1판 |
| 심사/인증 | JGAP의 제반규칙 | General Regulation and Fruit Vegetables Version 2.1-Oct 04 |
| 동등성 인증협약 | 미협약 | 2007년 8월 협약 |
| 동등성 인정 | 인정하지 않음 | 인정함 |
| 인증서 발급 | JGAP 인증서 발급 | JGAP, Global GAP 인증서 발급 |
| 인증 대상 | 국내용 50개 품목 | 수출용 과일 |
| 인증마크 표시 | 골판지에 표시 | 표시하지 않음 |

자료: 위태석(2008).

유기인증

유기인증제도는 1999년 개정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00년에는 ‘농림물자 규격조사회(JAS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일본 농림 규격이 제정되었다.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인증은 생산자단체의 규격 제정 요청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축산물 국제기준 채택요구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유기 JAS 인정은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 축산물 등이 대상이며, 수산물은 해당

유기 JAS 인정은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 축산물 등이 대상이며 수산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인증은 취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인정기관은 인정한 생산·행정 등 관리자가 계속하여 인정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유기 농산물이나 유기 식품의 잔류 농약 제로는 GMO 제로의 보증과는 다르다. 농림수산성 장관은 “JAS 법” 제 19조 14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판매자 등에게 표시 사항과 준수사항을 지시하며, 유기 JAS 마크의 부정적인 사용 등에는 벌칙이 주어진다.

유기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은 2004년 개정된 ‘특별재배 농산물’ 4) 가이드 라인에 기초하여 관리된다. 유기농산물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면 친환경농산물은 그렇지 못하다. 유기 JAS법에 의해 유기 JAS 인증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 물·식염을 제외한 95%이상의 원재료가 유기인 가공식품은 ‘유기재배농산물’, ‘유기농산물’, ‘오가닉○○’, ‘유기○○’ 으로 표시하며, 유기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표 5 일본의 유기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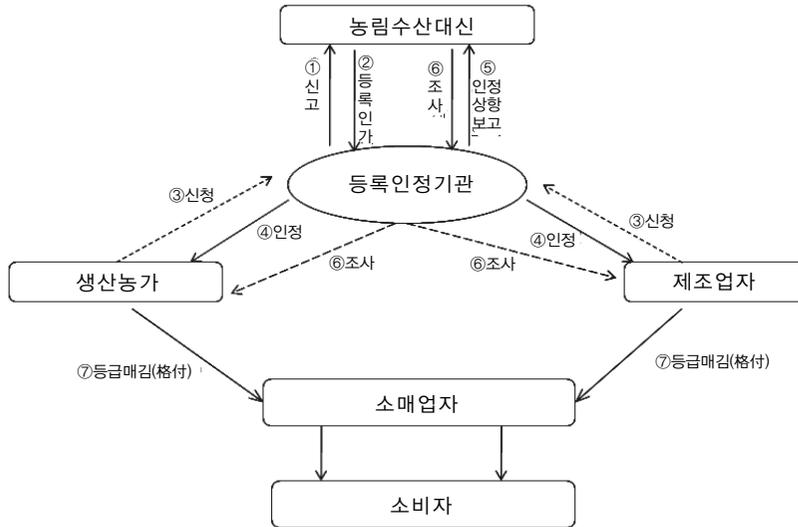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법적근거 |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 적용범위 | 농산물 및 가공품 |
| 담당기관 | 농림수산성 |
| 인정기관 | 농림수산성 소비기술센터 |
| 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 |
| 표시 | 유기, 특별재배농산물(자발적 표시) |
| 표시사항 | 유기표시/ JAS마크, 재배책임자의 이름주소, 등록인증기관 명 |

자료: 신용광 외(2007).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정업무는 농림수산성 소속 독립행정법인인 농림수산물안전기술센터(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가 담당한다. 검사인증은 인증기관 등록, 사업자 인증, 인증사업자 조사, 인증사업자에 의한 자격부여 순으로 이루어진다. 등록인증과 인증취소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 제3자 기관이 담당한다.

4) 특별재배 농산물은 해당 농산물 재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화학 합성 농약의 사용 횟수 및 화학비료의 질소 성분량이 50% 이하여야 함.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특별재배 농산물’ 로 표시가 가능(신용광 외 2007).

그림 3 유기식품 검사인증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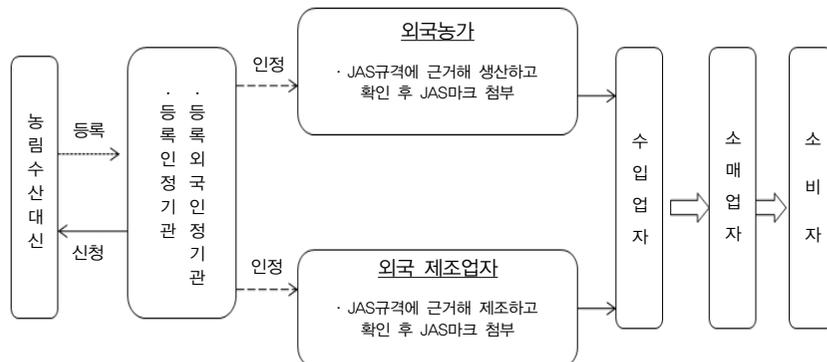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관하여”, 2007.

해외로부터 유기식품을 수입하여 유기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해외로부터 유기식품을 수입하여 유기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국내의 등록인정기관이나 등록 외국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등이 생산·제조한 유기식품에 유기 JAS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즉, 유기 JAS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는 자사의 생산 및 가공공장에서 등급을 매기고 유기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유기 JAS마크가 부착된 농산물 및 가공품을 수입하여 유기식품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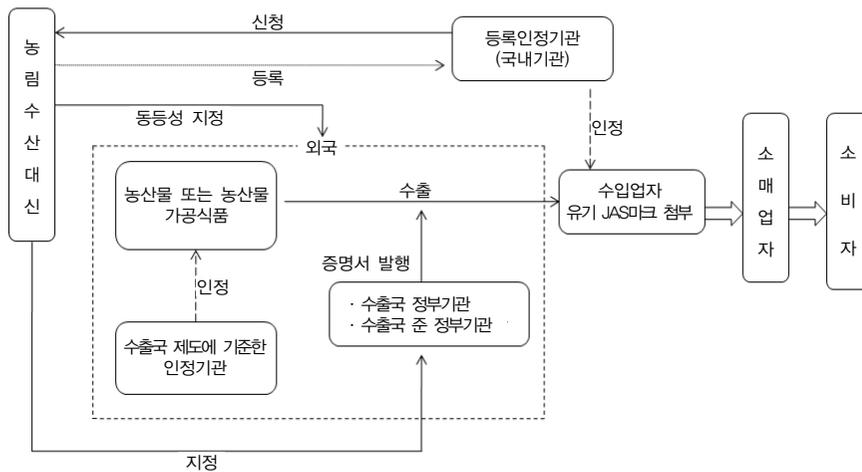
그림 4 일본 및 외국등록 인정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조업자의 유기식품인 경우



자료: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관하여”, 2007.

둘째, 일본의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수입업자가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하여 유기 JAS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것이다(JAS법 제15조 2). 수입업자는 동등성을 인정한 수출국 제도에 따른 인정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한 후 수출제품에 유기 JAS마크를 붙여 유통한다. 2007년 8월 현재 유기농산물에 관해 “JAS법” 제15조 2에 있어서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EU15개국⁵⁾,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스위스 등이 있다.

그림 5 일본의 등록인정 기관에서 인정받은 수입업자의 유기식품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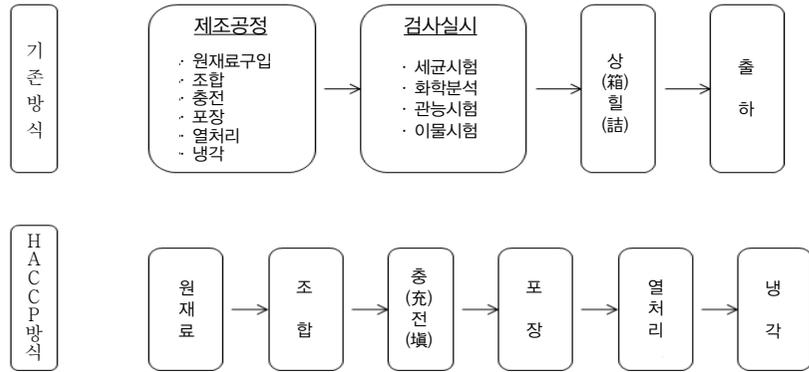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관하여”, 2007.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는 1996년 5월에 “식품 위생법”(제7조의 3)의 일부를 개정하고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제조 또는 가공 방법 및 그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해 식품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강구된 제조, 또는 가공의 공정) 승인 제도가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농식품 안전성을 위해 제조환경의 정비나 위생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발취(拔取)검사로 (미생물의 배양 검사 등) 최종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HACCP방식은 기존방식을 보완하여 원료의 입하에서 출하까지 모든 공정에서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을 정한다. 중요관리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감시·기록)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책이 즉시 강구됨으로서 불량제품의 출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임.

그림 6 HACCP 공정 흐름도



자료: Japan Food Industry Center(JAFIC).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HACCP제도의 정착,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사기관을 선정하여 기업체의 매뉴얼 개발에 일조하고 있다.

HACCP이 도입될 때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근거로 이미 제조·가공방법의 기준이 정해진 농식품에 대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조·가공방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영업자가 안전하게 농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면 제조·가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여 농식품산업에 HACCP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HACCP제도의 정착·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HACCP 심사기관을 선정하여 기업체의 매뉴얼 개발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협회는 회원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후생노동성의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에는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은 안전성 이외에 시설 설비의 보수 관리와 위생 관리, 제품 회수 시 프로그램 등 일반적 위생 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업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적용되어 중소기업체를 위한 다른 HACCP인증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림수산성 주도하에 1998년 5월 HACCP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상 우대 조치나 저리 융자를 포함한 “식품의 제조 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 조치법(HACCP 수범 지원법)”이 5년간의 시한법으로 제정되어 7월에 시행되었다. 그 후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2003년 6월에 동법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HACCP 수범 지원법”에 따라 기업체의 지원금 요청에 제한은 없다. 민간단체가 HACCP 인증기관이며, 정부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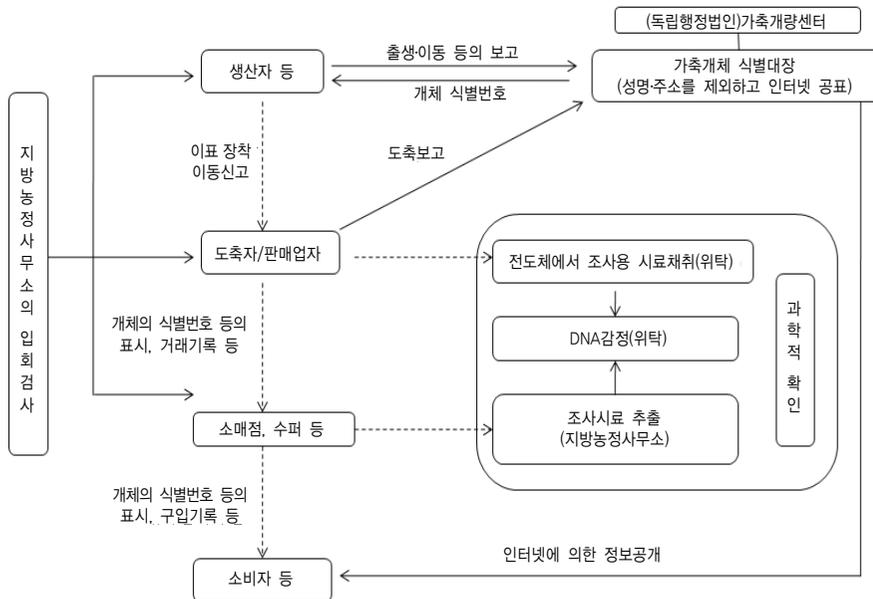
후생노동성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 농림수산성의 “HACCP수법 지원법”에 의해 HACCP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특성의 HACCP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국은 민간심사기관이 심사기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면 그 매뉴얼을 기업체에 제공하여 직접 기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농식품의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소의 개체식별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는 광우병이 계기가 되었다. “소의 개체식별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03년 정기국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화되었다. 2003년 12월에는 이력추적제가 사육단계에서 의무화 되었으며, 2004년 12월에는 도축이후 유통단계에서 시행되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된 기관은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농정사무소), 가축개량센터(정부위탁업무수행), 축산물등급판정소, 가축개량기술연구소 등이다.

2003년 12월에 이력추적제가 의무화 되었으며, 일반농산물은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림 7 일본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를 제외한 일반 농산물은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며, 이력추적제와 비슷한 생산이력제도가 농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00년부터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을 시행하여 이력추적제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확보 사업이 전개 중에 있다. 시행중인 사업의 특징은 연구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서 실증 시험을 병행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부는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쇠고기를 제외한 품목은 청과물EDI협의회,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산규범기준연구회, T-Engine포럼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산규범기준연구회는 농식품의 생산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는 휴대전화로 매장에서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 단계부터 포장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생산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은 '식품 안전·안심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 식품추적시스템 개발과 실증시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가공식품, 야채,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이력제 도입 목적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 2008.6.

신용광·황윤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위태석. "농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동등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2008.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후생노동성. <http://www-bm.mhlw.go.jp/topics/yunyu/kan>

Japan Food Industry Center(JAFIC) <http://www.shokusan.or.jp>

農林水産省 消費·安全局. 有機食品の検査認証制度について, 2007.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pdf/yuuki_seido_a.pdf

미국 육류 패커의 과점화 동향과 가축거래규칙안의 영향*

김원태

1. 머리말

미국 육류 패커의 최근 과점화 동향과 축산물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칙안이 육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2009년 기준 1,178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60배(2009년 20만 톤) 수준이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의 15배(2009년 72만 톤)인 1,043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육류산업은 대량의 육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육류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육류 패커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육류 산업의 공급 측면(supply-chain)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육류 패커는 생체를 구매하여 자가 도축장에서 지육 단계의 작업을 비롯하여 가공처리를 통해 부분육 상태로 유통업자나 최종 수요자인 소매·외식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편, 육류 패커의 특징은 활발한 인수 합병을 통해 미국의 육류산업에서 가장 과점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육류 수입원인 미국 육류 패커의 최근 과점화 동향과 USDA가 2010년 6월에 제안한 축산물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칙안이 육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본 내용은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와 USDA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원태 연구원이 참고 및 번역하여 작성하였다(wtkim@krei.re.kr, 02-3299-4245).

2. 육류 패커의 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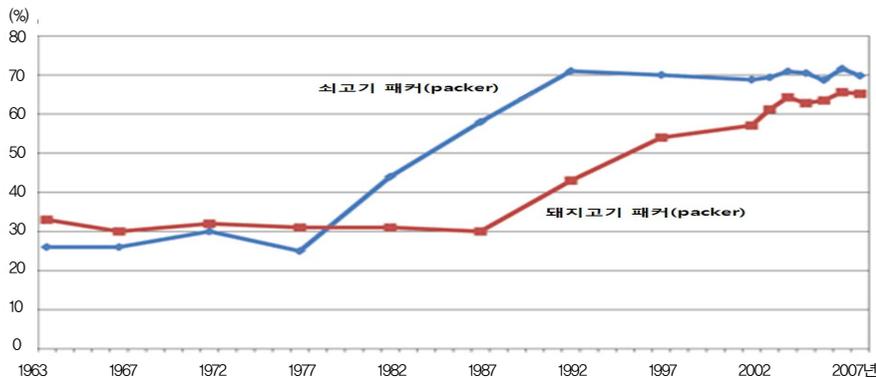
(1) 과점화의 역사

최근 30년간 미국 육류 패커의 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림 1>은 과점화 지표 중 하나인 도축 마리수의 「상위 4사 시장 점유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쇠고기 패커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은 1977년 25%에서 1992년 71%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1963년부터 1987년까지 별 다른 변동이 없었던 돼지고기 패커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은 1987년 30%에서 2002년 57%까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점화가 진행된 이유는 1980년 이후 제품의 다양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화 추구,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등의 이민 노동자 증가에 의한 임금 하락과 노동운동 쇠퇴로 임금 상승 없이 규모 확대가 가능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패커의 과점화가 진행된 이유는 규모화 추구, 이민 노동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 육류 패커(packer)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



주: 도축 마리수 비중.

자료: USDA, Cattle Buyers Weekly.

(2) 쇠고기 과점화 동향

미국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번식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후계 번식을 위한 육성용 송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송아지는 6~12개월령에 육성업자, 비육업자에게 판매된다. 최근 육우 번식 경영체는 육용 암소 10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서 미국 송아지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어, 쇠고기 생산의 집약화를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번식 경영체에 비해 비육 경영체는 상대적으로 집약화가 진행된 편이다. 쇠고기 산업의 경영 형태별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사의 비중은 쇠고기 패커 86.6%, 비육경영체 19.3%, 번식 경영체 0.4%로 번식 경영체의 집약

번식 경영체의 집약화가 가장 늦고, 쇠고기 패커의 집약화가 가장 진척되어 있다.

화가 가장 낮고 쇠고기 패커의 집약화가 가장 진척되어 있다.

표 1 2009년 쇠고기 산업의 경영 형태별 시장 점유율

단위: %

| | 번식경영 | 비육경영 | 패커(packer) |
|--------|------|------|------------|
| 상위 4사 | 0.3 | 11.9 | 73.3 |
| 상위 10사 | 0.4 | 19.3 | 86.6 |
| 상위 20사 | 0.6 | 28.0 | 93.3 |

주: 번식경영은 번식암소 비율, 비육경영은 수용능력 비율, 패커는 도축 비율.
 자료: USDA, Cattle Buyers Weekly, National Cattlemen.

<표 2>는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쇠고기 패커 상위 4사의 최근 8년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상위 4사의 점유율이 73.3%를 차지하는 등 비육 경영체보다 과점화가 현저히 진행되고 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타이슨 푸드(Tyson food)사는 업계 순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Cargill사, JBS USA사, 내셔널 비프(National beef)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JBS사는 2007년 스위프트(Swift)사와 스미스필드 비프(Smithfield beef)사를 인수한 이후 점유율이 상승하여 업계 2위인 Cargill사를 위협하고 있다. 쇠고기 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쇠고기 패커간에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쇠고기 패커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100만 파운드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tyson food | 25.7 | 26.6 | 25.6 | 24.8 | 24.9 | 23.6 | 21.5 | 21.7 |
| cargill | 19.9 | 19.7 | 20.5 | 21.6 | 20.8 | 22.0 | 22.1 | 20.7 |
| JBS USA | 14.5 | 14.1 | 15.3 | 13.9 | 12.6 | 14.6 | 15.1 | 19.8 |
| national beef | 8.7 | 9.0 | 9.5 | 10.2 | 10.4 | 11.4 | 11.1 | 11.1 |
| 상위 4사 비중 | 68.8 | 69.4 | 70.9 | 70.5 | 68.7 | 71.6 | 69.8 | 73.3 |
| 쇠고기 생산량 | 27,090 | 26,238 | 24,548 | 24,683 | 26,152 | 26,421 | 26,561 | 25,965 |

자료: Cattle Buyers Weekly.

(3) 돼지고기 과점와 동향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생산자간 체결된 생산 계약(Production Contracts)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산 계약은 생산자와 소유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위탁계약으로 소유주는 생산자에게 비육소돈, 사료, 연료비, 수의사 비용 등을 제공하는 대신 생산자는 노동력과 기계,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돼지 가격이 하락하였던 1990

년대에 대부분의 소규모 양돈 농가가 탈농함에 따라 생산 단계의 집약화가 진행된 결과, 2005년에는 상위 4사의 번식 모돈 점유율이 미국 전체 모돈수의 25%를 초과하게 되었다. 그 이후 스미스필드(Smithfield)사가 프리미엄 스탠다드 팜(Premium Standard Farms)사를 인수하였고 트라이엄프 푸드(Triumph food)사가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업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상위 4사의 2009년 점유율은 28%로 2005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 미국 대규모 양돈기업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smithfield foods | 12.1 | 12.6 | 13.6 | 14.1 | 13.9 | 16.6 | 16.7 | 15.6 |
| triumph food | 3.7 | 3.8 | 3.8 | 5.9 | 6.6 | 6.5 | 6.5 | 6.3 |
| seaboard | 3.5 | 3.6 | 3.6 | 4.0 | 4.5 | 3.5 | 3.5 | 3.6 |
| iowa select farms | 2.0 | 2.2 | 2.4 | 3.6 | 3.5 | 2.4 | 2.6 | 2.6 |
| 상위 4사 비중 | 21.2 | 22.1 | 23.3 | 27.6 | 28.5 | 29.0 | 29.3 | 28.0 |
| 상위 10사 비중 | 29.9 | 31.4 | 33.6 | 39.0 | 40.0 | 40.0 | 40.7 | 39.3 |

자료: Cattle Buyers Weekly.

돼지고기 패커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이 64.0%를 차지하는 등, 패커의 과점화는 양돈 생산단계보다 2배 이상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 점유율 1위인 Smithfield사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mithfield사는 1988년부터 업계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당시 업계 6위인 Premium Standard Farms사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mithfield사는 시장 점유율에서 2위와의 격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양돈 생산 부문에서도 미국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등 쇠고기에 비해 생산에서 가공까지 수직통합이 크게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4 돼지고기 패커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100만 파운드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스미스필드 | 19.9 | 22.5 | 26.1 | 26.1 | 26.5 | 28.4 | 28.3 | 26.4 |
| 타이슨 | 18.0 | 18.0 | 18.5 | 17.9 | 17.4 | 17.6 | 17.6 | 18.0 |
| JBS USA | 10.7 | 11.5 | 10.8 | 10.8 | 10.9 | 11.1 | 10.8 | 11.0 |
| 카길 | 8.5 | 9.2 | 8.9 | 9.0 | 8.7 | 8.5 | 8.5 | 8.6 |
| 상위 4사 비중 | 57.1 | 61.2 | 64.3 | 63.8 | 63.5 | 65.6 | 65.2 | 64.0 |
| 돼지고기 생산량 | 19,664 | 19,945 | 20,511 | 20,685 | 21,054 | 21,943 | 23,347 | 22,999 |

자료: Cattle Buyers Weekly.

생산이 한계점에 도달한 쇠고기 부문과는 달리 돼지고기 부문은 순조로운 생산 확대와 함께 패커의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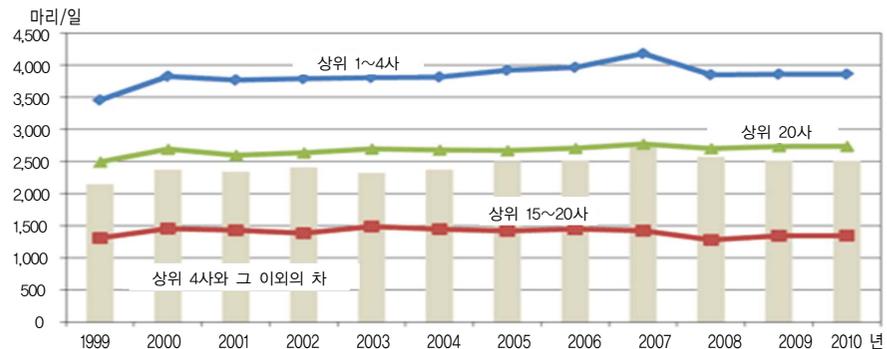
3. 육류 패커 동향

(1) 시설 규모와 비용의 관계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육류 패커의 시설당 도축처리 능력 추이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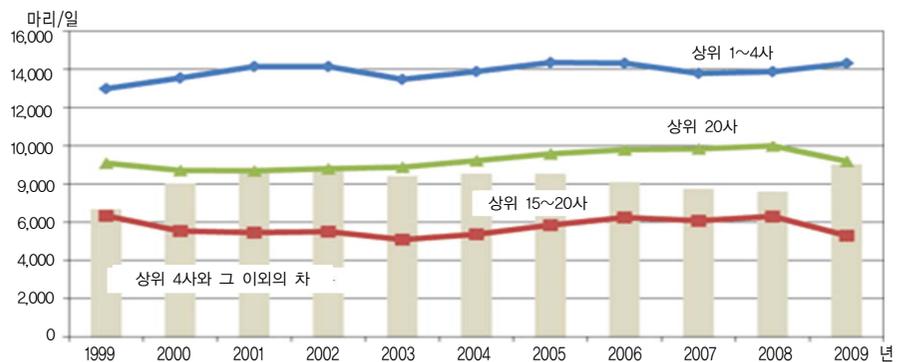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육류 패커의 시설당 도축처리 능력 추이를 살펴보았다. 쇠고기 패커, 돼지고기 패커 모두 시설 처리 능력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 4사의 처리 능력은 상위 5~20사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패커는 1999년 상위 4사와 5~20사의 1일 처리 능력이 2.64배 차이를 보였지만, 2010년에는 2.87배로 확대되었다. 돼지고기 패커는 1999년 상위 4사와 5~20사의 1일 처리 능력이 2.05배의 격차가 있었지만, 2009년에는 2.70배로 확대되었다.

그림 2 소 1일당 도축 마리수



자료 : Cattle Buyers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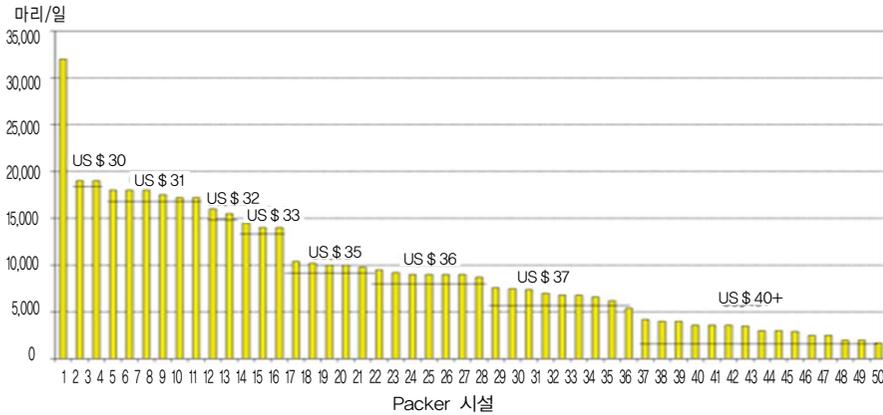
그림 3 돼지 1일당 도축 마리수



자료 : Informa Economics.

<그림 4>는 돼지고기 패커의 도축 능력과 비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화가 진행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도축 능력이 높을수록 처리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1일 도축 능력이 2만 마리 규모 시설의 처리 비용은 30달러로 2천 마리 이하의 시설의 처리 비용 40달러보다 25%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돼지 1일당 도축 마리수와 비용 비교



자료 : Informa Economics.

(2) 가동률 추이

도축처리 능력을 확장하여도 가동률이 낮으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규모를 확대한 패커는 높은 수준의 시설 가동률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USDA에 따르면 쇠고기 패커가 시설 가동률을 95% 유지할 경우, 가동률을 중간 수준으로 유지한 시설보다 약 14% 비용 효율이 개선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패커의 가동률과 수익성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육류 패커의 가동률이 높을수록 수익성도 함께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돼지고기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익성은 육류 패커의 처리 경비를 고려한 실제 수익성이 아니라, cutout value(각 부분육 도매가격을 1마리 분량의 지육으로 재구성한 도매지표 가격)에 부산물 가격을 합산한 가격에서 가축 구입 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수익성 지표 성격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가동률이 상승한 결과 수익성이 증대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cutout value가 높을 때나 비육우, 양돈 생체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될 때) 패커가 도축을 증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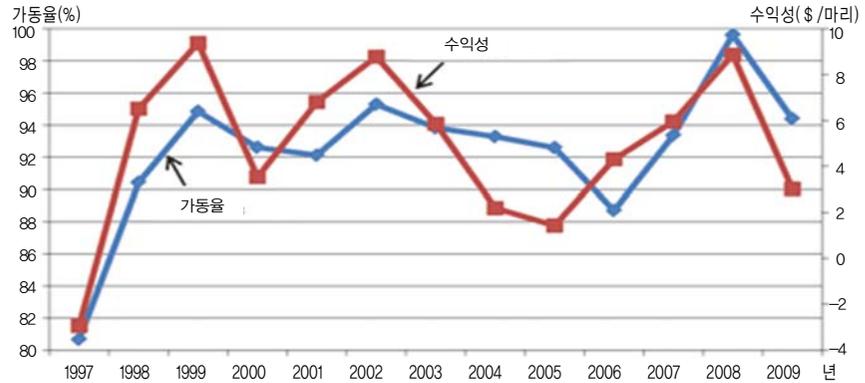
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는 높은 수익성이 전망될 때의 가축 조달 능력이 패커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5 쇠고기 패커의 가동률과 수익성 관계



자료 : Cattle Buyers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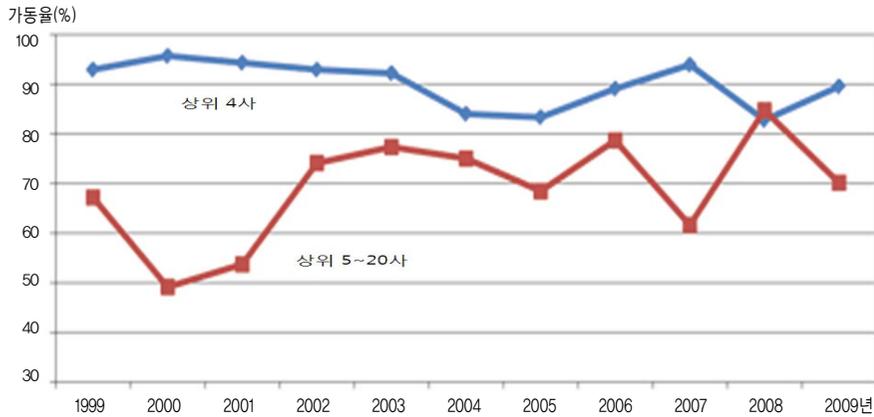
그림 6 돼지고기 패커의 가동률과 수익성 관계



자료 : Cattle Buyers Weekly.

<그림 7>은 쇠고기 패커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가동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 4사와 5~20회사의 가동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대기업 패커의 가축 조달 능력이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다. 대기업 패커는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여 비용 절감과 더불어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시점에 효과적으로 도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08년에는 상위 4사의 가동률이 상위 5~20회사와 동일한 수준까지 하락하였지만 이는 금융 위기 여파로 쇠고기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결과 대기업 쇠고기 패커가 도축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쇠고기 패커 상위 4사와 5~20사의 가동률 비교



자료 : Cattle Buyers Weekly.

(3) 가축 구입 방법

일정한 생산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육류 패커는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가격으로 가축을 구입하는 일도 중요한 요소이다. USDA의 조사에 의하면, 쇠고기 패커의 가축 구입은 현물거래 61.7%, 대체적 거래 33.8%(사전 예약출하 4.5%, 장기 출하계약 28.8%, 패커 자기 소유 0.5%)로 구성되어 현물거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커는 대체적 거래에 대해 고품질 비육우 구입, 쇠고기 공급 관리 개선, 쇠고기 고부가가치화 실현 등의 이유로 그 유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축 구입 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 패커는 상대매매에 의한 가축 구입비중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패커의 상대매매 구입 비중은 46%로 대규모 패커보다 낮은 수준이며, 시장 구입 비중은 12.7%로 대규모 패커보다 높다.

한편, 대규모 패커의 비육우 구입 방법으로 현물거래만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이 약 10%인데 비해 소규모 쇠고기 패커의 현물 거래 비율은 약 80%로, 대규모 패커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쇠고기 패커의 불안정한 가축 구입 방법이 <그림 7>에 나타난 대규모 쇠고기 패커와의 가동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측된다. 또한, 시장거래로 구입한 가축의 가격은 대체적 거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쇠고기 패커는 대규모 패커보다 가축 구입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쇠고기 패커의 가축 구입방법은 현물거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쇠고기 패커의 가축 구입 방법(2002년 10월~2005년 3월)

단위: %

| | 현물거래 | | | 대체적 거래 | | | 기타 |
|-----|------|------|------|------------|------------|------------|-----|
| | 시장 | 딜러 | 상대거래 | 사전 예약출하 | 장기 출하계약 | 패커 자기소유 | |
| 소규모 | 12.7 | 16.0 | 46.4 | 5.2 | 28.0 | 2.7 | 3.4 |
| 대규모 | D | D | 61.1 | 4.3 | 29.1 | D | D |
| 평 균 | 4.2 | | 57.5 | 4.5 | 28.8 | 0.5 | |

주 1) 소규모 패커는 주당 처리두수가 2만 마리 미만, 대규모는 2만 마리 이상으로 정의

2) D는 비공표

3) 현물거래는 도축 이후 2주 이내에 시장, 딜러, 상대매매 등을 통한 가축 구입 방법

4) 사전 예약 출하는 도축 이후 2주 이전에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한 가축 거래 계약

5) 장기 출하 계약은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해 특정 조건을 교부한 장기 가축 거래 계약

자료: USDA.

돼지고기 패커의 비육돈 구입방법은 대체적 거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돼지고기 패커의 비육돈 구입 방법은 현물거래 11.0%, 대체적 거래 77.4% (사전 가격결정 출하 29.0%, 사전 예약출하 12.1%, 장기 출하계약 16.7%, 패커 자기소유 19.6%)로 쇠고기 패커보다 대체적 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① 돼지고기 패커 스스로 양돈장을 소유하는 등의 “수직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② 최근 출하 마리수, 출하 체중, 출하 장소, 출하 시기, 가격 설정 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판매 계약”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는 생산 단계에서 토지의 제약 요인이 적으며, 교배에서 생산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 쇠고기보다 관리가 용이하다. 돼지고기의 이러한 특성이 생산 단계와 가공 처리 단계의 강한 결합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생산의 수직적 결합은 돼지고기의 균일성, 품질 확보 등에도 공헌하고 있다.

표 6 돼지고기 패커의 가축 구입 방법(2002년 10월~2005년 3월)

단위: %

| 시장 | 현물거래 | | 대체적 거래 | | | | 기타 |
|-----|------|------|------------|------------|------------|------------|------|
| | 딜러 | 상대거래 | 사전 결정출하 | 사전 예약출하 | 장기 출하계약 | 패커 자기소유 | |
| 0.5 | 1.6 | 8.9 | 29.0 | 12.1 | 16.7 | 19.6 | 11.6 |

주 1) 현물거래는 도축 이후 2주 이내에 시장, 딜러, 상대매매 등을 통한 가축 구입 방법

2) 사전 가격결정 출하는 미리 거래 가격을 정한 가축 거래 계약

3) 사전 예약출하는 도축 이후 2주 이전에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한 가축 거래 계약

4) 장기 출하 계약은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해 특정 조건을 교부한 장기 가축 거래 계약

자료: USDA.

최근 돼지고기 패커의 비육돈 구입과 관련된 가격 산정 방법을 살펴보았다. USDA에 의하면, 비육돈 현물 시장이나 돼지고기 가격 등에 연동하는 가격결정 방법(비육돈, 돼지고기 시황 공식)이 41.2%(2009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돼지고기 패커가 소유한 비육돈을 구입하는 비율이 2002년 16.4%에서 2009년 25.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 패커 상호간에도 비육돈을 매매하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 패커의 도축 시설과 생산 농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패커에게 비육돈을 판매하는 경우로 2002년 2.1%에서 2009년 5.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돼지고기 패커의 시설 가동률과 수익성간 상관관계가 쇠고기 패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돼지고기 패커는 수익성 변동에 적합하게 도축 마리수를 변동시키는 능력이 쇠고기 패커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패커가 돼지의 자기 소유를 증가시키고 가축 구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인 결과이기도 하다.

표 7 돼지고기 패커의 가축 구입 방법

단위 :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비육돈, 돼지고기 시황공식 | 44.5 | 41.4 | 41.4 | 39.9 | 41.6 | 38.3 | 37.1 | 41.2 |
| 기타 시황공식 | 11.8 | 5.7 | 7.2 | 10.3 | 8.8 | 8.5 | 11.0 | 7.9 |
| 기타 구입계약 | 8.6 | 19.2 | 20.6 | 15.4 | 16.6 | 15.2 | 13.4 | 11.6 |
| 패커 구입 | 2.1 | 2.2 | 2.1 | 2.4 | 2.6 | 6.7 | 6.1 | 5.6 |
| 패커 자기소유 | 16.4 | 18.1 | 17.1 | 21.4 | 20.0 | 22.7 | 23.1 | 25.7 |
| 현물 거래 | 16.7 | 13.5 | 11.6 | 10.6 | 10.4 | 8.6 | 9.2 | 8.1 |

- 주: 1) 비육돈, 돼지고기 시황공식은 비육돈, 돼지고기의 시장가격을 기본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약
 2) 기타 시황공식은 비육돈, 돼지고기 이외의 시장가격을 기본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약
 3) 기타 구입계약은 장기 계약, 코스트 공식(사료비 연동), 윈도우 방식(가격대를 규정 시장가격과 연동)등을 포함한 계약
 4) 패커 구입은 다른 패커가 2주 이상 보유한 가축을 구입하는 경우
 5) 패커 자기소유는 2주 이상 보유한 가축을 도축 하는 경우
 6) 현물 거래는 생산자로부터 도축 2주 이내에 가축을 구입한 경우

자료: USDA.

(4) 수익성 동향

육류 패커의 수익성은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용하는 수익성도 cutout value에서 가축 구입가격을 제외하여 도출된 것이다.

<그림 8>에서 cutout value와 비용이 나란히 평행이동하고 있다. 이는 ① cutout value가 구입 가축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cutout value를 기본으로 가축

육류 패커의 수익성은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입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 ② 대기업 육류 패커의 시장 점유율이 60~70% 수준으로 소매업자 및 생산자에 대한 교섭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③ 육류 패커는 cutout value의 가격변동을 보면서 도축 마리수를 변동시키는 등 치밀한 수급 조정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쇠고기 패커의 수익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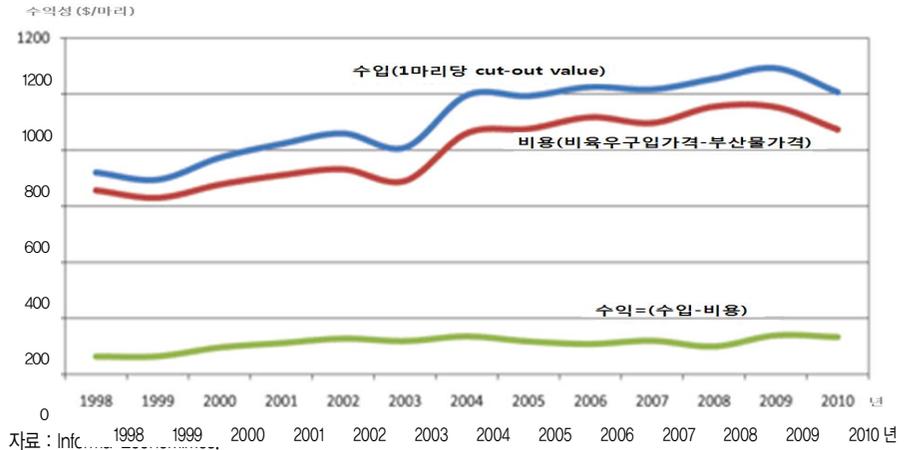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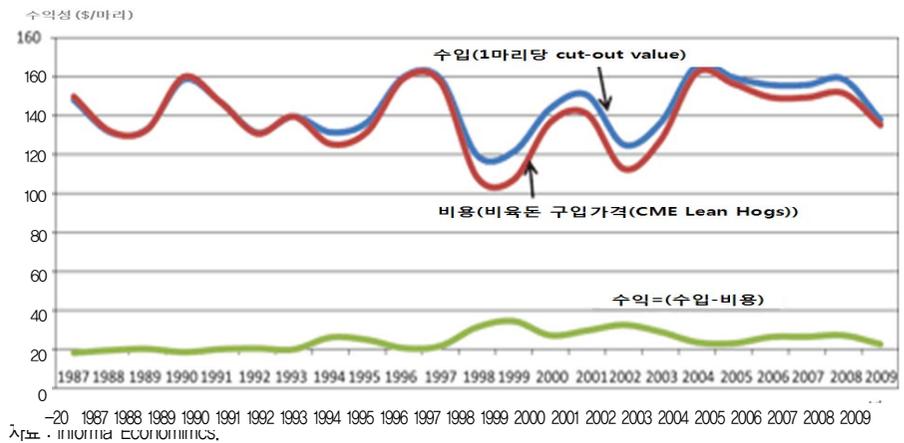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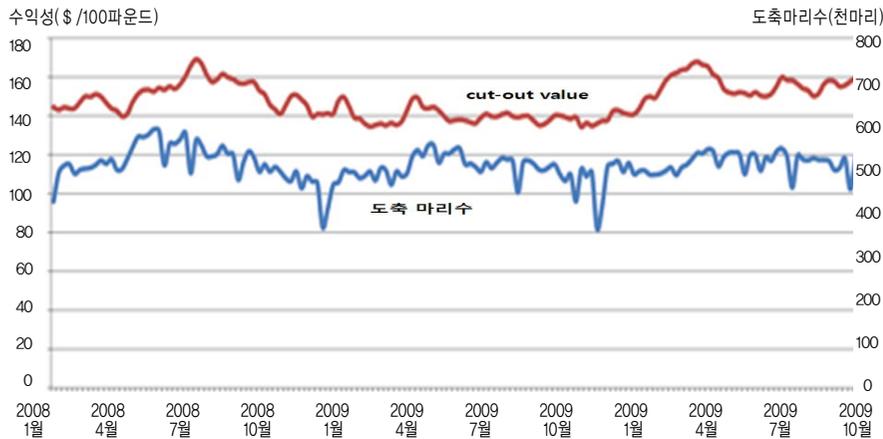
그림 9 돼지고기 패커의 수익성 추이



<그림 10>는 1주 단위로 소의 도축 마리수, 쇠고기 cutout value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cutout value의 가격변동과 도축 마리수 변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육류 산업에서 패커는 가장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 마리수의 증감과 관련된 패커의 의사결정이 미국 전체의 수급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육류 패커는 고기의 ‘양’뿐만 아니라 ‘질’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육류 패커는 생산자와 협력하여 앵거스 쇠고기(Angus beef), 내추럴 쇠고기(Natural beef),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쇠고기(Hormone free beef), 윌링 증명 축산물 등 국내외 소비자의 요구에 알맞은 제품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엄격한 사육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패커 직영 농장에서 생산하거나 대체적 거래인 생산자 계약생산이 필수적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10 쇠고기 패커의 도축 마리수와 outout value 추이



자료 : USDA.

4. 육류 패커에 대한 규제

(1) 도축장과 양돈장에 관한 조례(Packer and Stockyards Act)

육류 패커의 과점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격 교섭력이 대기업 육류 패커에게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전반에 걸쳐 육류 패커를 중심으로 기업의 과점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자 사이에 부당하고 불리한 가축 거래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여 거래 제한 행위 금지나 차별적인 가격 설정 금지를 규정한 반독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육류 패커의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1921년 「Packer and Stockyards Act」가 제정되어 USDA산하 곡물검역 및 가축거래 관리국(GIPSA; Grain Inspection, Packers & Stockyards Administration)이 소관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평한 가축 거래 등의 금지 이외에 신속한 거래대금 지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육류 패커의 과점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격 교섭력이 대기업 육류 패커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육류 packer는 거래 가격을 USDA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보고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육류 패커는 거래 가격을 USDA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가축 시장거래 감소에 의해 지표가격 형성이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육류 패커의 우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축산물가격 의무 보고법(Livestock Price Mandatory Reporting Act)’에 의해 2001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동 보고 의무는 2006년 10월로 연장되었으며, 다시 2010년 9월에 ‘가격 의무 보고법(Mandatory Price Reporting Act)’ 제정으로 5년간 연장되었다.

또한 기한 연장과 함께 생체로는 소·돼지·어린 양의 거래가격, 육류로는 쇠고기·양고기 도매가격을 새로운 보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용을 포함한 돼지고기를 추가하였다.

이번 법안에 대해 돼지고기 생산자로 구성된 전국 비육돈생산자 협의회(NPPC)는 “돼지고기를 새롭게 보고의무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환영하고 있다.

5. 새로운 거래 규칙 동향

(1) GIPSA의 새로운 거래 규칙 제안

GIPSA들은 유례없이 강한 상거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육류산업 관계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USDA/GIPSA는 2010년 6월 22일에 전술한 2008년 농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축 및 가금류 거래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Packer and Stockyards Act」 시행 규칙 개정안(이하, GIPSA를)을 공표하였다. USDA는 동 규칙 개정으로 불공정한 가축 및 가금류 거래를 시정하여 생산자 이익 확보를 도모하였지만 GIPSA들은 ‘1921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례없이 강한 상거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육류산업 관계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GIPSA들의 주된 내용>

GIPSA들은 대규모 생산자에게 부당한 프리미엄이 지불되는 거래를 부당한 우위성이라고 정의하고, 생산자가 불공정 거래를 해소할 때 필요하였던 시장경쟁 저해 등의 증명을 의무화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육류 패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자의적인 가격조작을 금지하기 위해 육류 패커간 가축 거래와 가격정보 전달 금지, 육류 패커의 전속 바이어 이외의 패커에게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 구입 금지 등의 안이 제시되고 있다. 가금류 거래 시 생산자에게 병아리 공급을 중지할 경우 이를 9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안전도 제시되고 있다.

공표에 담당한 톰 빌색(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가축이나 가금류 거래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번 규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방위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전의 규칙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장 환경을 구축하여 생산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며, 지금까지의 거래 환경이 불공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2) 관련 단계 반응

GIPSA룰에 대한 관계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소규모 생산자로 구성된 단체는 육류 패커 주도의 불공정 상거래를 시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육류 패커 단체나 패커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는 패커와 생산자가 만들어 온 소비자 요구에 알맞은 육류 생산을 저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였다. GIPSA룰에 대한 여론 수렴은 당초 2010년 8월 23일에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단체의 요청으로 동년 11월 22일까지 연장되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GIPSA룰에 대한 관계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주요 축산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1) 찬성파

< 미국 목장주·육용우생산자 행동 법률 기금(R-CALF USA)>

이번 GIPSA룰은 쇠고기 산업이 「Packer and Stockyards Act」 준수 조건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약속함과 동시에 쇠고기 패커의 위법한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증이 없어도 육류 패커의 불공정 거래를 제소할 수 있게 되었고, ② 육류 패커가 특정 비육업자에게 우호적인 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쇠고기 업계의 수직통합을 막는데 효과적인 조치이다. ③ 육류 패커의 계약 샘플을 GIPSA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 패커가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밝혀짐에 따라 생산자와 패커간의 매칭이 원활히 진행되고, ④ 육류 패커는 패커간 가축 거래로 비육우가격을 인하시키고자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가격 인하 압력 방지 등 이번 GIPSA룰은 모든 육용우생산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2) 반대파

<미국 육류 협회(AMI)>

불공정 거래에 관한 소송은 그동안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증이 필요하였다. 이번 GIPSA룰은 그 해석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전 예약 출하, 판매 계약 등 현물거래 이외의 대체적 거래는 고품질 육류 생산의 관점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다. GIPSA룰이 성립하게 되면 육류 패커는 소송이 두려워 위협이

높은 대체적 거래비중을 감소시킴에 따라, 생산자, 패커, 소비자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또한 대체적 거래를 통하여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쇠고기나 월령 증명 쇠고기 등을 수출해 왔지만, GIPSA룰이 성립되면 이러한 쇠고기 생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GIPSA룰의 철회를 요구한다.

<전국 육용우생산자·쇠고기 협회(NCBA)>

GIPSA는 2008년 농업법에 따라 규칙 작성을 위한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반독점법에 근거한 재판소의 해석을 뒤집을 권한은 없다. 또한 생산자는 사전 예약 출하, 생산 계약 등 실물 거래 이외의 대체적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축을 개량하였으며, 그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러한 거래를 엄격하게 다루게 되면 육류 패커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게 되어 생산자의 실수령액이 감소하고 소비자도 고품질 축산물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거래의 기록 보관 유지는 육류 패커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GIPSA에 계약서 샘플을 제출하는 것은 생산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으로 GIPSA룰에 대해 ① 불공정 거래에 관한 소송 시 경쟁 저해의 입증 불필요, ② 우대적인 거래의 기준 설정, ③ 육류 패커간 가축 거래를 금지, ④ 계약의 기록 보관 유지 의무, 계약서 샘플 공표 등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다.

<전국 양돈생산자 협의회(NPPC)>

GIPSA룰은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를 「Packer and Stockyards Act」상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는 개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불공정한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사례는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게다가 2008년 농업법 논의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부정되기도 하였다. 이번 GIPSA룰은 2008년 농업법을 초월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육류 패커간 가격정보 전달을 금지하기 위해 패커간 가축 구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패커는 이미 패커간 가축 매매를 GIPSA에 매일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매일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 패커간 가축 매매를 금지할 타당성은 없다.

<기타>

그 외의 반대 의견으로서 육류 패커의 가공 처리 시설과 생산 농장이 떨어져 있을 경우, 비용을 들여 가공 처리 시설까지 운반하기보다 인근 다른 패커에게 가축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GIPSA룰이 성립되면 그러한 거래가 금지되어 생산 농장

으로부터 비용을 들여 처리 시설까지 구축을 운반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이번 룰에 대해서 ‘업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다.

(3) GIPSA룰의 경제 분석

GIPSA는 GIPSA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규칙의 평가 수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Executive Order 12866(이하, 「EO」)’에 근거해 각 조항마다 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향 평가액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EO」는 연간 1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칙 등(Significant regulatory action)을 작성할 때 포괄적 경제 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GIPSA는 GIPSA룰을 주요 규제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지 포괄적 영향평가가 아닌 각 조항의 영향평가를 제시하였다.

반대와 입장에서는 GIPSA룰이 주요 규제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번 GIPSA의 경제 분석은 부적절하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제 분석을 GIPSA에 제출함과 동시에, 시장 전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분석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하원 의원 115명은 2010년 10월 1일 이들 단체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톰 빌색(Tom Vilsack) 농무장관에게 GIPSA룰의 경제 분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장관은 "GIPSA룰은 이미 경제 분석을 완료하고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안한 것으로, 앞으로는 제출된 단체의 성명을 음미해, 동 룰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회답하였다. 그 후 조한즈 의원(공화당, 네브래스카)외 12명의 상원의원이 12월 21일에 톰 빌색(Tom Vilsack) 농무장관 앞으로 GIPSA룰의 포괄적 경제 분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GIPSA룰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관련 단체가 성명과 더불어 제출한 경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미국 육류 협회의 경제 분석>

대체적 거래의 감소에 따른 육류 패커의 효율성 저하가 소매가격에 전가된 결과, 육류 소매가격은 3.33% 상승하고 육류 수요는 1.68% 하락하였다. 산업 전반으로는 고용 감소가 10만 4,112명으로 GDP 손실이 약 140억 달러, 세수입 저하가 13.6억 달러로 계산되었다.

| | 팩커 | 생산자 | 지역사회 | 합계 |
|-------------------|--------|--------|--------|---------|
| 고용감소인원 | 30,518 | 43,443 | 30,151 | 104,112 |
| 연간 GDP 손실액(백만 달러) | 3,838 | 6,351 | 3,796 | 13,985 |

GIPSA룰에 대한 반대파는 GIPSA의 경제 분석은 부적절하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제분석을 제출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경제분석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전국 육용우생산자·쇠고기 협회, 전국 양돈생산자 협의회의 경제 분석>

GIPSA룰이 실시된다면 쇠고기 산업에서 연간 62백만 달러, 돼지고기 산업에서 74백만 달러, 닭고기 산업에서 33백만 달러의 직접 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소송을 두려워하는 육류 패커가 대체적 거래를 감소시킴에 따라 지금까지 누렸던 프리미엄 감소와 효율성 저하 등에 의해 쇠고기 산업이 연간 780백만 달러, 돼지고기 산업이 259백만 달러, 닭고기 산업이 302백만 달러의 간접 손실액이 발생된다. 특히 대체적 거래를 통한 프리미엄의 교환이 많은 쇠고기 산업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액을 감소시켜 연간 GDP 손실액이 15.6억 달러, 연간 3.59억 달러의 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바이어가 복수의 패커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축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지방 시장은 폐업할 수밖에 없어 지역의 소규모 육우 농가 등은 먼 시장까지 가축을 운송하여야만 한다.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GIPSA룰의 실행으로 소매가격은 3.33% 상승한다고 예측하고 있어 많은 양의 육류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는 할 수 없다.

GIPSA룰은 소규모 생산자가 찬성하고 육류 패커가 반대하듯이 생산자에게 유리하고 육류 패커에게는 불리한 룰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생산자의 실 수령액 증가 = 육류 패커의 지출 증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육류 패커의 비용 증가는 소매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미국산 육류의 현지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GIPSA룰이 현실화되면 육류 패커는 프리미엄 감소에 의한 판매 수입 감소, 현물거래 증가에 의한 가축 구입 가격 상승 및 시설 가동률 저하 등에 의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육류 협회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상정할 경우 소매가격이 3.33% 상승한다고 예측하고 있어 많은 양의 육류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결코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으로 인해 30개월령 미만의 조건이 붙어 있다. 이를 위해 30개월령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월령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최근 월령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월령 증명은 육류 패커가 생산 농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계약으로 이번 GIPSA룰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거래를 통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육류 패커에 따라 프리미엄의 격차가 있지만 비육우 100파운드 당 2~3 달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GIPSA룰이 실행되면 각 패커의 월령 증명과 관련되는 계약서 샘플이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 계약서의 어느 부분이 공표되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패커와 생산자 관계에 어떻게든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5) 양우의 전개

톰 빌색(Tom Vilsack) 농무 장관은 지금까지 GIPSA룰의 재검토 및 철회 요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관은 작년 12월 13일 GIPSA룰에 관한 브리핑 중, USDA는 한층 강화된 비용 분석을 실시한 후 GIPSA룰을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주장하였다.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브리핑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최종적인 규칙은 보다 악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농무장관의 한층 부드러워진 자세는 공화당이 작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대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1월부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파가 되어 대부분의 위원장을 공화당 의원이 차지하였으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의석을 추가하는 등 공화당의 파워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농업 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루카스 의원(오클라호마)은 환경보호청 환경 규제 관련 시책과 GIPSA룰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루카스 의원은 작년 12월 NCBA와의 모임에서 “GIPSA룰은 축산업에 피멸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번 GIPSA룰은 의회의 의도와 과거의 판례에 분명하게 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GIPSA룰에는 6만 700개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GIPSA는 팀을 편성해 검토하고 있으며, 그 처리기한은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톰 빌색(Tom Vilsack) 농무장관은 현시점에서 GIPSA룰의 최종 결정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① 민원을 체크해 추가해야 할 사항의 유무 확인 ② 한층 강화된 비용 분석 실시 ③ 경제 분석의 결과 및 민원을 기본으로 룰을 재검토 ④ 예산 관리 사무국의 평가 ⑤ 최종 룰을 공표한다고 설명하였다.

6. 요약 및 결론

육류 패커와 생산자의 가축 거래는 시장의 수급 상황에 의해 교섭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육류 패커가 유리하고 생산자가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육류 패커가 규모화되는 가운데 불만을 가지는 생산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생산자의 고조된 불만이 이번 GIPSA룰과 같은 혁신적인 육류 패커 규제안으로 연결된 것으로 추측된다. GIPSA룰이 실현되면 생산자는 단기적인 수익증가를 예상할 수 있지만, 패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다면 최종적으로 생산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육류 산업에서 패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패커의 효율성, 마케팅 능력은 미국 육류 산업의 특징 중 하나로 국제시장에서 큰 강점으로 작

빌색 농무장관은 GIPSA룰의 재검토 및 철회 요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GIPSA룰을 계기로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육류 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균형 잡힌 룰로 재검토될 것인지 USDA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용하고 있다. 앞으로 그 강점이 약화되면 국제 경쟁에서 미국 육류 산업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발전해 온 미국 육류 산업은 이번 GIPSA를 계기로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육류 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균형 잡힌 룰로 재검토될 것인지 USDA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참고 자료

GIPSA, January 2007, Livestock and Meat Marketing Study

CRS Report, January 2009, Livestock Marketing and Competition Issues

GIPSA, July 2010, Packers and Stockyards Act, 1921

畜産の情報 2011年 3月号, 米國食肉パツカーの最近の情勢~寡占化の推移と家畜取引に關する規則案の影響~

호주 가축시장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육우 거래 방법*

허 덕

1. 머리말

최근 호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가축거래의 방법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의 넓은 국토에 산재되어 있는 육우 생산농가로부터 모아진 소가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후 도축 및 가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중 가축거래는 수송거리(시간), 운송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경매(Auction, 가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호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가축거래의 방법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호주의 가축 거래

호주의 가축거래는 경매방식에 의해 현물거래와 인터넷 경매를 통한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호주에서의 가축 거래는 경매방식에 의해 현물거래를 실시하는 유형과 인터넷 경매를 통해 거래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매 방식 거래를 실시하는 가축 시장은 호주에 117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시장은 대부분이 동부에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즈랜드 등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가축시장은 모두 주의 법률과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지방 자치단체, 주식회사 또는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는 가축시장의 거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본 내용은 일본 농축산진흥기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표 1 주별 가축시장 수

| 도 시 | 시장 수 |
|-------------|------|
| 뉴사우스웨일즈 | 61 |
| 빅토리아 | 23 |
| 퀸즐랜드 | 20 |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 5 |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 5 |
| 노던 테러토리 | 1 |
| 타즈매니아 | 2 |

자료 : Australian Livestock Markets Association.

3. 오주의 가축 거래 현황

(1) 가축 시장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호주 최대의 도시인 시드니 등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육우생산이 번성하여 퀸즐랜드주에 버금가는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주 내의 가축 시장은 61개소로 호주 전체 가축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카시노(CASINO)시의 가축시장을 사례로 들어 보자. 카시노시는 시드니에서 육로로 10시간, 퀸즐랜드주 최대의 도시 브리스번에서 남쪽으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카시노시의 시장 개장일은 연간 35일, 연간 가축(육우) 거래두수는 2만 6천 마리로 호주 가축시장의 평균적인 규모이다. 가축시장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140개 구획의 크기에 따라 10마리 정도의 소가 정리되어 경매인과 바이어가 차례로 돌아가면서 경매를 실시한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시드니를 중심으로 육우생산이 번성하며, 가축시장은 61개소로 전체 가축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카시노시 가축시장의 경매 모습과 위치도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가축 전염병 발생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가축식별제도(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ystem : NLIS)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되는 모든 소의 귀에 마이크로칩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생산에서 도축장까지의 이동 이력(履歷)이나 병력(病歷) 등이 전산화로 관리되고 있다. 카시노시 가축시장에서도 거래 후 NLIS 개체번호마다 중량, 경매물 외에 구입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인터넷 경매의 경우 소 구입자가 거래에 대해 등록할 의무를 가진다.

카시노시 가축시장에서는 번식농가에서 시장까지 트럭으로 육우를 반입하여 거래를 마친 후 비육농가로 수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주는 국토가 넓어 각지에 산재하는 농가에서 시장으로 수송하는 시간도 길다. 이 시장에서도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역으로부터 육우를 모아 반입하는 데 3~4시간이 소요되며, 거래를 마친 후에도 인근 주인 빅토리아주 및 퀸즈랜드주 농가에 10시간 정도 수송되는 것도 많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가축 수송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송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송시의 가축 스트레스가 문제시¹⁾ 되고 있다.

(2) 육우 번식농가

방목을 주로 하는 북부에서는 번식농가에서 비육까지의 일관경영(이른바 자연방목)을 실시하는 농가가 많지만, 앵거스나 헤어포드종 등 육질을 중시하는 동부에서는 번식농가에서 가축시장을 경유하여 비육업자에게 출하되는 경우가 많다.

육우 농가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근교의 가축 시장에 정기적으로 육우를 출하하였지만, 최근 유가상승과 수송거리 등으로 운송비가 가축 판매수입을 초과한 적이 많아, 2년 전부터 운송비 절감을 위해 인터넷 경매로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경매는 운송비용과 더불어 시장까지의 수송시간, 소음, 먼지 등 동물복지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농가가 실제로 이용하는 인터넷 경매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운영회사 : AUCTIONSPLUS PTY LTD(소나 양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최근 유가상승과 수송거리 등으로 운송비가 가축판매수입을 초과하여 2년 전부터 인터넷 경매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1) 호주의 '동물복지와 관련된 업무규칙 중 육우의 수송' 부분은 육우의 수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이다. 이 안내서의 목적은 육우 취급 시 고려사항과 수송 중 스트레스와 상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있다. 운송업자(truck care) 취급요령(truck care)은 호주 식육축산업계가 개발한 가축수송에 관한 자주적 품질보증 프로그램으로, 동물복지, 육질, 식육 안전 최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운송업자 취급요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선적 전에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운송자는 생산자에게, 선적전 급이, 도착 전에 가축을 침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적시설에서는 조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트럭의 짐받이에는 구멍이나 돌기등이 없게 충분히 점검하며, 전기식 자극봉 사용은 금지하고, 운전기사는 가축취급 훈련 수행과 급발진이나 급정차를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운전하고, 가축이 트럭 내에 체재하는 시간을 최대한 억제하며, 수송 중 가축의 상태를 체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설립)

-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 필요함.
- 우리나라의 야후나 11번가에서 행하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생산자)가 희망하는 가격을 입력하여 최고가를 입금시킨 구매자(바이어)가 낙찰하는 방식
- 생산자는 출품 시에 가축의 품종(앵거스 중 등), 월령, 가축의 이표 번호를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가축은 군(群)단위로 거래되며, 운송비는 구매자 부담, 생산 농가는 두수, 희망 가격을 입력하고 낙찰을 기다림. 유리한 판매를 위해 가축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구강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음.

이올러, AuctionsPlus livestock의 판매 수수료(카탈로그 게재료·서류 작성료 등 포함)는 생산자가 부담하며, 수수료는 <표 2>와 같다.

그림 2 AuctionsPlus livestock의 거래 모습

피란 글자는 현재 경매(옥션) 중입찰 가능, 검은 글자는 거래가 확정된 상태를 표시

사진은 생산자가 복수 게재 (외면은 경매를 희망하는 양의 사진)

우군 전체를 잃수 있는 사진이 게재 되어 있음.

표 2 AuctionsPlus livestock의 판매 수수료

| 소 | 양 | 양고기용 양 | 종우, 양 등 |
|-----------|---|------------|--|
| 5.90 호주달러 | 0.59호주 센트 (판매 또는 예약 금액이 5.0호주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0.10 호주 센트) | 3.50 호주 달러 | 종우, 초임우 등 12.0 호주 달러 종양 등 7.0 호주달러 |

주: 1두당 판매 또는 예약과 관련된 거래료. 이 금액에 GST(소비세)가 10%부가됨.
 자료: AuctionsPlus livestock.

2011년 4월 8일에 실시된 인터넷 경매의 결과에 따르면, 이날 경매 거래가격은 마리 당 650~1,665 호주 달러이며, 거래 단위인 1로트에는 10~35두, 마리당 평균 중량은 227.7~650kg이다. 이를 환산하면 마리 당 거래 가격은 747,500~1,914,750 원(1호주 달러=1,150원)으로 가격 차이는 평균 생체중과 품종, 월령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AuctionsPlus livestock).

현물시장과 인터넷 경매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현물시장과 인터넷 경매와의 관계

| | 호주 | | 일본 |
|----------|-----------------|------------|-----------------------------------|
| | 가축현물거래 | 가축인터넷경매거래 | 가축시장 |
| 거래방법 | 일정 영역에서 단일 개최 | 호주 전역에서 개최 | 일정 영역에서 단일 개최 |
| 가축의 건강확인 | 현물 가축을 거래자가 확인 | 사진에 의한 판단 | 수의사가 상주(법률에 따라 의무)하여 거래자 및 시장이 확인 |
| 운송비용 | 출품자, 구매자가 각각 부담 | 구매자가 부담 | 출품자, 구매자가 각각 부담 |

자료: AuctionsPlus livestock.

4. 맺음말

호주에서의 인터넷 경매 보급의 최대 요인은 동물복지 관점과 넓은 국토를 배경으로 한 운송비용이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축의 상당수는 비육농가에서 개체별 혈통을 그다지 중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群) 경매가 일반적이어서 육유의 인터넷 경매가 활발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거래관행도 한 몫하였다.

참고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

콜롬비아의 농축산업 현황*

정서연

1. 일반연망

콜롬비아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적 특징으로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로써 서쪽은 태평양, 북쪽은 대서양과 접하고 있다. 국토 면적은 1,141,748km²로 우리 국토 면적의 약 11배이며, 국경은 베네수엘라(2,218km), 브라질(1,645km), 페루(1,626km), 에콰도르(586km) 및 파나마(266km)와 접해 있다. 또한 해안 경계선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및 아이티와 접하고 있다. 인구는 남미에서 3번째로 많은 4,566만 명(2009년 기준)으로, 이 중 25%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적도 선상에 위치한 콜롬비아는 무역풍과 습도, 해발 고도에 따라 기후가 결정되며, 두 번의 우기(4-6월과 8-11월)와 건기가 있다. 카리브, 태평양, 아마존 및 오리노코 강과 연결된 대규모의 강과 협곡은 에너지와 용수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는 댐 건설에 유리하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와 지형적 특징은 콜롬비아의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카리브와 접한 내륙지역의 저지대, 산간 계곡 및 오리노코 평원은 바나나, 사탕수수, 쌀, 면화, 대두 및 수수 등의 대농장들과 육류 및 낙농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의 목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콜롬비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상품인 커피는 해발 1,000-1,600m의 산비탈에서 재배되고, 화훼류는 고지대, 감자, 두류, 곡물

* 본 내용은 콜롬비아 농업농촌발전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 MADR)에서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서연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y@krei.re.kr, 02-3299-4327).

및 채소류는 2,000-3,300m에서 재배된다.

콜롬비아는 풍부한 강수량에 비해 낮은 기화율로 수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에서 3 번째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의 80%는 수력발전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연간 45,402m³로 북미, 유럽 및 아시아와 같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또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향후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콜롬비아 지도



콜롬비아 통계청(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 DANE)에 따르면 2010년 GDP 성장률은 4.3%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09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것은 광/채석 부문(11.1%)이며, 상업외식호텔(6%), 제조업(4.9%) 순이다.

2010년 콜롬비아의 수출 규모는 2009년 대비 21.2% 증가한 398억 1,950만 달러였다. 이러한 수출 증가의 이유는 석유 및 관련 제품의 역할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 수출 활성화, 세계 경기 회복과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와의 무역 관계 정상화 등이다. 2010년 수입은 전년도 대비 23.7% 증가한 406억 8,270만 달러 수준으로, 수입이 증가한 상품으로는 옥수수, 두류, 대두분, 경유 및 디젤, 자동차 등이다.

표 1 2009-2010년 콜롬비아 주요 경제 지표

| | 2009 | 2010 |
|---------------|-------|-------|
| GDP (억 달러) | 2,286 | 2,316 |
| 1인당 GDP (달러) | 4,662 | 5,051 |
| 농업 GDP (억 달러) | 63.2 | 60.2 |
| 실질 성장률 (%) | 0.4 | 4.3 |
| 물가 상승률 (%) | 2.09 | 2.54 |
| 수출 (억 달러) | 328.5 | 398.2 |
| 수입 (억 달러) | 329.0 | 385.5 |
| 실업률 (%) | 12 | 11.8 |
| 농촌 실업률 (%) | 7.9 | 8.5 |

주: 농업 GDP는 농축산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을 포함.
 자료: KOTRA, DANE.

대외개방에 적극적인 콜롬비아는 이미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에콰도르를 들 수 있다. 미 수출은 2009년 기준 약 128억 달러(39.2%)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40억 달러로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2개 국가가 전체 수출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항공기, 디젤유, 승용차, 옥수수, 헬리콥터 등이 있다(KOTRA).

대외개방에 적극적인 콜롬비아는 이미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이다. 미국과의 FTA는 2006년 체결되었지만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의 경우는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표 2 콜롬비아 FTA 체결 현황

| | 국가/지역 |
|----|---|
| 발효 | CAN(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MERCOSUR(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멕시코, 중미 3개국(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 체결 | 미국,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EU |
| 협상 | 한국, 파나마 |
| 예정 | 일본,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

주: CAN-안데스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자료: PROEXPORT.

2. 농업연망

콜롬비아의 농축산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이었다. 그러나 그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농업 부문 GDP는 1965-1970년의 연평균 28%를 차지하였지만 2000-2005년에는 13%로 하락하였다. 농축산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은 농촌에서 고용 창출에 중요한 동력으로 농촌 지역에서 생겨나는 일자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 고용 435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294만 개의 일자리는 농업, 축산업, 수렵 및 어업에서 발생된다. 2010년 농촌 고용률은 2009년 대비 0.6% 증가한 8.5%를 기록하였다.

농업생산에서 작물의 비중은 1960년대 70%에서 2000-04년 56%까지 하락한 반면, 축산물의 비중은 동기간 44%로 상승했다. 작물 가운데 커피는 농업 생산의 12%를 차지하였다. 농업 부문 수출은 1980년대 중반까지 주요 외화소득원으로 전체 재화서비스 수출의 54%를 차지하였지만 점차 하락하여 2000-2005년에는 20%를 차지하였다. 1987년까지 커피는 전체 수출의 44%를 차지했으나 2000-05년에는 평균 7%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농축산업 및 농업 관련 산업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커피 이외의 농산품 수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다년생 작물인 플라타노, 사탕수수 및 화훼류를 들 수 있다. 수출 소득을 살펴보면 화훼류는 25%, 과일(주로 바나나)은 15%, 설탕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FAO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천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영농이 가능한 높은 농지 확대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국토의 3%이며, 48.7%는 천연림 및 집단림, 34%는 축산 활동(대부분이 소를 위한 대규모 목장)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콜롬비아의 경작지는 2006년 대비 41만 4,219ha(9.2%)가 증가한 490만 5,456ha에 달한다. 이 중 162만 7,310ha는 단년생 작물에 해당하고, 292만 5,942ha는 다년생 작물, 나머지 35만 2,204ha는 인공조림에 이용되었다. 경작지의 33.2%는 쌀(25.3%), 두류(11.4%) 및 유전자변형 옥수수(15.5%) 등의 단년생 작물 생산에 이용되고, 59.6%는 카카오(13.8%), 과일(9%), 야자유(21.1%), 플라타노(10%), 유카(32.4%), 커피로 구성된 다년생 작물이 차지한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다음의 최대의 쇠고기 생산 국가이다. 콜롬비아는 4,000만 ha의 목초지가 있으며, 이 중에 60% 이상은 켄부(Cebú 혹은 Zebu)의 성장에 적절한 열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켄부의 종 가운데 열대기후에서 육류 생산에 적합한 콜롬비아 브라만(Brahman)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품종 중에 하나이다. 게다가 체계적인 유전자 선별과 개량 작업으로 근육이 발달하고 이상 현상에도 잘 적응하는 종을 개발하여 축산 사업에서

농업 부문 GDP는 1965~1970년에 28% 수준이었지만 2000~2005년에는 13%로 하락하였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다음의 최대 쇠고기 생산 국가이다.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로 콜롬비아세부사육자협회(Asociación Colombiano de Criadores de Ganado Cebú)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브라만 종을 등록하였고, 2006년에만 52,000두의 순종 인증을 신청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콜롬비아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구제역근절계획(Plan Nacional de Erradicación de Fiebre Aftosa)을 실시하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현재 콜롬비아에서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으로 초코(Choco) 주의 북서쪽 지역과 Archipiélago de San Andrés 및 Providencia(2008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백신 접종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자체 위생 검역기관에 따르면, 2007년까지 1,062개 지구가 블루셀라 청정지역으로 인증 받았으며, 233개 지구의 29,287두가 결핵 청정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비교해 1/10도 안 되는 약 18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쇠고기와 비교해 1/10도 안 되는 약 18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한국의 18% 수준이다. 또한 FAO(2007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국인의 소비량(31.14kg)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4.21kg)이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생산량과 소비량으로 인해 생산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부족한 부분은 수입을 하고 수출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민관 협력에 의한 장기적인 생산전환프로그램(Programa de Transformación Productiva)을 통해 8개 산업 부문과 4개의 농업 관련 산업 부문(쇠고기, 초콜릿 및 사탕류, 식물성 유지류, 새우양식)을 세계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전환시키려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농축산물 생산연망

농산물 생산

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으로 전 국토의 100만 ha 이상의 농축산업이 영향을 받았다.

2009년 말 콜롬비아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의 영향에서 회복되었지만, 2010년 7월부터는 다시 라니냐 현상을 겪었다. 홍수와 다습한 기후는 야자와 커피의 경우 녹병으로 인한 식물위생의 문제를 양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천 605만 톤의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이것은 2006년에 비해 6.7% 증가한 것이다. 2011년까지 이어진 라니냐 현상으로 2월에는 전 국토의 100만 ha 이상의 농축산업이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 80만 287 ha는 침수가 되었으며, 20만 ha는 지나치게 습한 날씨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품목들로는 쌀, 플라타노, 유카, 커피, 옥수수, 기름야자와 면화 등이다.

커피생산자연맹(Federación Nacional de Cafeteros)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커피

생산 하락의 원인은 엘니뇨 현상과 품종개량 및 낮은 비옥화 때문이며, 2/4분기 생산량은 2009년 동기간 대비 20.1% 증가하여 커피 생산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2월은 폭우로 인해 녹병이 발생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경작지의 65%가 이러한 전염병이 걸리기 쉬운 품종이기 때문이다. 2011년 재배면적은 2010년과 동일한 914,431ha이며, 기후 조건이 양호하다면 2010년 생산량 보다 9.8% 증가한 9,800만 자루(60kg)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커피 생산(60kg) 현황

단위: 천 자루

| | 2009 | 2010 | 2011 | '10-'11 변화량 |
|-------|-----------|-----------|-----------|--------------|
| 재배면적 | 887,661ha | 882,483ha | 914,430ha | 31,947(3.6%) |
| 생산 | 7,812 | 8,923 | 9,800 | 877(9.8%) |
| 국내 소비 | 1,683 | 1,348 | 1,368 | 20(1.5%) |
| 수출 | 7,894 | 7,824 | 9,016 | 1,192(15.2%) |
| 수입 | 771 | 624 | 562 | -62(-10%) |

주: 2011년은 전망치.
자료: MADR.

2008년 쌀 가격 상승으로 2009년 콜롬비아의 쌀 생산자들은 쌀 재배면적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2010년 재배면적은 52만 9,989ha에서 약 12% 감소하였다. 콜롬비아 내에서 쌀의 재배는 우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2011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46만 8,534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화의 경우는 2009년 홍수로 인해 재배면적 중 3,025ha가 피해를 입었다. 그 중에 50%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나머지는 회복이 가능하였지만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다. 2011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41,587ha으로 29,128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나나는 재배면적 중 1,500ha 이상이 우기의 영향을 받았다.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229ha(0.5%)정도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량의 1만 8,905톤(1.1%)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사탕수수 재배는 기후의 영향을 받아 설탕제분 생산이 전년 대비 14.2%가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2월 우기는 사탕수수의 수확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21만 8,311ha의 재배면적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7.8% 증가한 258만 4,177톤으로 전망된다.

2011년 쇠고기 생산은 90만 5,142톤이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19만 4,024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

콜롬비아는 세계 주요 축산업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소를 사육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2,36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에 53%는 쇠고기 생산, 5%는 우유 생산, 45%는 두 가지 목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는 총 911,000톤(도체중 기준)이 생산되었다. 특히, 2001-2008년 동안 쇠고기 생산은 멕시코(16%)와 칠레(15%)보다 많은 18.4%가 증가했다.

2010년은 열악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소 11만 5,322마리가 폐사하여 쇠고기 생산이 줄었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주는 볼리바(Bolivar), 수크레(Sucre), 아틀란티코(Atlantico), 코르도바(Cordoba), 안티오키아(Antioquia) 등이었다. 2011년 쇠고기 생산은 90만 5,142톤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닭고기의 경우 라니냐 현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30만 마리의 산란계와 비육계가 폐사하였다. 특히, 국내 생산의 28%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닭고기 생산지인 산탄데르(Santander)주는 라니냐 현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 중에 하나이다. 닭과 계란을 이동시키고 항구에서 사육지까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운송의 어려움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닭고기 생산량은 개체 수의 증가로 109만 4,727톤으로 기대된다.

2009년 돼지고기 생산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료 가격 상승과 피해 지역을 우회하기 위한 화물운송비 증가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1년 생산량은 2010년 18만 5,379톤에서 4.7% 증가한 19만 4,024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수요 역시 4.2% 증가한 21만 6,024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농축산물 생산 현황

단위: 톤

| 품 목 | 2008 | 2009 | 2010 | 2011 | 평균 |
|---------------|------------|------------|------------|------------|------------|
| 사탕수수 | 19,207,728 | 23,588,646 | 21,000,667 | 21,436,730 | 21,308,443 |
| 기름야자 | 3,726,174 | 3,831,905 | 3,797,759 | 4,203,531 | 3,889,842 |
| 과일 | 3,088,712 | 3,143,602 | 3,033,131 | 3,180,021 | 3,111,367 |
| 쌀 | 2,877,313 | 2,951,812 | 2,412,218 | 2,513,679 | 2,688,756 |
| 플라타노 | 2,633,248 | 2,616,717 | 2,668,498 | 2,724,580 | 2,660,761 |
| 설탕 | 2,036,134 | 2,598,135 | 2,129,117 | 2,193,827 | 2,239,303 |
| 감자 | 2,372,862 | 2,272,772 | 2,121,879 | 2,188,232 | 2,238,936 |
| 유카 | 1,984,374 | 1,984,427 | 2,081,378 | 2,122,310 | 2,043,122 |
| 채소 | 1,778,771 | 1,807,448 | 1,738,662 | 1,826,300 | 1,787,795 |
| 수출용 바나나 | 1,831,064 | 1,767,674 | 1,673,089 | 1,691,994 | 1,740,955 |
| 옥수수 | 1,679,052 | 1,586,096 | 1,536,288 | 1,637,635 | 1,609,768 |
| 파넬라 설탕 | 1,220,749 | 1,223,579 | 1,153,787 | 1,182,965 | 1,195,270 |
| 닭고기 | 1,010,659 | 1,019,864 | 1,066,957 | 1,085,606 | 1,045,772 |
| 쇠고기 | 917,368 | 936,302 | 894,169 | 905,142 | 913,245 |
| 우유 | 928,935 | 929,557 | 776,248 | 785,774 | 855,129 |
| 야자유원액 | 777,509 | 804,700 | 774,743 | 864,118 | 805,268 |
| 계란 | 542,299 | 580,904 | 584,984 | 597,641 | 576,457 |
| 커피 | 688,680 | 468,000 | 514,128 | 574,217 | 561,256 |
| 마 | 314,173 | 379,927 | 395,374 | 370,537 | 365,003 |
| 연료용 알코올(사탕수수) | 298,323 | 357,677 | 359,568 | 408,671 | 356,060 |
| 유카(산업용) | 293,290 | 299,400 | 282,150 | 297,767 | 293,152 |
| 화훼 | 258,182 | 258,827 | 276,605 | 282,277 | 268,973 |
| 돼지고기 | 169,821 | 170,050 | 185,379 | 194,024 | 179,819 |
| 두류 | 145,590 | 149,122 | 148,612 | 155,904 | 149,807 |
| 수출용 플라타노 | 125,270 | 139,046 | 146,553 | 150,962 | 140,458 |
| 코코야자 | 112,169 | 102,921 | 109,140 | 109,354 | 108,396 |
| 수수 | 134,117 | 96,570 | 98,964 | 99,222 | 107,218 |
| 면화 | 90,510 | 78,434 | 66,131 | 70,283 | 76,340 |
| 대두 | 56,200 | 59,400 | 54,207 | 75,592 | 61,350 |
| 아라카차 | 77,047 | 49,567 | 52,797 | 59,207 | 59,655 |
| 카카오 | 41,351 | 44,740 | 39,534 | 44,241 | 42,467 |

주: 2011년은 전망치.
 자료: MADR.

4. 농축산물 수출입 현황

2010년 농축산업 및 농업관련 산업 수출액은 60억 2,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7% 하락하였다.

콜롬비아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9억 1,59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50% 이상 하락한 것이다.

2010년 농축산업 및 농업 관련 산업 수출액은 60억 2,10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4.7% 하락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바나나, 플라타노, 식품첨가물, 야자유와 특히 쇠고기(98.8%)의 수출 하락 폭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피, 화훼류, 설탕의 수출 증가로 일부는 상쇄되었다. 2010년 농축산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수출은 미국(23억 1000만 달러), EU(13, 6170만 달러),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4억 9640만 달러), 일본(4억 4520만 달러)이 전체의 76.6%를 차지한다. 수입은 2009년 대비 15.5%가 상승한 56억 471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옥수수와 비료의 수입이 각각 25% 이상 증가하였지만, 쌀의 수입 감소(9.2.2%)가 두드러졌다.

표 5 2009-2010년 농축산업 및 농업 관련 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만 달러

| 단위 | 2009 | | 2010 | | 변화율 | |
|---------|------------|-----------|------------|-----------|--------|--------|
|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 수출(FOB) | 4,895,426 | 6,317,159 | 4,174,265 | 6,020,957 | -14.7% | -4.7% |
| - 커피 | 454,755 | 1,542,697 | 408,959 | 1,883,557 | -10.1% | 22.1% |
| - 커피 외 | 4,440,672 | 4,774,461 | 3,765,306 | 4,137,400 | -15.2% | -13.3% |
| 수입(CIF) | 9,472,971 | 4,889,380 | 10,469,394 | 5,647,394 | 10.5% | 15.5% |
| 무역수지 | -4,577,036 | 1,857,441 | -6,294,975 | 915,887 | 37.5% | -50.7% |

자료: DANE.

커피의 경우 시장의 확대로 2010년 대비 15.2% 상승한 국내 생산의 92%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커피의 경우 금년도 수출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시장 확대로 2010년 대비 15.2% 상승한 국내 생산의 92%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커피(수세식 아라비카)는 높은 위상과 낮은 상품 대체율로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유지됨으로써 기후의 영향과 폐소 평가절상 심화로 인한 커피 중심의 콜롬비아 경제의 침체를 어느 정도는 보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쇠고기 수출은 베네수엘라와 관계 악화로 2010년 수출량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쇠고기 생산량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기후의 영향으로 11만 마리 이상이 폐사되었기 때문에, 수출량 감소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쇠고기 수출은 약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닭고기 수출은 세계 경기 호조로 1인당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홍

콩, 베트남과의 교역량 증가로 2009년 대비 120%나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수출은 약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6 2009-2011년 콜롬비아 쇠고기 수출입 현황

단위: 톤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쇠 고 기 | 147,154 | 2,692 | 96,599 | 3,748 | 2,405 | 4,083 | 2,417 | 4,042 |
| 돼지고기 | - | 11,802 | - | 17,199 | - | 21,982 | - | 22,000 |
| 닭 고 기 | 4,689 | 644 | 2,128 | 573 | 4,681 | 565 | 4,821 | - |

주: 2011년은 전망치

자료: MADR

참고문헌

DANE <<http://www.dane.gov.co>>

FAO <<http://www.fao.org>>

KOTRA <<http://www.kotra.or.kr>>

MADR, "Perspectivas Agropecuarias Primer Semestre de 2011", May, 2011

OIE <<http://www.oie.int>>

Proexport <<http://www.inviertaencolombia.com.co>>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1. 7)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1. 7)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1. 7)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1.7)*

성명환

1. 국제 연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2011년 6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7.9% 상승한 톤당 87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6% 상승한 톤당 512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11년 7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19.6% 상승한 톤당 87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4.9% 상승한 톤당 581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부터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달러,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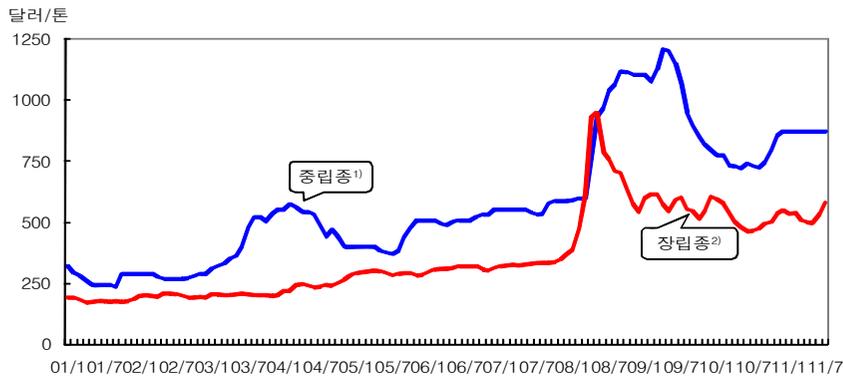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후 약간 하락하여 2009년 2월까지 1,075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에는 톤당 1,208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5월에는 톤당 719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톤당 87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9.6% 상승하였다. 2011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보험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태국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여 12월에는 5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615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태국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6월에는 463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반전되어 2011년 7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24.9%, 전월대비 9.4% 상승한 톤당 581달러이다. 2011년 태국 장립종 쌀가격은 강보험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 보험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장립종 쌀가격은 강보험세가 전망된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자료: USDA, Rice Outlook, July 13, 2011.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 국 가 | 2008/09 | 2009/10 | 2010.7 | 2011.6 | 2011.7 | 증감률(%) | | |
|--------------------|---------------------|---------|--------|--------|--------|--------|------|-----|
| | | | | | | 전년동월 | 전월대비 | |
| 미 국 | CA 중립종 ¹ | 1,119 | 791 | 728 | 871 | 871 | 19.6 | 0.0 |
| | 남부 장립종 ¹ | 610 | 506 | 427 | 522 | 529 | 23.9 | 1.3 |
| 태 국 ² | 609 | 532 | 465 | 531 | 581 | 24.9 | 9.4 | |
| 베 트 남 ³ | 456 | 397 | 356 | 463 | 493 | 38.5 | 6.5 | |

주: (1)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남부 장립종은 2등급,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eakers.
 자료: USDA, Rice Outlook, July 13, 2011.

2011년 7월 25일 현재 운임포함 현물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359달러, 대두가 톤당 593달러, 대두박이 톤당 470달러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 걸프만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6년 상반기 1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188달러 수준이었다. 2011년 7월 25일 현재 톤당 359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56.1%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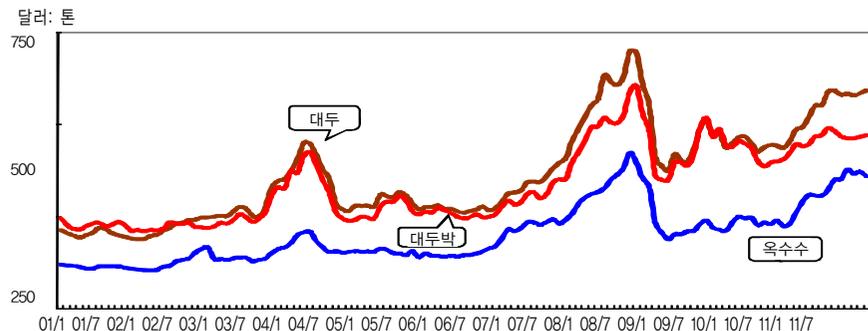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톤당 70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75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11년 7월 25일 현재 톤당 593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30.3%, 전월대비 1.4% 상승하였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7월 6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6월에는 톤당 518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11년 7월 25일 현재 톤당 470달러로서 전년 동월대비 11.4%, 전월대비 0.9% 상승하였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2011년 6월 가격은 한국사료협회에서 산정한 7월 25일 가격임.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 품 목 | 2008 | 2009 | 2010.7 | 2011.6 | 2011.7 | 증감률(%) | |
|-------|------|------|--------|--------|--------|--------|------|
| | | | | | | 전년동월 | 전월대비 |
| 옥 수 수 | 322 | 222 | 230 | 372 | 359 | 56.1 | -3.5 |
| 대 두 | 565 | 451 | 455 | 585 | 593 | 30.3 | 1.4 |
| 대 두 박 | 484 | 446 | 422 | 466 | 470 | 11.4 | 0.9 |

자료: 2011년 6월 가격은 한국사료협회에서 산정한 7월 25일 가격임.

2. 국제 선물가격

2011년 7월 25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11년 9월물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1.6% 상승한 톤당 283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1년 9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79.2% 상승한 톤당 267달러, 2011년 9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6.8% 상승한 톤당 502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 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는 19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12월에는 20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226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다. 2010년 7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25일 현재 2011년 9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83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1.6%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6.0% 하락하였다.

2011/12년도 미국, 호주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은 이상기후와 파종지연으로 감소하고 재고량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

2011년 7월 현재 캔사스 상품거래소의 2011년 9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283달러이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2011년 9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267달러, 2011년 9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502달러이다.

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한 후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에 145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154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 8월에는 톤당 12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선물가격은 2010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25일 현재 2011년 9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67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9.2%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6.0% 하락하였다.

2011/12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되나 재고율이 낮아 2010/11년도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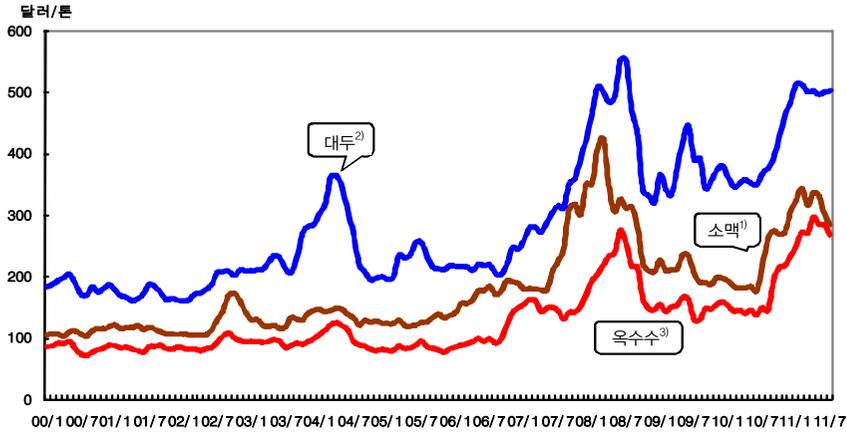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 31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36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332달러로 하락하였으나 6월에는 다시 톤당 445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9년 9월에는 톤당 342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6월에는 348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25일 현재 2011년 9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6.8%, 전월대비 0.4% 상승한 톤당 502달러이다.

2011/12년도 대두 소비량이 늘어나서 재고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품 목 | 2008/09 | 2009/10 | 2010.7 | 2011.6 | 2011.7 | 증감률(%) | |
|---------|---------|---------|--------|--------|--------|--------|------|
| | | | | | | 전년동월 | 전월대비 |
| 소 맥1) | 247 | 192 | 215 | 301 | 283 | 31.6 | -6.0 |
| 옥 수 수2) | 155 | 145 | 149 | 284 | 267 | 79.2 | -6.0 |
| 대 두2) | 373 | 359 | 367 | 500 | 502 | 36.8 | 0.4 |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11년 7월 25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연도1) | 쌀(FOB 가격) | | | | 선물가격 | | |
|---------|------------------|-------|--------------|--------------|------------------|-------------------|------------------|
| | 미국 ²⁾ | | 태국 | | 소맥 ³⁾ | 옥수수 ⁴⁾ | 대두 ⁴⁾ |
| | 장립종 | 중립종 | 100% Grade B | 5% parboiled | | | |
| 1987/88 | 421 | 366 | 273 | 261 | 108 | 87 | 251 |
| 1988/89 | 324 | 301 | 292 | 276 | 152 | 106 | 274 |
| 1989/90 | 342 | 352 | 292 | 259 | 144 | 100 | 217 |
| 1990/91 | 331 | 347 | 296 | 270 | 103 | 94 | 214 |
| 1991/92 | 368 | 384 | 287 | 269 | 131 | 99 | 212 |
| 1992/93 | 322 | 383 | 244 | 227 | 124 | 87 | 218 |
| 1993/94 | 439 | 451 | 294 | 244 | 123 | 103 | 242 |
| 1994/95 | 314 | 375 | 290 | 276 | 136 | 96 | 211 |
| 1995/96 | 414 | 445 | 362 | 344 | 188 | 150 | 271 |
| 1996/97 | 450 | 415 | 338 | 323 | 164 | 110 | 281 |
| 1997/98 | 415 | 396 | 302 | 292 | 130 | 101 | 239 |
| 1998/99 | 366 | 470 | 284 | 276 | 110 | 85 | 182 |
| 1999/00 | 270 | 454 | 231 | 242 | 105 | 83 | 182 |
| 2000/01 | 275 | 304 | 184 | 186 | 114 | 82 | 174 |
| 2001/02 | 207 | 285 | 192 | 197 | 108 | 85 | 174 |
| 2002/03 | 223 | 327 | 199 | 195 | 137 | 94 | 213 |
| 2003/04 | 360 | 533 | 220 | 221 | 136 | 104 | 295 |
| 2004/05 | 312 | 405 | 278 | 278 | 126 | 83 | 219 |
| 2005/06 | 334 | 484 | 301 | 293 | 142 | 88 | 214 |
| 2006/07 | 407 | 538 | 320 | 317 | 181 | 140 | 267 |
| 2007/08 | 621 | 694 | 551 | 570 | 315 | 203 | 462 |
| 2008/09 | 610 | 1,119 | 609 | 616 | 247 | 155 | 373 |
| 2009/10 | 506 | 791 | 532 | 397 | 192 | 145 | 359 |
| 2010/11 | - | - | - | - | 285 | - | - |

주: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 (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mnreports/lscd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1.7)*

성명환

1. 전세계 곡물

2011/12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7% 증가된 22억 6,908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2.4% 증가된 22억 8,487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7월 12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11/12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7% 증가된 22억 6,90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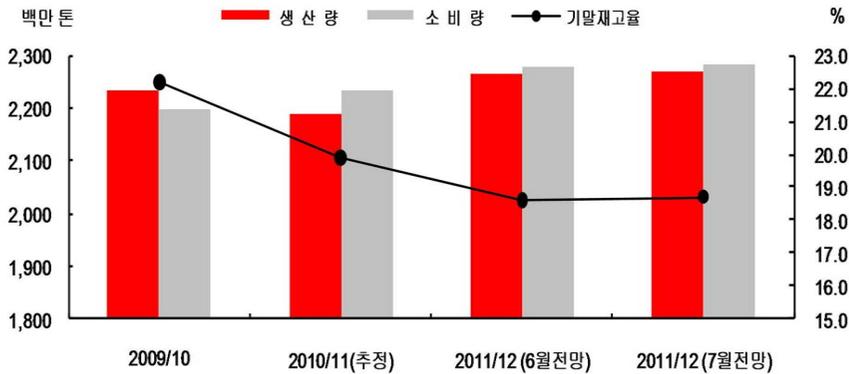
2011/12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4,348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7억 1,256만 톤으로 전년대비 1.4%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약 3,700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2011/1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22억 8,487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1,580만 톤 정도 초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1.4% 증가된 2억 7,80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3.6% 감소한 4억 2,769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10/11년도보다 1.2% 포인트 낮은 18.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그림 1 전체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생 산 량 | 2,233.95 | 2,188.37 | 2,264.59 | 2,269.08 | 3.7 | 0.2 |
| 공 급 량 | 2,685.95 | 2,675.66 | 2,701.67 | 2,712.56 | 1.4 | 0.4 |
| 소 비 량 | 2,198.66 | 2,232.18 | 2,277.25 | 2,284.87 | 2.4 | 0.3 |
| 교 역 량 | 290.04 | 274.21 | 274.21 | 278.07 | 1.4 | 1.4 |
| 기말재고량 | 487.29 | 443.48 | 424.42 | 427.69 | -3.6 | 0.8 |
| 기말재고율(%) | 22.2 | 19.9 | 18.6 | 18.7 |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2. 쌀

2011/12년도 쌀 생산량은 2010/11년보다 1.4% 증가된 4억 5,632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태국, 인도, 중국의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생산량은 전년대비 20.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4억 5,627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4,786만 톤보다 약 84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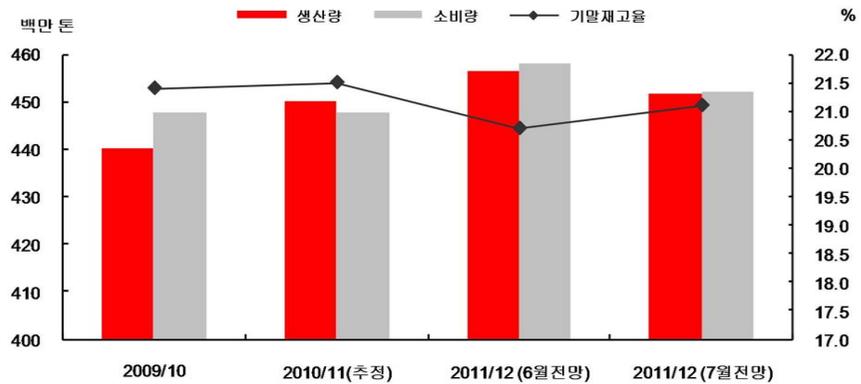
2011/12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1.5% 늘어난 3,21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16.7%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9.1% 감소될 전망이다. 전

2011/12년도 쌀 생산량은 4억 5,632만 톤, 소비량은 4억 5,627만 톤으로 예상된다. 교역량은 3,21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21.1%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1.1%, 베트남 19.9%, 미국이 10.0%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0.1% 증가된 9,628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2011/12년도 기말재고율은 21.1%로 전년도보다 0.4% 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 인도네시아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39.5%, 17.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생 산 량 | 440.06 | 450.20 | 456.39 | 456.32 | 1.4 | 0.0 |
| 공 급 량 | 531.59 | 544.07 | 552.87 | 552.54 | 1.6 | -0.1 |
| 소 비 량 | 437.72 | 447.86 | 457.97 | 456.27 | 1.9 | -0.4 |
| 교 역 량 | 31.07 | 31.67 | 32.34 | 32.14 | 1.5 | -0.6 |
| 기말재고량 | 93.87 | 96.22 | 94.90 | 96.28 | 0.1 | 1.5 |
| 기말재고율(%) | 21.4 | 21.5 | 20.7 | 21.1 |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3. 소맥

러시아 등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11/12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6억 6,24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10/11년보다 2.1% 증가한 6억 7,02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9.6%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1.6% 증가된 1억 3,004만 톤이 될 전망이다. 2011/12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10.6% 줄어든 3,130만 톤이나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1%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3.0% 줄어든 1,60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 기말재고량은 1억 8,219만 톤으로 전년보다 4.1%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22.1% 줄어들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지난해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27.2%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러시아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6억 6,242만 톤, 소비량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소비가 늘어나 6억 7,0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생 산 량 | 684.25 | 648.24 | 664.34 | 662.42 | 2.2 | -0.3 |
| 공 급 량 | 850.79 | 846.53 | 851.46 | 852.39 | 0.7 | 0.1 |
| 소 비 량 | 652.50 | 656.57 | 667.19 | 670.20 | 2.1 | 0.5 |
| 교 역 량 | 135.85 | 127.93 | 127.59 | 130.04 | 1.6 | 1.9 |
| 기말재고량 | 198.29 | 189.97 | 184.26 | 182.19 | -4.1 | -1.1 |
| 기말재고율(%) | 30.4 | 28.9 | 27.6 | 27.2 |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4.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8.2%, 18.2%, 14.8%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1/12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6.4% 증가된 8억 7,239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생산량도 2.9%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 3,480만 톤 정도 늘어난 8억 7,761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EU와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3.7%, 6.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52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11/12년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9,492만 톤이고, 생산

2011/1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6.4% 증가된 8억 7,239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4.1% 증가된 8억 7,761만 톤이 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13.2%가 될 전망이다.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8%, 19.0%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6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24.1% 늘어날 전망이다.

2011/12년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4.3% 감소된 1억 1,56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520만 톤 줄어든 수준이다. 2011/12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1% 포인트 하락한 13.2%가 될 전망이어서 낮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생 산 량 | 812.98 | 820.02 | 866.18 | 872.39 | 6.4 | 0.7 |
| 공 급 량 | 960.22 | 963.65 | 983.62 | 993.27 | 3.1 | 1.0 |
| 소 비 량 | 816.59 | 842.77 | 871.74 | 877.61 | 4.1 | 0.7 |
| 교 역 량 | 96.98 | 90.16 | 93.20 | 94.92 | 5.3 | 1.8 |
| 기말재고량 | 143.63 | 120.88 | 111.89 | 115.66 | -4.3 | 3.4 |
| 기말재고율(%) | 17.6 | 14.3 | 12.8 | 13.2 |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5. 대두

2011/12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145만 톤으로 전년대비 0.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7.1%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브라질, 중국의 생산량은 감소될 전망이다.

2011/12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10/11년 2억 5,419만 톤보다 약 850만 톤 늘어난 2억 6,26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2.8%, 3.7%, 1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9,75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미국이 41.7%, 브라질이 34.8%, 아르헨티나가 11.6%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88.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32.9%, 10.1%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1.6% 감소될 전망이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6,197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588만 톤과 비교하여 5.9% 감소,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3% 포인트 하락한 23.6%가 될 전망이다.

2011/12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145만 톤, 소비량은 2억 6,26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7.3%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생 산 량 | 260.84 | 263.69 | 262.79 | 261.45 | -0.8 | -0.5 |
| 공 급 량 | 303.52 | 323.04 | 327.32 | 327.33 | 1.3 | 0.0 |
| 소 비 량 | 238.32 | 254.19 | 263.21 | 262.65 | 3.3 | -0.2 |
| 교 역 량 | 92.65 | 92.79 | 98.75 | 97.58 | 5.2 | -1.2 |
| 기말재고량 | 59.35 | 65.88 | 61.59 | 61.97 | -5.9 | 0.6 |
| 기말재고율(%) | 24.9 | 25.9 | 23.4 | 23.6 |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6. 대두박

2011/12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8,322만 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소비량은 1억 8,125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과 비슷한 6,093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아르헨티나 49.6%, 브라질 24.4%, 미국이 12.7%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은 8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660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0.5%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과 비슷한 3.6%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전년보다 3.5%, 소비량은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생 산 량 | 165.28 | 176.95 | 183.66 | 183.22 | 3.5 | -0.2 |
| 공 급 량 | 169.67 | 183.07 | 190.43 | 189.79 | 3.7 | -0.3 |
| 소 비 량 | 161.10 | 173.67 | 181.78 | 181.25 | 4.4 | -0.3 |
| 교 역 량 | 55.59 | 60.91 | 61.07 | 60.93 | 0.0 | -0.2 |
| 기말재고량 | 6.12 | 6.57 | 6.71 | 6.60 | 0.5 | -1.6 |
| 기말재고율(%) | 3.8 | 3.8 | 3.7 | 3.6 |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공급량 | 531.59 | 544.07 | 552.87 | 552.54 | 1.6 | -0.1 |
| 기초재고량 | 91.53 | 93.87 | 96.48 | 96.22 | 2.5 | -0.3 |
| 생산량 | 440.06 | 450.20 | 456.39 | 456.32 | 1.4 | 0.0 |
| 미국 | 7.13 | 7.55 | 6.40 | 6.00 | -20.5 | -6.3 |
| 태국 | 20.26 | 20.26 | 20.75 | 20.75 | 2.4 | 0.0 |
| 베트남 | 24.99 | 25.80 | 25.43 | 25.43 | -1.4 | 0.0 |
| 인도네시아 | 36.37 | 36.90 | 37.60 | 37.60 | 1.9 | 0.0 |
| 인도 | 89.09 | 94.50 | 97.00 | 97.00 | 2.6 | 0.0 |
| 중국 | 136.57 | 137.00 | 138.00 | 138.00 | 0.7 | 0.0 |
| 일본 | 7.71 | 7.72 | 7.68 | 7.68 | -0.5 | 0.0 |
| 수입량 | 28.08 | 29.53 | 28.92 | 28.96 | -1.9 | 0.1 |
| 인도네시아 | 1.15 | 1.75 | 0.40 | 0.40 | -77.1 | 0.0 |
| 중국 | 0.39 | 0.60 | 0.40 | 0.40 | -33.3 | 0.0 |
| 일본 | 0.67 | 0.70 | 0.70 | 0.70 | 0.0 | 0.0 |
| 소비량 | 437.72 | 447.86 | 457.97 | 456.27 | 1.9 | -0.4 |
| 미국 | 4.01 | 4.20 | 3.98 | 4.02 | -4.3 | 1.0 |
| 태국 | 10.20 | 10.50 | 10.90 | 10.90 | 3.8 | 0.0 |
| 베트남 | 19.15 | 19.30 | 19.55 | 19.55 | 1.3 | 0.0 |
| 인도네시아 | 38.00 | 38.85 | 39.14 | 39.14 | 0.7 | 0.0 |
| 인도 | 85.69 | 91.00 | 94.70 | 93.00 | 2.2 | -1.8 |
| 중국 | 134.32 | 135.00 | 136.50 | 136.50 | 1.1 | 0.0 |
| 일본 | 8.20 | 8.13 | 8.25 | 8.25 | 1.5 | 0.0 |
| 수출량 | 31.07 | 31.67 | 32.34 | 32.14 | 1.5 | -0.6 |
| 미국 | 3.52 | 3.53 | 3.40 | 3.21 | -9.1 | -5.6 |
| 인도 | 1.90 | 2.40 | 2.80 | 2.80 | 16.7 | 0.0 |
| 태국 | 9.05 | 10.00 | 10.00 | 10.00 | 0.0 | 0.0 |
| 베트남 | 6.73 | 6.40 | 6.40 | 6.40 | 0.0 | 0.0 |
| 기밀재고량 | 93.87 | 96.22 | 94.90 | 96.28 | 0.1 | 1.5 |
| 미국 | 1.18 | 1.57 | 1.35 | 0.95 | -39.5 | -29.6 |
| 태국 | 6.10 | 6.06 | 6.01 | 6.01 | -0.8 | 0.0 |
| 베트남 | 1.47 | 2.07 | 2.08 | 2.05 | -1.0 | -1.4 |
| 인도네시아 | 6.58 | 6.38 | 5.24 | 5.24 | -17.9 | 0.0 |
| 인도 | 20.50 | 21.60 | 21.10 | 22.80 | 5.6 | 8.1 |
| 중국 | 40.53 | 42.53 | 43.83 | 43.83 | 3.1 | 0.0 |
| 일본 | 2.69 | 2.79 | 2.77 | 2.77 | -0.7 | 0.0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공급량 | 850.79 | 846.53 | 851.46 | 852.39 | 0.7 | 0.1 |
| 기초재고량 | 166.54 | 198.29 | 187.12 | 189.97 | -4.2 | 1.5 |
| 생산량 | 684.25 | 648.24 | 664.34 | 662.42 | 2.2 | -0.3 |
| 미국 | 60.37 | 60.10 | 56.01 | 57.32 | -4.6 | 2.3 |
| 호주 | 21.92 | 26.00 | 25.00 | 25.00 | -3.8 | 0.0 |
| 캐나다 | 26.85 | 23.17 | 25.00 | 21.50 | -7.2 | -14.0 |
| EU27 | 138.67 | 135.66 | 131.50 | 132.12 | -2.6 | 0.5 |
| 중국 | 115.12 | 115.18 | 115.50 | 115.50 | 0.3 | 0.0 |
| 러시아 | 61.77 | 41.51 | 53.00 | 53.00 | 27.7 | 0.0 |
| 수입량 | 133.58 | 127.20 | 124.32 | 126.35 | -0.7 | 1.6 |
| EU27 | 5.52 | 4.50 | 6.50 | 7.50 | 66.7 | 15.4 |
| 브라질 | 7.13 | 6.70 | 6.70 | 6.70 | 0.0 | 0.0 |
| 북아프리카 | 21.40 | 23.40 | 19.80 | 20.30 | -13.2 | 2.5 |
| 파키스탄 | 0.17 | 0.20 | 0.20 | 0.20 | 0.0 | 0.0 |
| 인도 | 0.22 | 0.30 | 0.30 | 0.30 | 0.0 | 0.0 |
| 러시아 | 0.16 | 0.10 | 0.20 | 0.20 | 100.0 | 0.0 |
| 소비량 | 652.50 | 656.57 | 667.19 | 670.20 | 2.1 | 0.5 |
| 미국 | 30.93 | 30.95 | 33.75 | 33.92 | 9.6 | 0.5 |
| EU27 | 125.00 | 122.50 | 122.50 | 124.00 | 1.2 | 1.2 |
| 중국 | 107.00 | 109.50 | 111.00 | 111.00 | 1.4 | 0.0 |
| 파키스탄 | 23.00 | 23.20 | 23.40 | 23.40 | 0.9 | 0.0 |
| 러시아 | 40.50 | 39.80 | 40.80 | 41.50 | 4.3 | 1.7 |
| 수출량 | 135.85 | 127.93 | 127.59 | 130.04 | 1.6 | 1.9 |
| 미국 | 23.98 | 35.00 | 28.58 | 31.30 | -10.6 | 9.5 |
| 캐나다 | 19.04 | 16.50 | 18.50 | 16.00 | -3.0 | -13.5 |
| EU27 | 22.12 | 22.00 | 15.00 | 15.00 | -31.8 | 0.0 |
| 기말재고량 | 198.29 | 189.97 | 184.26 | 182.19 | -4.1 | -1.1 |
| 미국 | 26.55 | 23.43 | 18.70 | 18.25 | -22.1 | -2.4 |
| EU27 | 16.01 | 11.67 | 12.18 | 12.30 | 5.4 | 1.0 |
| 중국 | 54.43 | 60.11 | 64.61 | 64.61 | 7.5 | 0.0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공급량 | 960.22 | 963.65 | 983.62 | 993.27 | 3.1 | 1.0 |
| 기초재고량 | 147.24 | 143.63 | 117.44 | 120.88 | -15.8 | 2.9 |
| 생산량 | 812.98 | 820.02 | 866.18 | 872.39 | 6.4 | 0.7 |
| 미국 | 332.55 | 316.17 | 335.30 | 342.15 | 8.2 | 2.0 |
| 아르헨티나 | 22.80 | 22.00 | 26.00 | 26.00 | 18.2 | 0.0 |
| EU27 | 57.28 | 55.47 | 59.29 | 59.29 | 6.9 | 0.0 |
| 멕시코 | 20.37 | 20.90 | 24.50 | 24.00 | 14.8 | -2.0 |
| 동남아시아 | 21.93 | 23.12 | 24.95 | 24.95 | 7.9 | 0.0 |
| 중국 | 158.00 | 173.00 | 178.00 | 178.00 | 2.9 | 0.0 |
| 수입량 | 90.29 | 91.27 | 90.26 | 91.66 | 0.4 | 1.6 |
| 이집트 | 5.83 | 5.40 | 5.60 | 5.60 | 3.7 | 0.0 |
| EU27 | 2.93 | 7.30 | 5.00 | 5.00 | -31.5 | 0.0 |
| 일본 | 15.98 | 16.10 | 16.10 | 16.10 | 0.0 | 0.0 |
| 멕시코 | 8.30 | 8.00 | 9.20 | 9.20 | 15.0 | 0.0 |
| 동남아시아 | 6.55 | 7.25 | 7.15 | 7.15 | -1.4 | 0.0 |
| 한국 | 8.46 | 8.00 | 7.70 | 7.70 | -3.8 | 0.0 |
| 소비량 | 816.59 | 842.77 | 871.74 | 877.61 | 4.1 | 0.7 |
| 미국 | 281.42 | 290.43 | 290.97 | 294.65 | 1.5 | 1.3 |
| EU27 | 59.80 | 61.90 | 64.20 | 64.20 | 3.7 | 0.0 |
| 일본 | 16.30 | 16.20 | 16.10 | 16.10 | -0.6 | 0.0 |
| 멕시코 | 30.20 | 28.70 | 32.10 | 32.10 | 11.8 | 0.0 |
| 동남아시아 | 28.40 | 30.30 | 31.60 | 31.60 | 4.3 | 0.0 |
| 한국 | 8.39 | 8.10 | 7.80 | 7.80 | -3.7 | 0.0 |
| 중국 | 159.00 | 172.00 | 181.00 | 182.50 | 6.1 | 0.8 |
| 수출량 | 96.98 | 90.16 | 93.20 | 94.92 | 5.3 | 1.8 |
| 미국 | 50.46 | 47.63 | 45.72 | 48.26 | 1.3 | 5.6 |
| 아르헨티나 | 16.49 | 14.50 | 18.00 | 18.00 | 24.1 | 0.0 |
| 중국 | 0.15 | 0.10 | 0.20 | 0.20 | 100.0 | 0.0 |
| 기말재고량 | 143.63 | 120.88 | 111.89 | 115.66 | -4.3 | 3.4 |
| 미국 | 43.38 | 22.34 | 17.65 | 22.09 | -1.1 | 25.2 |
| 아르헨티나 | 0.59 | 1.00 | 1.51 | 1.51 | 51.0 | 0.0 |
| EU27 | 5.04 | 4.91 | 4.00 | 4.00 | -18.5 | 0.0 |
| 중국 | 51.31 | 53.71 | 51.01 | 51.01 | -5.0 | 0.0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 2011.6 | (전망) 2011.7 | 변동율 전년대비 | (%) 전월대비 |
|-------|---------|-----------------|-------------------|----------------|-------------|-------------|
| 공급량 | 303.52 | 323.04 | 327.32 | 327.33 | 1.3 | 0.0 |
| 기초재고량 | 42.68 | 59.35 | 64.53 | 65.88 | 11.0 | 2.1 |
| 생산량 | 260.84 | 263.69 | 262.79 | 261.45 | -0.8 | -0.5 |
| 미국 | 91.42 | 90.61 | 89.40 | 87.77 | -3.1 | -1.8 |
| 아르헨티나 | 54.50 | 49.50 | 53.00 | 53.00 | 7.1 | 0.0 |
| 브라질 | 69.00 | 74.50 | 72.50 | 72.50 | -2.7 | 0.0 |
| 중국 | 14.98 | 15.20 | 14.30 | 14.30 | -5.9 | 0.0 |
| 수입량 | 86.80 | 89.82 | 96.24 | 94.87 | 5.6 | -1.4 |
| 중국 | 50.34 | 52.00 | 58.00 | 56.50 | 8.7 | -2.6 |
| EU27 | 12.30 | 13.80 | 13.30 | 13.30 | -3.6 | 0.0 |
| 일본 | 3.40 | 3.25 | 3.40 | 3.40 | 4.6 | 0.0 |
| 소비량 | 238.32 | 254.19 | 263.21 | 262.65 | 3.3 | -0.2 |
| 미국 | 50.62 | 48.32 | 48.17 | 48.15 | -0.4 | 0.0 |
| 아르헨티나 | 35.72 | 40.43 | 41.65 | 41.65 | 3.0 | 0.0 |
| 브라질 | 36.80 | 39.20 | 40.50 | 40.50 | 3.3 | 0.0 |
| 중국 | 59.43 | 66.05 | 72.50 | 71.60 | 8.4 | -1.2 |
| EU27 | 13.38 | 14.60 | 14.40 | 14.40 | -1.4 | 0.0 |
| 일본 | 3.58 | 3.48 | 3.60 | 3.59 | 3.2 | -0.3 |
| 멕시코 | 3.62 | 3.81 | 3.84 | 3.84 | 0.8 | 0.0 |
| 수출량 | 92.65 | 92.79 | 98.75 | 97.58 | 5.2 | -1.2 |
| 미국 | 40.85 | 41.37 | 41.37 | 40.69 | -1.6 | -1.6 |
| 아르헨티나 | 13.09 | 8.50 | 11.80 | 11.30 | 32.9 | -4.2 |
| 브라질 | 28.58 | 30.85 | 34.00 | 34.00 | 10.2 | 0.0 |
| 기말재고량 | 59.35 | 65.88 | 61.59 | 61.97 | -5.9 | 0.6 |
| 미국 | 4.11 | 5.44 | 5.18 | 4.78 | -12.1 | -7.7 |
| 아르헨티나 | 22.28 | 22.85 | 21.70 | 22.90 | 0.2 | 5.5 |
| 브라질 | 15.84 | 20.31 | 17.47 | 18.36 | -9.6 | 5.1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전망) | | 변동율(%) | |
|-------|---------|-----------------|-------------|--------|--------|-------|
| | | | 2011.6 | 2011.7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공급량 | 169.67 | 183.07 | 190.43 | 189.79 | 3.7 | -0.3 |
| 기초재고량 | 4.39 | 6.12 | 6.77 | 6.57 | 7.4 | -3.0 |
| 생산량 | 165.28 | 176.95 | 183.66 | 183.22 | 3.5 | -0.2 |
| 미국 | 37.84 | 36.00 | 35.64 | 35.64 | -1.0 | 0.0 |
| 아르헨티나 | 26.62 | 30.27 | 31.21 | 31.21 | 3.1 | 0.0 |
| 브라질 | 26.12 | 27.83 | 28.75 | 28.75 | 3.3 | 0.0 |
| 인도 | 5.99 | 7.50 | 7.03 | 7.03 | -6.3 | 0.0 |
| 중국 | 38.64 | 43.64 | 48.71 | 48.00 | 10.0 | -1.5 |
| 수입량 | 53.14 | 58.08 | 59.14 | 58.99 | 1.6 | -0.3 |
| EU27 | 20.73 | 22.90 | 23.30 | 23.30 | 1.7 | 0.0 |
| 중국 | 0.08 | 0.30 | 0.35 | 0.30 | 0.0 | -14.3 |
| 소비량 | 161.10 | 173.67 | 181.78 | 181.25 | 4.4 | -0.3 |
| 미국 | 27.78 | 27.85 | 27.94 | 28.03 | 0.6 | 0.3 |
| 아르헨티나 | 0.69 | 0.72 | 0.74 | 0.74 | 2.8 | 0.0 |
| 브라질 | 12.84 | 13.45 | 13.95 | 13.95 | 3.7 | 0.0 |
| 인도 | 2.75 | 3.01 | 3.23 | 3.23 | 7.3 | 0.0 |
| EU27 | 30.14 | 32.73 | 33.36 | 33.26 | 1.6 | -0.3 |
| 중국 | 37.55 | 43.24 | 48.26 | 47.60 | 10.1 | -1.4 |
| 수출량 | 55.59 | 60.91 | 61.07 | 60.93 | 0.0 | -0.2 |
| 미국 | 10.14 | 8.30 | 7.85 | 7.76 | -6.5 | -1.1 |
| 아르헨티나 | 24.91 | 29.48 | 30.22 | 30.22 | 2.5 | 0.0 |
| 브라질 | 12.99 | 14.40 | 14.85 | 14.85 | 3.1 | 0.0 |
| 인도 | 3.15 | 4.50 | 3.90 | 3.90 | -13.3 | 0.0 |
| 기말재고량 | 6.12 | 6.57 | 6.71 | 6.60 | 0.5 | -1.6 |
| 미국 | 0.27 | 0.27 | 0.27 | 0.27 | 0.0 | 0.0 |
| 아르헨티나 | 1.79 | 1.87 | 2.21 | 2.12 | 13.4 | -4.1 |
| 브라질 | 2.23 | 2.28 | 2.50 | 2.28 | 0.0 | -8.8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6, July 12, 2011.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 연도 | 생산량 | 공급량 ¹⁾ | 소비량 ²⁾ | 교역량 | 재고량 | 재고율 |
|------------|---------|-------------------|-------------------|--------|--------|------|
| 1980/81 | 142,934 | 175,707 | 144,922 | 21,199 | 30,785 | 21.2 |
| 1981/82 | 149,058 | 179,844 | 146,431 | 21,412 | 33,413 | 22.8 |
| 1982/83 | 154,126 | 187,539 | 148,415 | 20,034 | 39,124 | 26.4 |
| 1983/84 | 150,914 | 190,038 | 155,043 | 21,178 | 34,996 | 22.6 |
| 1984/85 | 167,066 | 202,062 | 159,189 | 21,815 | 42,873 | 26.9 |
| 1985/86 | 168,284 | 211,157 | 159,257 | 17,912 | 51,900 | 32.6 |
| 1986/87 | 170,389 | 222,289 | 164,934 | 19,140 | 57,356 | 34.8 |
| 1987/88 | 164,201 | 221,556 | 168,651 | 21,801 | 52,906 | 31.4 |
| 1988/89 | 159,008 | 211,913 | 166,754 | 22,709 | 45,159 | 27.1 |
| 1989/90 | 170,815 | 215,974 | 171,819 | 22,658 | 44,155 | 25.7 |
| 1990/91 | 181,009 | 225,164 | 175,502 | 21,722 | 49,663 | 28.3 |
| 1991/92 | 172,385 | 222,048 | 173,174 | 22,671 | 48,874 | 28.2 |
| 1992/93 | 179,640 | 228,514 | 176,166 | 22,649 | 52,348 | 29.7 |
| 1993/94 | 171,972 | 224,320 | 175,768 | 21,374 | 48,552 | 27.6 |
| 1994/95 | 176,110 | 224,662 | 176,845 | 21,638 | 47,817 | 27.0 |
| 1995/96 | 171,225 | 219,042 | 175,315 | 21,714 | 43,727 | 24.9 |
| 1996/97 | 187,254 | 230,981 | 182,311 | 21,951 | 48,670 | 26.7 |
| 1997/98 | 187,817 | 236,487 | 182,396 | 21,724 | 54,092 | 29.7 |
| 1998/99 | 187,555 | 241,647 | 183,590 | 22,072 | 58,057 | 31.6 |
| 1999/00 | 187,217 | 245,274 | 186,542 | 24,419 | 58,732 | 31.5 |
| 2000/01 | 184,276 | 243,008 | 186,326 | 23,355 | 56,682 | 30.4 |
| 2001/02 | 187,411 | 244,094 | 190,226 | 23,951 | 53,868 | 28.3 |
| 2002/03 | 182,085 | 235,953 | 191,293 | 24,136 | 44,660 | 23.3 |
| 2003/04 | 186,219 | 230,879 | 194,990 | 24,043 | 35,890 | 18.4 |
| 2004/05 | 204,447 | 240,275 | 199,470 | 24,112 | 40,814 | 20.5 |
| 2005/06 | 201,720 | 242,170 | 203,159 | 25,347 | 39,011 | 19.2 |
| 2006/07 | 200,081 | 239,015 | 204,819 | 26,029 | 34,196 | 16.7 |
| 2007/08 | 212,299 | 246,653 | 210,137 | 27,559 | 36,516 | 17.4 |
| 2008/09 | 224,050 | 261,162 | 215,785 | 28,562 | 45,377 | 21.0 |
| 2009/10 | 223,395 | 268,595 | 219,866 | 29,004 | 48,729 | 22.2 |
| 2010/11(E) | 218,837 | 267,566 | 223,218 | 27,401 | 43,348 | 19.9 |
| 2011/12(P) | 226,908 | 271,256 | 228,487 | 27,807 | 42,769 | 18.7 |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1.7)*

김형진

암소 도축률 증가는 2011년과 2012년 송아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암송아지 입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5억 9천만 파운드(약 117만 톤)로 예상되며, 수입량은 21억 8천만 파운드(99만 톤)로 전망된다. 2011년 젓소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여, 918만 5천 마리로 예상된다.

2011년 원유 생산량은 1,957억 파운드, 2012년에는 1,988 파운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 젓소 사육 마리수 감소는 마리당 원유 생산량 증가와 착유일수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3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55억 파운드, 4분기에는 61억 파운드로 2011년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0년 하반기보다 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하반기 계란 생산량은 2010년 하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33억 판으로 전망된다.

2011년 도축 마리수가 전년보다 9% 감소하여 6월 암소가격은 전년대비 약 25% 상승하였다.

1. 쇠고기

2011년 암소 도축률은 작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축 마리수가 전년보다 9% 감소하여 2011년 6월 암소 가격은 2010년보다 약 25%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가공육 수입 감소와 분쇄육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11년 7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진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jungang00@krei.re.kr, 02-3299-4286).

암소 도축률 증가는 2011년과 2012년 송아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암송아지 재입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소가격의 고공행진과 더불어 멕시코와 미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육밀소 가격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6월 오크라호마 도시의 거세우(750-800파운드) 가격은 2010년보다 18%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7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2011년 6~7월 초까지 초이스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3% 상승하였으며, 부산물 가격 또한 2010년보다 28%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패커의 이익 증가로 이어졌으나, 소매가격이 파운드당 4.80달러로(5월 4.87달러) 하락하면서 패커의 이익은 6월초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남부지역의 고온 현상으로 여름철 야외 바비큐 수요 감소로 소매가격은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 이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달러화 약세로 2011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5억 9천만 파운드(약 117만 톤)로 2003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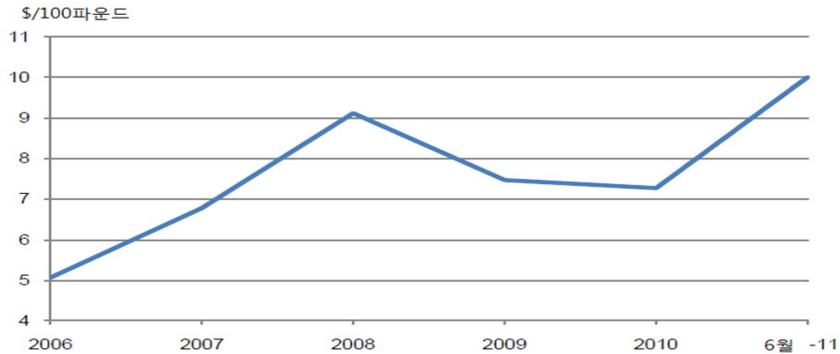
2. 낙농

6월에 발간된 「Acreage」 보고서에 의하면, 옥수수 생산자들은 전년보다 4.1백만 에이커(acre) 증가한 92.3백만 에이커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44년 이후 두 번째로 넓은 경작 면적이다. 2011/12년 높은 수준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과 많은 재고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5.50~6.50달러로 전망된다. 대두 가격도 톤당 345~375달러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낮아졌다. 2011/12년 옥수수와 콩 가격은 이전 시즌의 전망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료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5월 알팔파 가격은 전국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Acreage」 보고서에 의하면, 알팔파 건초 및 알팔파 혼합물의 수확면적은 2010년보다 감소하였다. 텍사스 지방의 심한 가뭄과 북서부 일부와 남서부 지방의 과도한 습도의 영향으로 인한 알팔파 예상 수확량 감소가 남은 2011년과 2012년의 알팔파 가격은 높게 유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2011/12년 단백질 16% 혼합 사료의 평균가격이 2010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원료사료의 가격의 변화가 낙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12년 옥수수와 콩 가격은 이전 시즌의 전망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료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단백질 비율 16% 사료가격



자료: USDA, ERS.

2011년 젖소 사육 마리수는 918만 5천 마리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높은 사료가격과 우유가격 하락 예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젖소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여, 918만 5천 마리로 예상된다. 2012년에는 높은 사료가격과 우유가격 하락예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마리당 1일 원유 생산량은 21,305 파운드, 2012년에는 21,665파운드로 지난 전망치가 변경되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 원유 생산량은 1,957억 파운드, 2012년에는 1,988 파운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 젖소 사육 마리수 감소는 마리당 원유 생산량 증가와 착유일수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23개주를 조사한 6월 「Milk Production」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원유 생산량 증가율이 큰 지역은 서부의 여러 주로 텍사스, 콜로라도, 애리조나가 증가율 상승을 주도하였다. 2010년에서 2011년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지역은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주리와 중서부 지방으로 나타났다.

2011년 유제품(원유환산) 수입량은 34억 파운드, 2012년 32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고품질 기준으로 2011년에는 50억 파운드, 2012년에는 45억 파운드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전망치는 지난달부터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입량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제품 수출량은 강세 추세이지만,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유제품 수출량은 88억 파운드로 예상되며, 이 전망치는 지난 달 전망치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 유제품 수출량은 87억 파운드로 지난 달 전망치를 유지하였다. 전지성분 수출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소폭 증가한 321억 파운드로 예상되며, 2012년 수출량은 323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더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제품 사용은 증가하였다. 유제품의 국내 사용은 올해 유지방 기준 1,888억 파운드, 2012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1,922파운드로 전망된다. 4월 전년동월대비 버터 15%, 아메리칸 치즈 4%, 기타 치즈는 7% 사용이 증가되었다.

6월 유제품의 전망가격은 상향조정되었다. 치즈 가격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파운드 당 평균 1.815~1.845달러로 전망되며, 2012년에는 1.660~1.76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버터 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1.925~1.985달러, 2012년에는 1.615~1.745달러로 전망된다. 2011년 탈지분유의 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1.520~1.550달러로, 2012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1.375~1.445달러로 예측된다. 2011년 유장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47.5~49.5센트, 2012년에는 41.0~44.0센트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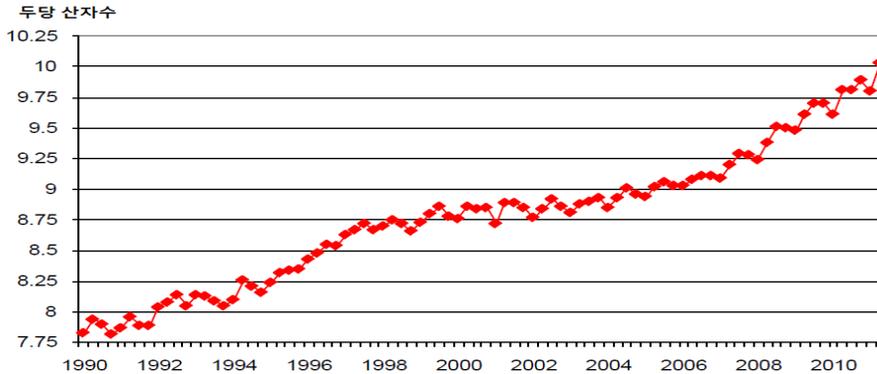
2011년 Class III 우유 가격은 cwt당 평균 18.00~18.30달러, 2012년에는 16.00~17.00달러로 전망된다. Class IV 우유 가격은 Class III 우유 가격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2012년 각각 cwt당 평균 19.15~19.55달러, 16.50~17.60달러로 전망된다. 2011년 모든 우유 가격은 cwt당 평균 20.00~20.30달러, 2012년 17.75~18.75달러로 전망된다.

3. 돼지고기

6월 24일 USDA에서 발간된 「Quarterly Hog and Pig」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2분기(3월~5월) 미국 돼지의 산자수(포유량)가 10마리를 넘어섰다. 2분기 산자수는 10.03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2.2% 높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자수를 나타내던 캐나다를 넘어선 수준에 이르렀다.

2분기 미국 돼지의 산자수는 10.03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2.2%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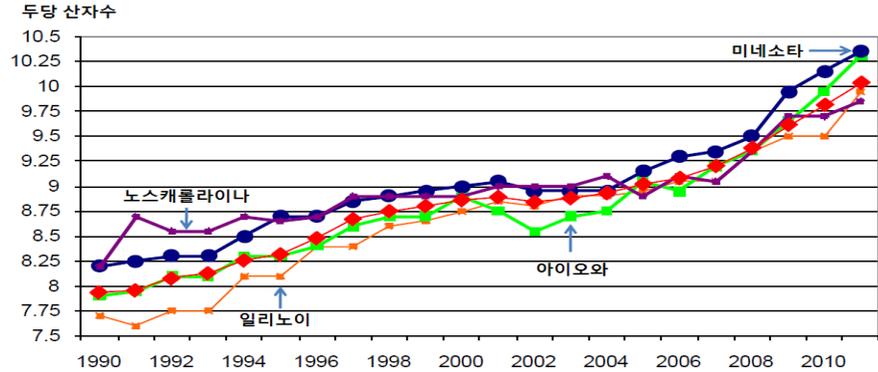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모든 두당 산자수 추이



자료: USDA, NASS.

지난 20년간 미국의 산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2분기까지 산자수가 10마리를 넘었던 시기는 없었다. 미국의 주요 생산지별 산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생산지인 아이오와 주와 미네소타 주가 가장 높은 산자수를 보이면서, 미국의 평균 산자수를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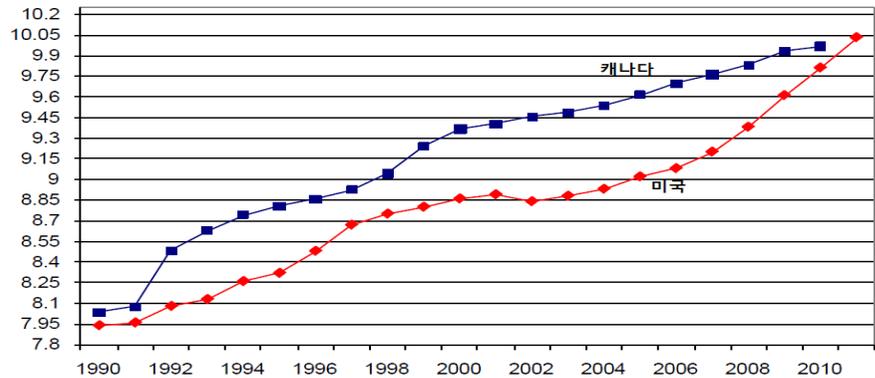
그림 3 미국 주요 돼지 생산지 두당 산자수 추이



자료: USDA, NASS.

1990년 이후 캐나다의 산자수가 항상 미국의 산자수를 상회하였으나 2011년 2분기에는 미국이 캐나다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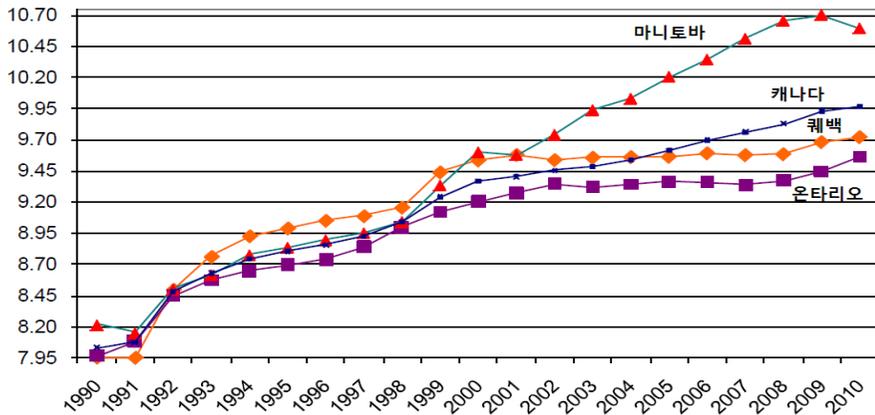
그림 4 미국과 캐나다 두당 산자수 비교



자료: USDA, NASS, Canada 통계청.

2011년 2분기 캐나다 전체 산자수는 10마리에 미치지 못한 반면에 매니토바 주는 2004년 이후 10마리 이상의 산자수를 유지하였다. 매니토바 주가 최고 산자수를 보였던 시기는 2009년 1분기의 10.7마리였으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최근 생산자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기술 및 유전자적 투자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림 5 캐나다 주요 돼지 생산지 두당 산자수 비교



자료: Canada 통계청.

『Quarterly Hog and Pig』 보고서에 의하면 3~5월 높은 분만율에 의해 4~6월에는 높은 포유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분기(4~6월) 분만율이 3~5월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영향은 높은 포유율에 의해 상쇄되고, 2분기 새끼돼지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새끼 돼지 사육 마리수의 증가는 4분기 도축 마리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나, 도체중이 2010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61억 파운드 로 전년 동월보다 1%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2% 증가한 55억 파운드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를 연계하여 추정된 결과 2011년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0년 하반기보다 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량은 2010년 하반기보다 12% 증가하고 자국내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몇 년간 높은 수준을 보였던, 생체가격과 소매가격은 2011년 하반기에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 생체 100파운드당 돼지고기 가격은 13% 상승한 67~69달러로 전망되고, 4분기 가격은 전년보다 20% 상승한 58~62달러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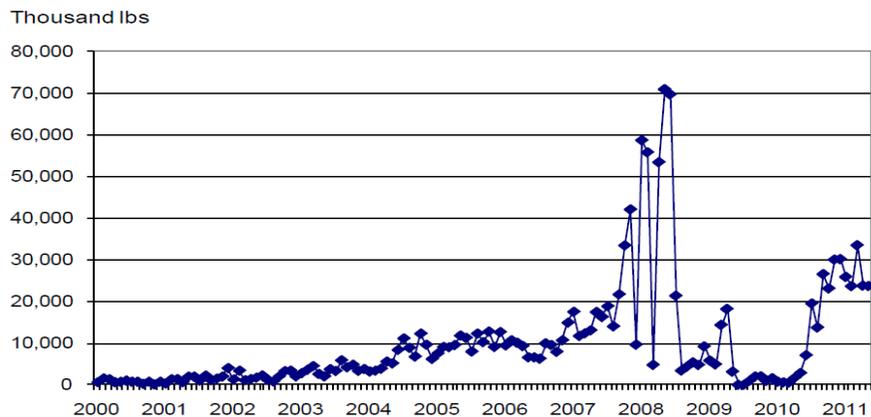
2010년 말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돼지고기 수출량은 5월 4억 9백만 톤으로 2010년보다 12.7% 증가하였다. 5월 미국산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3개 국가는 일본(16.4% 증가), 멕시코(26.9% 증가), 캐나다(15.1% 증가)로 이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전체 수출량의 66%에 달한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국 상위 5개국에는 한국과 중국이 속해 있으며, 5월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32.7% 증가한 3천 20만 파운드였다. 이러한 증가는 2011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

생체가격과 소매가격은 2011년 하반기에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였고, 한국정부에서 수입제한을 완화한 결과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상위 10개국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종종 상위 5개국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1년 5월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2천 3백 70만 파운드에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H1N1)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에도 발생하였는데 중국은 가장 선호되는 부위에 대해서만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수입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월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으로 수출한 돼지고기는 전체 수출량의 30%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6%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점차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본과 멕시코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6 미국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자료: USDA, ERS.

4. 닭고기

증가하는 도체중과 도계 마리수의 영향으로 2011년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증가한 94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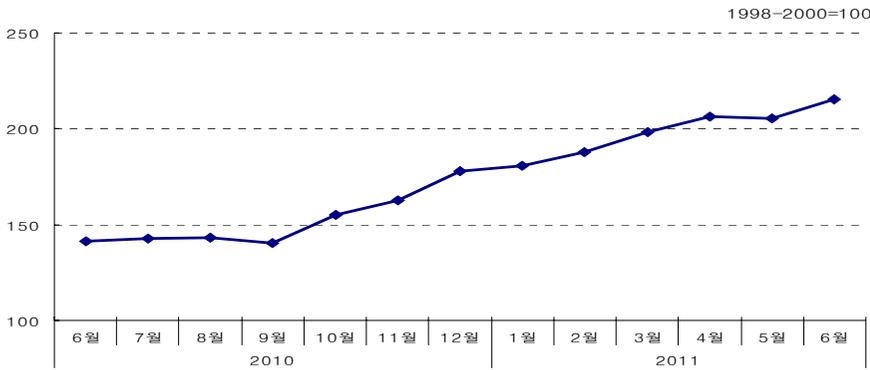
2011년 1~5월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4.8% 증가한 155억 파운드였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도계 마리수의 증가와 도체중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체중과 도계 마리수의 영향으로, 2011년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7천 5백만 파운드 증가한 94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하지만 5월 말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입란 및 병아리 입식마리수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2011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7천 5백만

파운드 감소한 93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1년 전체 생산량은 전월 전망치와 동일한 3백 8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곡물가격과 경기불황이 2012년 닭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닭고기 생산량은 2011년 추정치보다 1.1%(2억 3천만 파운드) 감소한 3백 78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2011년 전체 생산량은 3백 8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그림 7 육계 사료비용



자료: USDA, ERS.

6월 초 중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천 4백 8십만 마리였다. 만약 지난 몇 달 동안 중계 사육 마리수가 감소를 했다면, 입란 및 병아리 입식 마리수가 감소하여 사육 및 도계 마리수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다.

두 가지 큰 요인에 의해 최근 육계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하나는 곡물가격의 상승이며, 나머지 하나는 미국 경제성장의 정체로 볼 수 있다. 높은 곡물가격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고, 경제 불황은 닭고기 수요 감소로 이어져 닭고기 가격이 년 초보다 낮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지난 5주(6월 11일~7월 19일)간 평균 병아리 입식 마리수는 2010년 동기간보다 3.4% 감소한 1억 6천 9백 1십만 마리였다. 이는 4주전 입란수 감소에 의한 결과이다. 그리고 지난 3주간 입란수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 몇 주간 병아리 입식 마리수는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5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32억 파운드였다. 도계 일수의 증가로 5% 증가한 도계 마리수와 도체중의 증가로 인해 나타났다. 5월 육계 출하체중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5.81파운드였으며, 출하체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닭의 비중이 높아지고 출하체중이 증가하면서, 2011년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닭고기 생산량 증가는 일반

적으로 도매시장가격이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기 불황이 지속된 2011년 2분기 도매가격은 82.6센트로 전년보다 2.8% 낮은 수준이었다.

5월 말 재고량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7억 1천 9백만 파운드였다. 통닭에 대한 재고량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2천 1백 8십만 파운드였고, 가금육의 경우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1억 5천 7백만 파운드였다. 지난 5개월 동안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영향으로 도매가격은 하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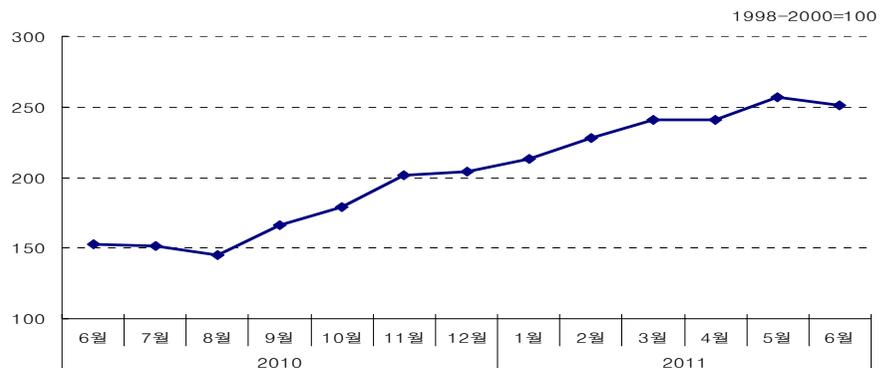
5월 닭고기 수출량은 5억 6천 6백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5.7%, 4월보다 14% 증가하였다. 5월 수출량의 증가는 2010년 5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라트비아로 3천 2백 5십만 파운드가 수출되었고, 러시아,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결과이다.

5. 계란

2011년 하반기 계란 생산량은 2010년 하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33억 판으로 전망된다.

5월 계란 생산량은 5억 5천 6백만 판(12개입)으로 전년동기보다 1% 증가하였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전년에 비해 산란용 닭 마리수는 감소하였지만, 산란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5월 산란용 닭 마리수는 2억 8천만 마리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산란용 닭 마리수의 전년대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계란 도매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사료가격으로 인해 사육규모의 확장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하반기 계란 생산량은 2010년 하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33억 판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산란계 사료비용



자료: USDA, ERS.

2분기 계란가격 상승은 4월에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란가격은 부활절 이후에 하락하는데 올해는 하락폭이 작았고, 하락기간도 짧았

다. 4월 뉴욕시장의 계란가격은 판당 평균 1.20달러로, 그 이후 5월에는 하락하여 0.99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6월에 계란가격이 재상승하여 2분기 판당 평균 계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29% 상승한 1.07달러였다. 산란용 닭이 소폭 감소하여 3분기 계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1년 4분기 평균 계란가격은 1.09~1.17달러로 전년동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수출은 2천 6백 3십만 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 캐나다, 한국으로의 선적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과 캐나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5월 일본으로의 계란 및 계란 가공품 수출은 전년동월보다 55% 증가한 6천 3백만 파운드였다. 1~5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일본 수출 선적량은 전년동기보다 39% 증가하였다. 5월 한국으로의 수출은 130만 파운드에 그쳤다. 그러나 전년 32만 4천 파운드보다는 크게 증가한 수출량이다.

참고자료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11년 7월호.

표 1 U.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 구 분 | 2010년 | 2011년 | | | | | 2012년 | | |
|----------------------------------|--------|--------|---------|---------|---------|---------|---------|---------|---------|
| | 연간 | I | II | III | IV | 연간 | I | II | 연간 |
| 생산량, 백만 파운드 | | | | | | | | | |
| -쇠고기 | 26,316 | 6,411 | 6,600 | 6,795 | 6,460 | 26,266 | 5,950 | 6,360 | 25,005 |
| -돼지고기 | 22,436 | 5,720 | 5,360 | 5,530 | 6,005 | 22,615 | 5,720 | 5,445 | 22,910 |
| -양고기 | 164 | 36 | 40 | 37 | 39 | 152 | 40 | 38 | 154 |
| -닭고기 | 36,911 | 9,288 | 9,325 | 9,425 | 9,350 | 37,391 | 9,260 | 9,400 | 38,040 |
| -칠면조고기 | 5,643 | 1,402 | 1,430 | 1,440 | 1,455 | 5,727 | 1,400 | 1,460 | 5,775 |
| -전체 육류 | 92,108 | 23,011 | 22,907 | 23,385 | 23,472 | 92,778 | 22,527 | 22,863 | 92,525 |
| -계란, 백만더즌/12개 | 6,550 | 1,627 | 1,640 | 1,655 | 1,680 | 6,602 | 1,605 | 1,620 | 6,540 |
| 1인당 소비량, 파운드 | | | | | | | | | |
| -쇠고기 | 59.6 | 14.1 | 14.7 | 15.2 | 14.3 | 58.3 | 13.2 | 14.1 | 55.6 |
| -돼지고기 | 47.7 | 11.6 | 11.1 | 11.5 | 12.3 | 46.3 | 11.5 | 11.2 | 11.3 |
| -양고기 | 0.9 | 0.2 | 0.2 | 0.2 | 0.2 | 0.9 | 0.2 | 0.2 | 0.9 |
| -닭고기 | 82.2 | 21.6 | 21.0 | 21.2 | 20.8 | 84.5 | 20.7 | 20.9 | 84.3 |
| -칠면조고기 | 16.4 | 3.5 | 3.6 | 4.0 | 5.0 | 16.1 | 3.6 | 3.7 | 16.2 |
| -전체 육류 | 208.6 | 51.5 | 51.0 | 52.5 | 53.0 | 207.7 | 49.6 | 50.6 | 205.7 |
| -계란, 개수(백만더즌) | 247.4 | 61.3 | 61.5 | 62.2 | 62.7 | 247.4 | 60.3 | 60.8 | 244.3 |
| 시장가격 | | | | | | | | | |
| -초이스급 거세우(Neb,\$/cwt) | 95.38 | 110.07 | 112-113 | 110-116 | 109-119 | 110-114 | 110-120 | 112-122 | 111-120 |
| -비육밀소 (Ok City,\$/cwt) | 108.71 | 127.20 | 126-128 | 118-126 | 119-129 | 122-127 | 118-128 | 124-134 | 122-130 |
| -유틸리티급 정육 (S. Falls,\$/cwt) | 56.1 | 68.66 | 72-73 | 68-72 | 68-72 | 70-73 | 71-75 | 73-78 | 71-76 |
| -초이스급 양고기 (San Angelo,\$/cwt) | 124.67 | 174.66 | 146-147 | 137-143 | 142-148 | 150-154 | 135-145 | 140-150 | 134-140 |
| -돼지고기 (N. base, l.e. \$/cwt) | 55.06 | 59.94 | 67-68 | 65-69 | 57-61 | 62-65 | 60-64 | 62-67 | 61-66 |
| -닭고기 (12도시, cents/lb) | 82.9 | 77.9 | 83-84 | 83-87 | 83-89 | 82-85 | 81-87 | 83-89 | 83-89 |
| -칠면조고기 (동부, cents/lb) | 90.4 | 90.2 | 98-99 | 99-105 | 102-110 | 97-101 | 86-94 | 93-101 | 92-100 |
| -계란 (뉴욕, cents/doz) | 106.3 | 105.8 | 104-105 | 97-101 | 108-116 | 103-107 | 103-111 | 91-99 | 100-108 |
| 교역량, 백만 파운드 | | | | | | | | | |
| -쇠고기 수출량 | 2,299 | 625 | 670 | 680 | 610 | 2,593 | 630 | 670 | 2,515 |
| -쇠고기 수입량 | 2,297 | 460 | 570 | 595 | 555 | 2,181 | 600 | 670 | 2,475 |
| -양고기 수입량 | 161 | 48 | 44 | 33 | 43 | 170 | 47 | 45 | 178 |
| -돼지고기 수출량 | 4,227 | 1,150 | 1,265 | 1,135 | 1,225 | 4,872 | 1,180 | 1,265 | 4,775 |
| -돼지고기 수입량 | 880 | 200 | 220 | 235 | 240 | 896 | 200 | 220 | 895 |
| -닭고기 수출량 | 6,773 | 1,500 | 1,600 | 1,650 | 1,700 | 6,480 | 1,600 | 1,650 | 6,700 |
| -칠면조 고기 수출량 | 583 | 150 | 160 | 155 | 160 | 635 | 150 | 150 | 620 |
| -모든 수입두수(천두) | 5,783 | 1,450 | 1,420 | 1,500 | 1,470 | 5,842 | 1,460 | 1,440 | 5,890 |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2 낙농업 전망

| 구 분 | 2010년 | 2011년 | | | | 2012년 | | |
|---------------------|--------|-------|-------|--------|--------|--------|--------|--------|
| | 연간 | I | II | III | IV | 연간 | I | 연간 |
| 젖소 (천두) | 9,117 | 9,164 | 9,195 | 9,195 | 9,185 | 9,185 | 9,185 | 9,175 |
| 두당 산유량(파운드) | 21,149 | 5,284 | 5,490 | 5,280 | 5,250 | 21,305 | 5,410 | 21,665 |
|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 192.8 | 48.4 | 50.5 | 48.6 | 48.2 | 195.7 | 49.7 | 198.8 |
| - 농가소모분 | 1.0 | 0.2 | 0.2 | 0.2 | 0.2 | 1.0 | 0.2 | 1.0 |
| - 납유량 | 191.8 | 48.2 | 50.2 | 48.3 | 48.0 | 194.7 | 49.5 | 197.8 |
| 유지방(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 | | | | | | |
| - 납유량 | 191.8 | 48.2 | 50.2 | 48.3 | 48.0 | 194.7 | 49.5 | 197.8 |
| - 연초 재고량 | 11.3 | 10.9 | 12.1 | 13.5 | 12.9 | 10.9 | 11.4 | 11.4 |
| - 수입량 | 4.1 | 0.8 | 0.8 | 0.9 | 1.0 | 3.4 | 0.8 | 3.2 |
| - 총공급량 | 207.2 | 59.9 | 63.2 | 62.7 | 61.9 | 209.1 | 61.7 | 212.4 |
| - 수출량 | 8.3 | 2.5 | 2.5 | 2.0 | 1.8 | 8.8 | 2.1 | 8.7 |
| - 연말 재고량 | 10.9 | 12.1 | 13.5 | 12.9 | 11.4 | 11.4 | 12.9 | 11.6 |
| - 소모분 | 0.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집유량 | 187.8 | 45.3 | 47.1 | 47.8 | 48.6 | 188.8 | 46.7 | 192.2 |
| 탈지성분(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 | | | | | | |
| - 납유량 | 191.8 | 48.2 | 50.2 | 48.3 | 48.0 | 194.7 | 49.5 | 197.8 |
| - 연초 재고량 | 11.3 | 12.3 | 11.9 | 12.7 | 12.2 | 12.3 | 12.3 | 12.3 |
| - 수입량 | 4.8 | 1.3 | 1.2 | 1.2 | 1.4 | 5.0 | 1.3 | 4.5 |
| - 총공급량 | 208.0 | 61.7 | 63.3 | 62.2 | 61.6 | 212.0 | 63.1 | 214.6 |
| - 수출량 | 32.1 | 8.2 | 8.2 | 8.0 | 7.7 | 32.1 | 8.1 | 32.3 |
| - 연말 재고량 | 12.3 | 11.9 | 12.7 | 12.2 | 12.3 | 12.3 | 12.2 | 12.0 |
| - 소모분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집유량 | 164.0 | 41.6 | 42.4 | 41.9 | 41.6 | 167.5 | 42.7 | 170.4 |
| 우유가격(달러/100 파운드) 1) | | | | | | | | |
| - 우유 | 16.29 | 18.73 | 20.07 | 21.45 | 19.90 | 20.00 | 18.05 | 17.75 |
| | | | | -21.85 | -20.60 | -20.30 | -19.05 | -18.75 |
| - III 등급 | 14.41 | 16.63 | 17.50 | 20.00 | 17.95 | 18.00 | 15.90 | 16.00 |
| | | | | -20.40 | -18.65 | -18.30 | -16.90 | -17.00 |
| - IV 등급 | 15.09 | 18.08 | 20.37 | 20.05 | 18.15 | 19.15 | 16.70 | 16.50 |
| | | | | -20.55 | -18.95 | -19.55 | -17.80 | -17.60 |
| 유제품 가격(달러/파운드) 2) | | | | | | | | |
| - 체다 치즈 | 1.523 | 1.710 | 1.751 | 1.995 | 1.820 | 1.815 | 1.640 | 1.660 |
| | | | | -2.035 | -1.890 | -1.845 | -1.740 | -1.760 |
| - 유장 분말 | 0.372 | 0.425 | 0.500 | 0.520 | 0.475 | 0.475 | 0.425 | 0.410 |
| | | | | -0.540 | -0.505 | -0.495 | -0.455 | -0.440 |
| - 버터 | 1.702 | 1.990 | 2.052 | 1.955 | 1.735 | 1.925 | 1.580 | 1.615 |
| | | | | -2.025 | -1.835 | -1.985 | -1.710 | -1.745 |
| - 탈지분유 | 1.169 | 1.373 | 1.611 | 1.610 | 1.505 | 1.520 | 1.415 | 1.375 |
| | | | | -1.650 | -1.565 | -1.550 | -1.485 | -1.445 |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생산 지표

| 구 분 | 단위 | 2010년 | 2011년 | | |
|-----------------|------------|---------|---------|---------|---------|
| | | 6월 | 4월 | 5월 | 6월/** |
| 비육우 | | | | | |
| 사육두수/* | 1,000 두 | 10,495 | 11,271 | 11,200 | 10,928 |
| 입식두수 | 1,000 두 | 1,573 | 1,736 | 1,730 | 1,625 |
| 출하두수 | 1,000 두 | 1,997 | 1,807 | 2,002 | 2,102 |
| 육계 | | | | | |
| 입란물량 /1 | 1,000 개 | 655,279 | 649,752 | 649,093 | 641,890 |
| 병아리 생산수수 /2 | 1,000 수 | 786,707 | 779,859 | 806,574 | 768,713 |
| 중계수수 /1 | 1,000 수 | 55,237 | 54,451 | 55,309 | 54,827 |
| 6개월 미만 중계수수 | 1,000 수 | 7,585 | 6,904 | 7,721 | 7,066 |
| 중계 도태수수 /2 | 1,000 수 | 6,478 | 5,785 | 6,157 | 7,811 |
| 칠면조 | | | | | |
| 입란물량 /1 | 1,000 개 | 28,707 | 27,720 | 27,754 | 28,215 |
|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 1,000 수 | 23,946 | 23,378 | 23,693 | 23,421 |
| 계란 | | | | | |
| 생산량 /2 | 백만 더즌(12개) | 534.6 | 546.3 | 556.1 | 536.3 |
| 산란용 마리수 /1 | 1,000 수 | 280,857 | 284,492 | 281,236 | 278,486 |
| 산란율 /1 | % | 76.1 | 77.2 | 77.0 | 76.6 |
|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 1,000 수 | 42,623 | 43,429 | 43,305 | 39,313 |
| 노계 도태수수 /2 | 1,000 수 | 5,875 | 5,991 | 6,424 | 5,298 |

주: 1) /* 조사대상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임. 2) /** 추정치임.
 3) /1 월초 기준임. 4) /2 월말 추정량임.

표 4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 구 분 | 2010년 | 2011년 | | |
|--------------------|-------|--------|--------|--------|
| | 7월 | 5월 | 6월 | 7월/** |
|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 | | | |
| 손익분기점 /* | 89.48 | 119.08 | 124.84 | 124.59 |
| 판매가격 | 93.50 | 109.79 | 106.66 | 111.00 |
| 순이익 | 4.02 | -9.29 | -18.18 | -13.59 |

주: 1)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2) /** 추정치임.

표 5 소득 추정표 - 기금류

단위: 1998~2000=100

| 구 분 | 2010년 | 2011년 | | |
|----------------|-------|-------|-------|-------|
| | 7월 | 5월 | 6월 | 7월/* |
| 육계(지수) | | | | |
| 사료비 | 142.9 | 205.5 | 215.4 | 212.3 |
| 시장가격 | 133.8 | 127.4 | 125.9 | 123.6 |
| 이윤(가격-비용) | 130.6 | 99.8 | 94.2 | 92.2 |
| 칠면조(지수) | | | | |
| 사료비 | 151.2 | 229.7 | 228.6 | 240.0 |
| 시장가격 | 148.4 | 151.1 | 156.3 | 157.6 |
| 이윤(가격-비용) | 147.2 | 115.4 | 123.3 | 120.0 |
| 계란(지수) | | | | |
| 사료비 | 151.1 | 256.8 | 251.4 | 254.6 |
| 시장가격 | 107.0 | 126.6 | 124.7 | 133.8 |
| 이윤(가격-비용) | 83.9 | 58.6 | 58.6 | 70.6 |

주: /* 추정치임.

표 6 육류 통계

| 구 분 | 2010년 1-6월 | 2011년 1-6월 | 2011년 | | | | |
|---------------|---------------|---------------|----------|----------|----------|----------|----------|
| | |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 | | | | | |
| - 쇠고기 | 12,621.3 | 12,802.3 | 1,994.1 | 2,236.7 | 2,026.1 | 2,105.3 | 2,347. |
| - 송아지고기 | 64.7 | 63.5 | 10.2 | 11.8 | 10. | 10. | 11. |
| - 돼지고기 | 10,831.2 | 11,013.6 | 1,756.2 | 2,040.2 | 1,778.6 | 1,747.3 | 1,807.1 |
| - 양고기 | 78.5 | 72.6 | 10.5 | 13.6 | 13.7 | 12.3 | 11.8 |
| 적색육 전체 | 23,595.7 | 23,952. | 3,771. | 4,302.3 | 3,828.4 | 3,874.9 | 4,176.9 |
| - 육계 | 17,930.7 | 18,791. | 2,854. | 3,309.9 | 2,973.4 | 3,244.5 | 3,281.7 |
| - 기타 계육 | 240.6 | 253.6 | 37.4 | 44.1 | 40.3 | 42.9 | 49.3 |
| - 칠면조육 | 2,722.9 | 2,873. | 435.6 | 503.1 | 455.6 | 496.4 | 519.3 |
| 백색육 전체 | 20,950.8 | 21,978.2 | 3,336.2 | 3,867.7 | 3,479. | 3,794. | 3,860.6 |
| 전체 육류 생산량 | 44,546.5 | 45,930.2 | 7,107.2 | 8,170. | 7,307.4 | 7,668.9 | 8,037.5 |
| 도축두수(천두) | | | | | | | |
| 소 | 16,571.8 | 16,693.7 | 2,580.1 | 2,913. | 2,677.7 | 2,777.3 | 3,058.4 |
| - 거세우 | 8,114.2 | 8,250.4 | 1,223. | 1,409.7 | 1,309. | 1,431.1 | 1,595.8 |
| - 미경산우 | 4,935.6 | 4,990.7 | 818. | 903.7 | 800.5 | 782.4 | 877.6 |
| - 경산우 | 1,757.9 | 1,710.4 | 248. | 277.2 | 280.9 | 295.6 | 318.6 |
| - 젖소 | 1,369.6 | 1,457.9 | 249. | 268.1 | 237.8 | 220. | 219.1 |
| - 비거세우 | 302.8 | 286.4 | 42. | 54.2 | 51.7 | 48.2 | 47.3 |
| - 송아지 | 427.1 | 399.9 | 67.9 | 71.8 | 57.9 | 60. | 71.5 |
| 돼지 | 53,248.4 | 53,166. | 8,439.9 | 9,794.6 | 8,559.4 | 8,470.4 | 8,865.6 |
| - 비육돈 | 51,588.7 | 51,533.6 | 8,194. | 9,500.7 | 8,295. | 8,202.1 | 8,569.6 |
| - 모돈 | 1,461.9 | 1,468.3 | 220. | 264.7 | 236.8 | 241. | 267.6 |
| 양 | 1,126.4 | 1,005.3 | 145.5 | 183.5 | 191.8 | 165.8 | 168.2 |
| 육계 | 4,238,237. | 4,320,306. | 659,576. | 764,174. | 686,642. | 744,281. | 751,995. |
| 칠면조 | 114,580. | 119,809. | 17,978. | 21,166. | 19,061. | 20,555. | 22,203. |

| 구 분 | 2010년 1-6월 | 2011년 1-6월 | 2010년 | | | | |
|-----------|---------------|---------------|--------|--------|--------|--------|--------|
| | |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정육량 (파운드) | | | | | | | |
| 소 | 1,268.7 | 1,272.5 | 1,286. | 1,276. | 1,257. | 1,253. | 1,262. |
| 송아지 | 262.3 | 276.5 | 264. | 283. | 296. | 288. | 266. |
| 돼지 | 271.7 | 276.3 | 277. | 278. | 277. | 275. | 273. |
| 양 | 137. | 140.7 | 141. | 146. | 138. | 143. | 137. |

| 구 분 | 2010년 1-7월 | 2011년 1-7월 | 2011년 | | | | | |
|----------------|---------------|---------------|--------|--------|--------|--------|--------|--------|
| | |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재고 입고량 (백만파운드) | | | | | | | | |
| 쇠고기 | 2,752.13 | 3,137.35 | 461.73 | 459.83 | 445.53 | 443.15 | 447.64 | 434.51 |
| 돼지고기 | 3,335.13 | 3,757.45 | 538.75 | 574.24 | 574.4 | 549.28 | 548.32 | 496.63 |
| 닭고기 | 4,335.97 | 4,986.77 | 739.54 | 682.47 | 660.78 | 704. | 716.97 | 710.42 |
| 칠면조고기 | 2,677.08 | 2,382. | 253.53 | 288.98 | 325.69 | 364.5 | 447.9 | 509.85 |
| 냉동달걀 | 163.53 | 198.13 | 26.79 | 28.14 | 27.29 | 27.68 | 29.03 | 33.85 |

표 7 생축 가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 | | |
|-----------------------------|--------|--------|--------|--------|--------|--------|
| | 7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소 (100파운드당 가격) | | | | | | |
| - 초이스급 거세우 1,100~1,300 파운드급 | | | | | | |
| 텍사스 팬핸들 | 93.50 | 115.58 | 119.58 | 109.79 | 106.66 | 111.00 |
| 네브라스카 | 93.12 | 116.81 | 119.80 | 111.42 | 109.00 | 112.00 |
| - 암소(수폴스지역) | | | | | | |
| 유틸리티급 1,200~1,600파운드 | NA | NA | NA | NA | NA | NA |
| 유틸리티급 800~1,200파운드 | NA | NA | NA | NA | NA | NA |
|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 | | | | | |
| 거세우 | | | | | | |
| 1) 500~550 파운드 | 130.99 | 159.85 | 153.12 | 147.72 | 140.69 | 142.00 |
| 2) 600~650 파운드 | 119.25 | 146.68 | 145.04 | 137.72 | 134.45 | 132.00 |
| 3) 750~800 파운드 | 112.12 | 128.69 | 131.46 | 129.78 | 132.03 | 129.00 |
| 미경산우 | | | | | | |
| 1) 450~500 파운드 | 118.22 | 143.05 | 144.58 | 137.58 | 131.37 | 132.00 |
| 2) 700~750 파운드 | 107.99 | 121.65 | 124.94 | 122.64 | 122.64 | 123.00 |
|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 | | | | |
| - 비육돈 | | | | | | |
| ·살코기 51~52% 기준 | 58.25 | 62.63 | 68.10 | 68.41 | 69.88 | 71.00 |
| - 모든 | | | | | | |
| ·아이오와 #1-2, 300~400파운드 | 56.10 | 55.58 | 56.52 | 55.25 | 52.38 | 57.00 |

주: /* 추정치임.

표 8 곡물 및 사료가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 | | |
|-----------------------------|--------|--------|--------|--------|--------|------|
| | 7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곡물(\$/부셸) | | | | | | |
| - 옥수수, #2 Yellow, Cen. III | N/A | N/A | N/A | N/A | N/A | N/A |
| - 밀, HRW Ord., K.C. (\$/부셸) | N/A | N/A | N/A | N/A | N/A | N/A |
| 사료(\$/톤) | | | | | | |
| - SBM, 48% Solvent, Decatur | N/A | N/A | N/A | N/A | N/A | N/A |
| - 알팔파, U.S. Avg.(\$/톤) | 117.00 | 136.00 | 155.00 | 186.00 | 180.00 | N/A |
| - 건조초, U.S. Avg.(\$/톤) | 97.30 | 97.30 | 103.00 | 112.00 | 113.00 | N/A |

주: /* 추정치임.

표 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 | | |
|-------------------------------|--------|--------|--------|--------|--------|--------|
| | 7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쇠고기 (\$/100파운드) | | | | | | |
| - 쇠고기 절단 포장육 | | | | | | |
| 초이스급 1-3, 600 ~ 900 lb | 154.53 | 182.52 | 188.05 | 177.96 | 176.02 | 178.00 |
| 셀렉트급 1-3, 600 ~ 900 lb | 145.61 | 180.88 | 183.29 | 172.56 | 170.52 | 172.00 |
|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 165.46 | 197.32 | 203.20 | 198.45 | 189.89 | 182.00 |
| - 수입 냉동 쇠고기, 90% | 158.06 | 202.75 | 207.75 | 199.00 | 188.95 | 186.00 |
| - 가죽 및 내장 | N/A | N/A | N/A | N/A | N/A | N/A |
| 돼지고기 (\$/100파운드) | | | | | | |
| - 지육 | 84.10 | 92.35 | 94.95 | 93.24 | 93.31 | 98.00 |
| - 등심, 14-19 lb Bl 1/4" trim | 118.47 | 123.08 | 131.20 | 138.84 | 136.21 | 136.00 |
|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 N/A | N/A | N/A | 143.00 | 119.00 | 133.00 |
| - 후지, 20-23 lb Bl trmd, TS1 | 81.55 | 85.00 | 76.98 | 79.65 | 77.55 | 85.00 |
| - 잡육, 72% fresh | 85.75 | 85.30 | 83.94 | 85.20 | 86.63 | 96.50 |
| 육계 (센트/파운드) | | | | | | |
| - 12개 도시 평균 | 86.12 | 81.97 | 82.12 | 83.38 | 82.44 | 80.00 |
| - 조지아 독(Georgia dock) | 87.07 | 85.53 | 85.74 | 85.75 | 86.10 | 85.90 |
| - 북동부 | | | | | | |
| · 뼈없는 가슴살 | 161.22 | 131.72 | 135.01 | 130.97 | 124.74 | 118.10 |
| · 뼈있는 가슴살 | 107.36 | 92.15 | 98.73 | 99.10 | 97.73 | 93.40 |
| · 다리(전체) | 48.88 | 61.73 | 66.36 | 68.13 | 67.10 | 63.60 |
| · 다리(1/4도체) | 37.40 | 42.08 | 46.82 | 49.61 | 48.43 | 43.90 |
|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 | | | | |
| - 12개 대도시 평균 | 78.20 | 91.34 | 111.69 | 92.55 | 91.19 | 97.80 |
| - 뉴욕 | 85.43 | 99.61 | 120.00 | 99.19 | 100.50 | 104.00 |

주: /* 추정치임.

표 10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 구 분 | 디케이터 대두박 | 시카고 No.2 옥수수 | 사료비용 | 시장가격 |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
|-----------|-------------|-----------------|---------------|---------------|-----------------|
| 단위 | 달러/톤 | 달러/부셸 | 1998-2000=100 | 1998-2000=100 | 1998-2000=100 |
| 2010년 4월 | 287.85 | 3.44 | 139.9 | 135.4 | 133.8 |
| 2010년 5월 | 305.78 | 3.26 | 141.3 | 133.1 | 130.2 |
| 2010년 6월 | 325.56 | 2.89 | 142.9 | 133.8 | 130.6 |
| 2010년 7월 | 331.76 | 3.71 | 143.1 | 137.1 | 134.9 |
| 2010년 8월 | 317.65 | 4.32 | 140.6 | 137.0 | 135.7 |
| 2010년 9월 | 321.92 | 5.21 | 155.0 | 126.4 | 116.3 |
| 2010년 10월 | 341.78 | 5.18 | 162.5 | 120.3 | 105.3 |
| 2010년 11월 | 351.93 | 5.50 | 177.7 | 117.3 | 96.0 |
| 2010년 12월 | 368.54 | 5.97 | 180.7 | 118.0 | 95.8 |
| 2011년 1월 | 358.59 | 6.56 | 187.7 | 116.4 | 91.2 |
| 2011년 2월 | 345.43 | 6.66 | 198.3 | 126.2 | 100.7 |
| 2011년 3월 | 335.87 | 7.37 | 206.1 | 127.3 | 99.4 |
| 2011년 4월 | 342.30 | 7.11 | 205.5 | 127.4 | 99.8 |
| 2011년 5월 | 347.45 | 7.21 | 215.4 | 125.9 | 94.2 |

표 11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 구 분 | 디케이터 대두박 | 시카고 No.2 옥수수 | 사료비용 | 시장가격 |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
|-----------|-------------|-----------------|---------------|---------------|-----------------|
| 단위 | 달러/톤 | 달러/부셸 | 1998-2000=100 | 1998-2000=100 | 1998-2000=100 |
| 2010년 4월 | 287.85 | 3.44 | 149.8 | 92.2 | 62.2 |
| 2010년 5월 | 305.78 | 3.26 | 152.7 | 98.6 | 70.4 |
| 2010년 6월 | 325.56 | 2.89 | 151.1 | 107.0 | 83.9 |
| 2010년 7월 | 331.76 | 3.71 | 145.3 | 119.9 | 106.6 |
| 2010년 8월 | 317.65 | 4.32 | 166.4 | 124.2 | 102.2 |
| 2010년 9월 | 321.92 | 5.21 | 179.0 | 111.0 | 75.5 |
| 2010년 10월 | 341.78 | 5.18 | 201.5 | 176.0 | 162.6 |
| 2010년 11월 | 351.93 | 5.50 | 204.0 | 176.4 | 161.9 |
| 2010년 12월 | 368.54 | 6.25 | 213.5 | 142.7 | 105.7 |
| 2011년 1월 | 358.59 | 6.56 | 227.7 | 142.7 | 98.3 |
| 2011년 2월 | 345.43 | 6.66 | 240.6 | 124.9 | 64.5 |
| 2011년 3월 | 335.87 | 7.37 | 240.9 | 152.8 | 106.7 |
| 2011년 4월 | 342.30 | 7.11 | 256.8 | 126.6 | 58.6 |
| 2011년 5월 | 347.45 | 7.21 | 251.4 | 124.7 | 58.6 |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11. 7)

주요 외신 동향 (2011. 7)

세계 농업 브리핑 (2011.07)*



1. 아시아/오세아니아

○ 일본, 쌀 이력추적제 시행

- 일본은 쌀 산지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쌀 이력추적제'가 7.1일부터 시행됨. 쌀 과자, 청주와 같은 가공식품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일본산 쌀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그리하여 식품제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사들은 원료를 수입쌀에서 일본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쌀 과자 제조회사인 이와즈카제과는 쌀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매상의 90%를 차지하는 주력상품 32개 품목의 일본산 쌀의 비율을 50% 이상에서 100%로 높임. 또한 카메다제과도 전 상품에서 국내산 쌀의 비율을 높일 계획임.

- 쌀 과자 제조회사는 일본산 가공용 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도후쿠 지역을 중심으로 태평양연안의 논이 쓰나미로 인해 2011년산 쌀의 작부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가공용 쌀의 생산량도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쌀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농가, JA, 유통업자 등 사업자간에 거래할 경우 전표, 포장에 산지를 기재해야 함.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에서도 밥 종류에 한하여 산지표시를 해야 함. 산지는 국명표시를 의무화하였고 도도부현과 시정촌표기도 가능함. 표시대상은 현미, 정미외에도 삼각김밥, 도시락을 포함한 밥 종류, 쌀가루, 쌀누룩, 떡, 쌀과자, 청주, 미림 등임. 외국산 쌀은 7.1일 이후에 수입한 것과 일본산 쌀은 농가가 7.1일 이후에 출하한 것이 대상이 됨. 쌀을 JA에 출하할 경우, 이미 전표에 필요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새로이 대응할 필요는 없음. 직영점 등 쌀이나 가공품을 독자적으로 출하할 경우와 농가레스토랑에서 밥 종류를 제공하는 경우는 국내산 표기가 필요함.

○ 일본, 쌀선물거래 시험상장 인가, JA그룹 불참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일 도쿄곡물상품거래소와 간사이상품거래소가 신청한 쌀선물거래 시험상장을 인가함. 쌀 시험상장에 반대해 온 JA그룹은 쌀 선물거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향의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야당도 일제히 비판함.
- 쌀 시험상장 인가는 농림수산성장관인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가 지난 1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함. 당초 도쿄곡물상품거래소와 간사이상품거래소는 7월중에 거래를 개시하려고 하였지만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상황이 불투명하여 9월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 중임. 시험상장은 2년간 시행되어 2년 후에는 상장, 시험상장의 재신청, 폐지 중 하나로 결정됨.
- 인가기준은 (1) 충분한 거래량을 예상할 수 있는가 (2) 생산·유통에 현저한 시장을 초해할 우려는 없는가 임. JA그룹은 거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표

명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장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함. JA그룹은 거래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에 필요한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지금까지 대두, 밀 등이 시험상장을 할 수 있었지만 상장까지는 하지 못하고 폐지됨.

○ 일본, 식고기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 규제지 넘어

-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농가에서 출하된 비육우에서 식품위생법 잠정규제치(1kg 당 500벵크렐)를 넘는 세슘이 검출됨. 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계획적 대피지역과 비상대피 준비 지역에서 출하된 소고기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짐. 이 구역 내 농가 영향을 고려한 출하계획을 작성하고 현 내 식육유통센터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현 내에서 도축·검사를 하지 못한 분량은 후생노동성을 통해 각 현에 협력을 요구해 나갈 방침임.
- 후쿠시마현은 이 구역이외에도 농가마다 적어도 1마리를 검사할 방침임. 이 구역의 소고기 출하계획 작성을 위해, 11일부터 소 사육농가에 방문조사를 시작하여, 출하시기와 두수 등을 파악함.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관계단체와 조정을 거친 후에, 검사 개시시기와 출하준비 등을 실행할 예정임. 농수성에 따르면, 이 지역의 축산, 낙농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는 약260호로 이 중 비육농가는 약30호 임. 비육우와 번식우를 합한 육우는 현재 약4000두 사육하고 있으나 출하계획에서는 비육우를 우선적으로 도축 검사하는 방침임. 미나미소마시에서 비육농가의 약8할이 현재는 출하를 지속하고 있으나 해지된 단계에서 도축, 검사의 대상이 됨.
- 방사성물질검사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주체로 실시되기 때문에 현 밖으로 출하되는 소고기에 대한 검사는 출하처 현의 판단에 맡김. 이에 후쿠시마현은 가능한 한 현 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현 밖으로 출하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지원을 받을 예정임. 농림수산성도 검사기기를 가지고 있는 독립행정법인과 관계단체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 일본, '샤누키 파' 판매방침 계약거래 강화

- 파 산지인 JA가가와(香川)현, JA가가와호난(香川豊南)은 11일과 12일 오사카후 이바라기(茨城), 다카츠키(高槻)에서 도매회사와 슈퍼마켓업자가 모인 '시장거래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산 파 판매방침'을 발표함. 이는

통일브랜드 '시누키 파'의 지명도를 높이고, 계약거래의 중요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임. 또한 가공업자와의 신규거래도 검토하고 농가의 실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오사카시 중앙도매시장본장, 동부시장, 오사카후 북부시장 등 3개 시장에서 가가와현산 파 판매 점유율은 28%(2010년 실적)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지만 현 내 산지가 각기 다른 브랜드명으로 출하되고 있어 인지도는 별로 높지 않음. 이에 따라 작년부터 브랜드명을 '시누키 파'라는 브랜드로 단일화함.
- 2011년 '시누키 파'의 판매방침에는 관촉자재 활용과 신브랜드 보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외에도 출하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계약거래를 증가시킬 예정임. 중개업자들은 "음식의 부재료인 양념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식재료로서의 수요도 중요하다며,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공급을 부탁한다"고 요청함.

○ 일본, 사료비축량 증량 검토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2년도 예산에서 사료곡물비축의 증량을 검토함.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항만시설이 파손되어 사료공급이 중지되었으나, 일본정부가 비축한 사료용 곡물 중 35만 톤을 방출하여 많은 가축농가가 사료부족난을 벗어날 수 있었음. 그러나 정부정책채신회의는 작년도 지교시와케(사업정리·공개예산심사제도)에서 비축예산을 2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함. 지진피해와 같은 우려치 못한 사고의 발생도 우려되는 가운데, 어디까지 비축수량을 늘릴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 2002년도 옥수수과 수수의 비축수량은 80만 톤이었으나, 2011년도 예산에서 40만 톤으로 감소됨. 당분간 농림수산성은 비축을 매각한 이익을 보관경비로 사용하고 매각이익을 다 쓸 경우 비축은 20만 톤으로 감소됨.
- 사료제조단체 4곳은 옥수수과 수수의 비축수량을 60만 톤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농림수산성은 "이번 대지진의 경우처럼 시설이 파괴될 가능성을 고려해 비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일본, 2011년 농업구조동태조사 결과 발표

- 지난 17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1년 농업구조동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판매농가 1가구 당 경영경지면적은 전국적으로 2.01헥타르로, 전년대비

3.1% 증가함. 이는 조사를 시작한 1979년 이래 처음으로 2헥타르대로 늘어섬. 도후현(都府縣)에서 5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판매농가는 1.7% 증가한 5만 9,000가구로 집계되어 규모면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판매농가 1가구당 경영경지면적은 홋카이도(北海道)가 22헥타르, 도후현은 1.46헥타르로 전년대비 각각 2.4%, 2.8% 증가함. 경영경지에서 차입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홋카이도가 19.6%, 도후현이 27.4%로 나타남. 판매금액 1,000만 엔 이상의 판매농가 비율은 홋카이도에서 58%, 도후현은 6% 수준으로 100만 엔 미만의 비율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판매금액 700만 엔 이상의 비율은 농업형태별로 낙농에서 87%, 시설야채에서 53%를 차지했고, 노지야채와 고기용 소에서는 20~30%로 감소함. 이에 반해 벼농사에서는 100만 엔 미만이 약 80%로 나타남.
- 전국 판매농가 가구수는 전년대비 4.3% 감소한 156만 1,000가구로, 농업종사자수는 7.3% 감소한 420만 7,000명으로 나타남. 이 조사는 농림업 인구조사 실시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 필리핀, 바이오연료사업으로 농지 빼앗겨 기업진출에 반대

- 마닐라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킬로 떨어진 이사벨라주(州)의 마리아노정(町)에서는 이토츠키(伊藤忠)등이 바이오 에탄올 사업을 진행 중임. 총사업비는 약 120억 엔으로, 1만 1,000헥타르의 농지에서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를 재배할 계획임. 완성되면 연간 5만 4,000킬로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큰 주목을 모으고 있음.
-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경작해 온 농지를 수탈당해 생활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필리핀 농지제도가 문제점으로 작용함. 필리핀에서는 본래 국유지에서 30년 이상 농업을 하는 경우 정부가 허가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소유권을 따기 위해 필요한 거액의 수수료를 낼 수 없어 정식 농지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지역 농민조직의 리더는 “확실히 우리는 토지권리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선조대대로 이 농지를 경작해 왔다. 그런데 작년에 마을의 권력자가 이 농지를 바이오 에탄올 사업자에게 빌려줬다며 이걸 불합리하다.”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이토츠키 본사는 “필리핀에서 원주민이 농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향후 조사를 진행할 것

이다”라고 언급함.

○ 중국, 외원계 유기농 농장 인기 상승

- 끊임없이 터지는 식품안전 관련 사고로 중국사람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짐. 최근 채소에서 농약 남용 및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해 재배하는 등 가공식품뿐 아니라 신선식품에서도 안전문제가 불거짐.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유기농 채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마트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채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
- FAO에 따르면 중국의 채소 재배면적은 1,700만 ha, 생산량은 5억 6,500만 톤으로 세계 1위이지만 유기농 농작물의 재배면적은 30만 ha로 중국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의 0.01%, 유기농 채소의 비율은 0.01% 수준임.
- 유기농 채소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 교외에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기농 농장에 대한 인기가 급격히 상승함. 이들 농장은 유기농 제품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마케팅, 회원제 배달 방식 등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일반 채소보다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높지만 높은 인기를 누림. 체험, 이력관리, 국제인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기농 제품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두어리농장, 이무텐 등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며, 고품질 채소의 생산, 회원제 직판 방식, 부유층 대상의 마케팅 등을 적극 활용해 부가가치가 큰 농업상품을 개발함. 농산품을 전문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차이관자와 같은 기업이 늘어나는 등 농산품의 마케팅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는 추세임.

○ 베트남, 바이오매스 시장 성장 중

- 베트남은 점증하는 국내 수요로 바이오매스 연료시장이 성장 중임. 베트남 내 설립공장 수 등 정확한 통계는 입수가 어려우나 왕겨가 많이 배출되는 메콩델타 인근지역에 다수의 공장이 설립됨. 왕겨뿐 아니라 커피껍질, 견과류 껍질, 나무껍질 등이 다수 배출되는 지역에도 공장이 설립 중임. 대부분의 공장은 1개월 바이오매스 연탄 생산량이 약 100~2,000t에 그치는 소규모 공장들이며, 월 5,000t 이상 생산규모의 공장은 극히 드문 실정임.

- 베트남은 전통적인 농업국으로 왕겨, 커피껍질, 견과류 껍질, 나무껍질 등 다양한 원료가 풍부하며, 북부의 홍 강, 남부의 메콩 강 등 대규모 경작지가 풍부해 바이오매스 원료 수급이 용이함. 바이오매스 연료의 경우 열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약 20~30%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바이오매스 원료의 경우 대부분 임농업 부산물인 관계로 공급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로 바이오매스 원료의 통일적 수급이 어려움. 또한 바이오매스 원료의 주요 수급지인 농경지들은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메콩델타 등 주요 농경지들의 주요 운송수단은 소규모 선박이나 이들은 왕겨 등 부피가 큰 바이오매스 원료를 운송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함.

○ 일본, 소비세 총액표시제도 외세 방식으로 통일

- 중앙시장과 지방시장의 도매업자로 이루어진 전국청과도매 협동조합연합회는 7.26일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내에서 열린 통상총회에서 슈퍼마켓 등과 가격협상을 할 때 문제시 되고 있는 소비세 표지에 대해 상품가격과 소비세를 나누는 ‘외세’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함. 그리하여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대해 외세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할 방침임.
- 소비세 총액표시제도(내세방식(内稅方式))는 2004년에 시작되어 대상으로는 소비자가 상품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의 가격(소매가격)으로 소매점에서는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함. 그러나 이것은 도매업과 슈퍼마켓 등 업자 사이에 거래할 때는 의무사항은 아님. 유통업계에서는 청과물 매입가격에 소비세를 포함하는 내세방식에 대해, 흐름에 편승하여 가격이 인하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도매업자는 거래가격과 소비세를 나누는 외세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 소비세율을 인상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만일 소비세가 오를 경우 슈퍼마켓 등은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달갑지 않아 하기 때문에 내세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도매업자 사이에서 의견을 통일하기로 한 것임.

○ 일본,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영성학교 개교

-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나베(田辺)시에 있는 농업법인 ‘아키즈노(秋津野)’는 오는 30일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기슈쿠마노(紀州熊野)지역형성학교’를 개교함. 농가 레스토랑이나 농작업체험형 숙박시설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이 법인은 수강자에게 경영방법을 전수할 예정임. 강의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나 행정 등에 재직 중인 다양한 인재와의 만남을 통해 수강자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지역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 학교는 구 초등학교를 이용한 도시농촌 교류시설인 ‘아키즈노가르텅’을 거점으로 함. 강사로는 와카야마대학(和歌山大學) 이외에도 일본상류문화권연구소(日本上流文化圏研究所), 시마네(島根)현 중산간지역연구(中山間地域研究)센터, 미나미신슈(南信州)관광공사 등 와카야마현 외 단체에서도 인재를 초대할 계획임. 7.30~31일 제1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총 6회의 수업을 함.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실시될 예정이며, 매회 저녁에는 친목회도 있음. 참가자는 6번의 전 강좌를 수강해야 함. 수강료는 다나베시 거주자는 무료이며, 시외 거주자는 3만 엔, 교통비와 숙박료는 개인부담임.
- 이 법인의 다마이(玉井)부사장은 “지역형성은 인재육성이다. 생각하는 농가를 키우고 싶다”고 설명함.

2. 유럽

○ EU, 6월 EU농어업장관이사회의 결과

- 지난 6.2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농어업장관이사회에서는 E-coli 오염사고 관련 후속 조치 진행상황과 G20 농업장관회의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1. E-coli 오염사고 후속 조치 관련

- 이사회에서 집행위는 E-coli 오염사고 발생과 관련한 특별이사회(6.7일 개최)이후의 후속 조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회원국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음.

<식품안전 관련>

- 특별 이사회 이후 며칠 후, 독일 정부는 E-coli 발생 원인이 독일 북부 농가의 싹 채소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신선 채소류에 대한 집행위 차원의 경고가 철회되었으며, 채소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신뢰는 회복되고 있음.
- 집행위는 채소류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할 계획임.
- 독일 발생 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E-coli가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현재 검사중에 있으며, 이는 싹 채소류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음.

<시장 파급효과 관련>

- 특별이사회 이후 며칠 후, 210 백만 유로 수준의 특별 지원 조치가 채택되어, EU의 오이, 토마토, 상추, 피망 농가 등의 손실 일부를 보상할 수 있게 되었음.
- 집행위는 향후 수일 내에 회원국별 보상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7월말경 지원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임.
- 집행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채소 가격은 위기 상황의 최저 수준으로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에 있음.

<국제교역 관련>

- 러시아의 유럽 과일 채소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 근거를 결여한 과잉 조치임.
 - 특별이사회 이후, 집행위는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동건 관련 해결을 시도해오고 있으며, 농산물 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러시아 정부와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러시아의 수입 금지조치는 몇몇 EU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되었음.
-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번 E-coli 오염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채소 생산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신속히 수립한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함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점에서는 유감을 표시하였음.
- 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번 위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재앙

적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현재 진행중인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식품 조기경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부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만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음.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채소와 과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긴급 홍보 캠페인을 하여 줄 것을 집행위에 요청하였음.
- 농산물 수출국인 회원국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려는 집행위의 그동안의 노력을 지지하였음.

2. G20 농업장관회의의 결과

- 이사회에서 프랑스는 6.22~23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의 결과(농산물 가격 변동성 관련 실행 계획)를 보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장기적인 농업 생산 확대를 통하여 세계 식량 수요 증대와 공급 제한 요인에 대응
 - 식량 생산과 재고에 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장 정보의 투명성 개선
 - 식량 위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포럼을 조성하는 등 국가간 조정 능력을 개선하여 세계 식량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
 - 가격 변동이 특히 심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기 관리 장치를 별도로 개발하여 극심한 변동을 완화시킴
 - 농산물 시장의 조직화를 개선
- 동 농업장관회의의 논의 결과 마련된 실행계획(action plan)은 11.3-4일 간느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임.

3. 유기농업 관련 NGO 회의

- 의장국(헝가리)은 5.3일1 헝가리 괴뮐뢰(Goedoello)에서 개최된 유기농업에 관한 NGO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음.
 - 동 회의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헝가리 유기농업 관련 조직 등

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미래 유기 농업 정책, 신규 EU회원국에서의 유기농 시장 발전 등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음

○ 동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음.

- 유기농은 EU 신가입국의 농촌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미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과 관련하여, 유기농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
- 유기농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
- 유기농업이 GMO로부터 보호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발전이 가능함.

○ EU, 식품 라벨 규정 강화

- 지난 6일 EU 의회는 2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안 채택함. 신규 식품 라벨 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시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함.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함.
- 이 신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신규정 주요 내용>

(1) 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 소비자들이 한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함.
-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되어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음.

(2) 알레르기성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표시해야 함.

- 현행 EU 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을 포함한 모든 성분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함. 이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함.

(3)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 의회의 요구로 신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해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 이 조항에 대한 이행 법규는 집행위가 신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에 마련할 것임.
-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재료로 사용된 고기, 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임.

(4)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 신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함.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은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두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함.

-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

○ 우크라이나, 7월부터 반 년간 곡물에 수출관세 적용

- 우크라이나는 2010.10월부터 적용해오던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도를 2011.6.30일까지만 적용하고 2011.7.1일부터 2012.1.1일까지 수출관세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과거 직접적인 수출물량 제한정책에서 간접 통제방식으로 전환함. 곡물별 수출관세는 밀 9%(또는 t당 최소 19유로), 옥수수 12%(또는 t당 최소 20유로), 보리 14%(또는 t당 최소 23유로) 등임. 이와 별도로 곡물 무역업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무역업체의 비용으로 간주돼 정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됨.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2010년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도입하자 국내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2010.10월부터 밀, 옥수수, 보리, 호밀 및 메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곡물수출쿼터제 도입 및 구체적인 쿼터배정에 대해 외국정부의 항의가 잇따르자 우크라이나 내각은 2011.5.25일 밀과 보리에 대한 곡물수출쿼터제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출하는 곡물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정부에서 곡물수출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더 이상 환급해 주지 않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국제 곡물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됨.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향으로 국내에서 곡물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현지에서는 이미 곡물을 수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곡물 공급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 EU, 7월 농어업장관이사회의 결과

- 7.1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농어업장관이사회에서 EU 2011년 하반기의 장국인 폴란드는 농어업 분야 의장국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고, 수산 장관들은 EU집행위가 제안한 공동수산정책 개혁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또한 농식품 홍보 전략, E-coli 사고 후속 상황 등에 대하여도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하였음.

1. 2011년 하반기 의장국 중점 추진과제

- 이사회에서 2011년 하반기 EU 순환 의장국인 폴란드는 아래와 같은 하반기 농어업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회원국들에게 보고하였음.

<농업 분야>

- 2013년 이후의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논의 지속 추진
 - 의장국 요청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질 예정임.
- CAP 행정 단순화
- 농식품 품질 패키지, 낙농산업 패키지
- 리스본 조약 발효로 인한 CAP 조정 작업
- 농식품 홍보 전략

<수산 분야>

- EU 공동수산정책(CFP) 개혁
- 2012년 어획가능량과 쿼터 결정

<동식물 위생>

- 소에 대한 전자적 신원확인 제도 도입
- 새로운 EU 식물위생 전략

<산림 분야>

- 유럽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산림 협정 도입
 - 6.14-15일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인 FOREST EUROPE 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지속

2. 농식품 홍보 전략 녹서

- 이사회에서 집행위는 농식품 홍보 전략에 관한 녹서(green paper)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농업장관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EU 집행위는 7.14일 상기 녹서를 발표하여 유럽 농식품의 고품질 이미지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홍보 전략의 마련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음.

- 동 홍보전략의 주요 목표는 식품안전, 환경보존, 동물복지, 지리적 표시, 유기농업 등 유럽 농업이 가진 장점을 EU 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잘 홍보하여, EU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지역 농식품 홍보 활성화, 유럽 생산모형 홍보, 식품 위기시의 대응, 모범사례 전파를 위한 플랫폼 구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간의 일관성 제고, 지리적 표시와 브랜드의 가치 활용 방안 등임
- EU에선 2011년 기준으로 13개 회원국의 26개 홍보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75.1백만 유로임(이중 50%를 EU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원국 정부와 프로그램 제안 단체가 공동 부담)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EU 농업인들의 높은 수준의 위생, 품질관리 노력을 EU와 제3국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잘 홍보하고자 하는 집행위의 독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의 의견을 표시하였음.
- 몇몇 회원국들은 홍보 전략 수립에 있어서 보다 단순화되고, 보다 빠른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일부 회원국들은 최근 E-coli 오염사고와 같은 위기 발생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집행위 독서에서 제시한 지역 농식품(local food) 홍보 활성화, 다수 회원국에 걸친 농식품에 대한 공동 홍보 등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특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 의장국은 농식품 홍보 전략 마련은 2011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기간중 중점 추진과제가 될 것이며, 9.11-13일 예정된 비공식 농업장관회의에서도 동 의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3. 쇠고기 전문가 그룹

- 이사회에서 집행위는 그동안 쇠고기 전문가 그룹(beef reflection group)에서 논의한 결론을 회원국들에게 보고하였음.
- 최근 유럽 쇠고기 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5.29일 EU 농업장관 회의에서 쇠고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이후, 집행위는 회원국들과 관계 전문가들로 쇠고기 전문가 그룹과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3차례(6.15일, 16일, 29일)에 걸쳐서 시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

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음.

- 쇠고기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한 주요 의제는 ①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장관리정책, ② 쇠고기 시장에 있어서의 농가직불금의 중요성, ③농촌지역개발정책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④식품공급시설 기능 개선 방안 등임(전문가 그룹 논의의 상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집행위는 쇠고기의 시장 가격은 높은 수준이지만, 사료 등 투입비용도 역시 상승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역설적인 상황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고, 의장국은 향후 CAP 개혁 입법 과정에서 쇠고기 전문가 그룹의 결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음.

4. 농산업 관련 규제 완화

- 이사회에서 영국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식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에서 그동안 특별 TF를 구성하여 EU 와 영국의 모든 농업과 식품산업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로서, 규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신뢰, 책임감, 정부와 산업간의 파트너십 등에 기초한 규제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있음.
- 이사회에서 몇몇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그동안 EU차원에서 진행해온 CAP 행정 단순화와 일맥 상통하며, 특히 지난 3월 이사회시 26개 회원국이 지지하여 제출한 CAP 행정단순화 보고서와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동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지지하였음.

5. E-coli 발생 후속 상황

- 이사회에서 집행위는 독일에서 발생한 E-coli의 후속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음.
 - 독일 정부는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을 독일 북부지역 농가의 콩나물/숙주(bean sprout)로 확인하였으며, 독일에서의 오염과 며칠 후 발생한 프랑스에서의 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집트산 씨앗과 관련하여, 집행위에서는 이집트에 검사단을 파견하여 확인할 계획임.
 -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집행위는 오이, 토마토, 상치, 주키니 호박,

피망 농가에게 부분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긴급 예산 210백만 유로를 배정하였고, 현재 각 회원국 정부에서 각국의 농가 보상 수요를 집계(수일내 1차 집계 완료 전망)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보상 수요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음.

- 집행위는 현재 대부분의 채소 가격들이 작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번 가을부터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5백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동 오염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채소 농가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서 유감임.(매우 낮은 가격으로 채소를 팔아야하는 농가중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 발생)
- 이번 위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향후 CAP 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일부 회원국들은 현행 식품 위기 발생시의 긴급경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음.

6. 동부 아프리카 식량위기

○ 이사회에서 프랑스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Horn of Africa)의 식량 위기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프랑스는 6.22-23일 파리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시 채택된 식량가격 변동성 관련 실천계획의 후속으로서 동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식량 위기에 대하여 G20 국가들, UN 등이 공동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음.

- UN 식량농업기구(FAO)는 7.25 이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개최기로 하였음.

○ WTO, 추가 선행합의안 단념

- WTO의 라미사무국장은 7.25일 비공식 소수국가 회의인 그린룸(Green Room) 회의를 개최함. 라미사무국장은 12월에 열릴 각료회의의 도하라운드 선행합의안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추가적인 개발지원을 검토하고 있던 무역원활화나 농어업보조금 삭감 등의 조건을 단념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주요국가와 협의해 왔으나 각국의 의견이 맞지 않았음.

- 선행합의안은 일괄합의방식에서 일부항목을 따로 떼어내 선행적으로 합의·실행할 것을 목표로 해 왔으나, 협상방식을 재검토하지는 분위기임. 동 일본대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농업이나 어업을 복구해야 할 일본도 어업 보조금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개발도상국 지원은 (1)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무세조치, (2) 원산지규칙의 완화 (3) 서비스자유화 의무면제, (4) 목화보조금협약의 진행방식 등 4개 항목으로 라미사무국장은 “계속하여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는 방침임. 그러나 미국은 무세조치와 목화보조금협약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4개 항목 중 무엇을 지원책으로 할지가 향후 초점이 됨.
- 라미 사무국장은 농업 등 주요 분야를 포함한 도하 라운드 전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2012년 이후의 작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자료작성: 이정희.

주요 외신 동향 (2011.07)

□ 러시아 곡물 수출업자들에 곡물가격 인하 압력

1. 주요 내용

○ 러시아 정부의 수출금지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수입국들의 수입주저로 러시아의 수출업자들은 가격인하 압력을 받고 있음.

- 지난 금요일(1일) 1년여 만에 해제된 러시아 정부의 곡물수출금지조치는 국제 곡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 수출금지조치 등 정치적인 위험요소 때문에 수입국들은 러시아로부터 곡물 수입을 재개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음.

- 더욱이, 올해 국제 식량 생산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집트 등 주요 수입국들은 러시아의 곡물 수입을 재개하는 데 소극적임.

-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국제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 러시아 곡물 연합(Russian Grain Union)의 아르카디 즈로체브스키(Arkady Zlochevsky)회장은 현재 실질적으로 러시아 곡물에 대한 수요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러시아가 밀을 판매하려면 가격을 인하해야만 한다고 언급함.

○ 한편,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이었던 러시아가 곡물수출제한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세계 밀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섬.

- 러시아 밀의 본선인도가격은 현재 25% 하락한 톤당 240달러이며, 농업시장연구소(IKAR; Institute for Agricultural Market Studies)에 따르면 향후 가격이 더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힘.

- 이러한 러시아의 여파로 7월 1일 파리에서 거래된 유럽산 밀 역시 28% 하락한 톤당 183유로로 거래가 마감되었으며, 월요일에는 193유로에 거래됨.

< 밀 수출국 러시아 및 주요 밀 수입국 이집트 상황 >

○ 러시아는 지난 5월 말 예정대로 7월 1일 곡물수출금지조치 해제를 발표하였으나, 모스크바 소재 일부 기관들은 국내곡물가격이 다시 급등할 경우 즉각적으로 다시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수출국으로서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음.

-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7월 내 150~2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기 시작할 예정이나, 7월 이후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함.
- 전통적으로 러시아 곡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이집트는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러시아의 7월 인도분 밀 수입을 거부하고 있음.
 - 이집트 국영 곡물 수입업체인 GASC(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집트의 곡물 수입업자는 8월분 러시아 밀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 러시아의 Renaissance Capital 농업 부문 애널리스트인 리차드 퍼그슨(Richard Ferguson)은 수출금지조치로 인해 공급의 불확실성이 대두된 만큼, 이집트의 러시아 곡물 수입 거부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언급함.
- 한편, 러시아 농산물시장 민간연구소인 SovEcon의 안드레이 시조프 주니어(Andrey Sizov jnr)는 러시아 곡물 수출 가격이 한동안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요 수출국 지위 회복 전망
 - 러시아는 주요 곡물수출국 중 생산비가 가장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주요 밀 수출국의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함.

참고자료: FinancialTimes(2011.07.04)

□ 미국, 남서부 지역 가뭄 피해 확산

1. 주요 내용

- 고온과 가뭄 피해가 플로리다와 에리조나를 포함한 미국의 14개 주로 확산되고 있음.
 - 뉴욕타임즈는 “포장도로처럼 매우 말라버린 토양을 뚫고 나오기에 먼화 짝이 너무 약하다”면서 “들판에서는 옥수수가 타들어가며, 가뭄은 악명높은 모랫바람(Dust Bowl)에 필적할 만큼 농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고 피해의 심각성을 전함.
- 가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텍사스주이며, 이 지역 주민과 농장주들은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남서부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해 수백만 에이커의 땅이 타들어가고 있음.
 - 기상학자인 Don Conlee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텍사스의 가뭄은 1917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되었다고 언급함.

- 텍사스주 농업 관계자에 따르면, 텍사스주 밀 경작지의 30% 이상이 황폐화되면서 약 30억 달러의 농작물 손실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는 밀 공급 부족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함.
 - 이에 지난달 USDA는 텍사스의 254개 지역을 연방 구호가 필요한 자연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함.
- 오클라호마주의 강수량도 여름철 평년 강수량의 28%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한달 동안 평균 기온은 32°C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기상 전문가인 David Miskus는 금번 가뭄 피해가 강한 라니냐(La Nina) 현상으로 인해 남부의 수분 파이프 라인이 차단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 통상적으로 봄철과 여름철 기상 뉴스는 홍수와 태풍 소식이 주를 이루었는데, 현재 미국 전체 면적의 25%가 겪고 있는 고온과 가뭄은 과거 이 시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 재해임.
 - 이처럼 위험한 기상 패턴은 여름철 건조 지역에서 예상되는 기상 상황(남동부 지방의 열대 태풍 및 남서 지역의 장맛비)과 대치되는 현상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설명함.
- 한편, 미국 가뭄 피해경감본부(The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의 전직 이사인 Donald A. Wilhite는 현재의 상황이 경기침체와 가뭄 피해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1930년대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냄.
-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은 최악의 가뭄 사태를 대처할 만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
 - 연방 정부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 아이오와주립대 Bruce A. Babcock 교수는 사료 작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미국 축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관개에 의존하는 곡물 재배농가들은 물 조달 등 경영비 상승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높은 사료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농장 경영주들이 도축수를 늘리면서 축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사료 작물 생산량 감소는 결국 축산물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임.
 - 예컨대, 가뭄 피해 지역의 어떤 곡물 재배농가는 5~6월 동안 물 조달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무려 8만 8,44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USDA는 플로리다, 뉴멕시코, 텍사스 주 등 가뭄 피해 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 7,500만 달러를 지원함. 또한 곡물 재해 보상금으로 6,200만 달러도 추가적으로 지원한 상태임.

참고자료: NewYorkTimes(2011.07.11)

□ 미국 중서부 폭염과 가뭄으로 곡물가격 상승 우려

1. 주요 내용

- 미국 중서부 지역에 닥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주요 작물들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
 - 미국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은 “주요 곡물재배지인 오하이오 벨리(Ohio Valley)의 동쪽지역과 텍사스(Texas), 다코타(Dakotas) 주는 고온 및 습도로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함.
 - 또한 기상청은 최근 중서부와 남동부지역의 주요 곡물재배지가 있는 지역에서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폭염주의보를 발령함.
- 지금은 옥수수의 수분(pollination)시기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수분을 감소로 옥수수의 수확량은 감소할 것이며, 현재 최저수준인 옥수수 재고량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무역업체들 사이의 경쟁심화로 밀 가격 상승도 우려됨. 축산 농가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축산사료로 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9월 옥수수 인도분은 2.3% 증가, 밀 인도분은 3.5% 증가함. 반면 8월 대두 인도분은 0.8% 증가함.
- USDA에 따르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2011년도 옥수수 생산량 중 상급 이상의 품질은 66% 수준으로 이는 전 주보다 3% 하락한 수치임. 대두 또한 상급 이상의 품질이 64% 수준으로 전 주보다 2% 하락함.
- 텍사스의 현지 전문가들은 축산업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 가뭄과 폭염으로 사료작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축산 농가들은 송아지들을 매각하는 등 축산업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함.

2. 시사점

- 주요 곡물 수출국인 미국에서의 곡물 생산량 감소는 국제 곡물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앞으로 주요 곡물 생산국의 곡물 생육 상황, 기상여건, 국제 곡물 재고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됨.

참고자료: FINANCIAL TIMES(2011.07.19)

□ USDA, 육류의 식품표시제도 규정 강화

1. 주요 내용

- USDA는 소비자들에게 육류의 접종 내역, 양념 여부 등 소비자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특징들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 공포함.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 FSIS)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표시제도에서는 육가공품에 양념류 등 육류 외의 첨가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육류 및 가금육 제품을 소비할 때,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힘.
- 기존 제도 하에서는 육류 및 가금육 제품에 들어간 물·소스·염분 등 모든 첨가물의 내역과 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음.
 - 예) 기존에는 ‘닭가슴살 100% 제품’과 ‘닭가슴살 60%/양념 40% 제품’ 모두 동일하게 ‘닭가슴살’로만 표기했으나, 향후 ‘닭가슴살 60%, 소스 40% 포함’으로 모든 성분 및 함량 표기 의무화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영양성분표시는 이해가 쉽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양념 등 첨가물의 성분명과 함유량 일체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성분표시의 글씨체, 글씨크기, 색깔 등 규정된 디자인에 맞추어, 소비자의 눈에 잘 띄게 제품 전면 지정된 위치에 표기해야 함.
- 그동안 미국 소비자보호단체 공익과학센터(CSPI: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는 지속적으로 육류 및 가금육에 대한 식품표시제도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대해 Bloomberg지는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번



법안 개정이 성사되었다고 언급함.

참고자료: USDA, Bloomberg(2011.07.21)

자료작성 : 미래정책연구실

세계 농업 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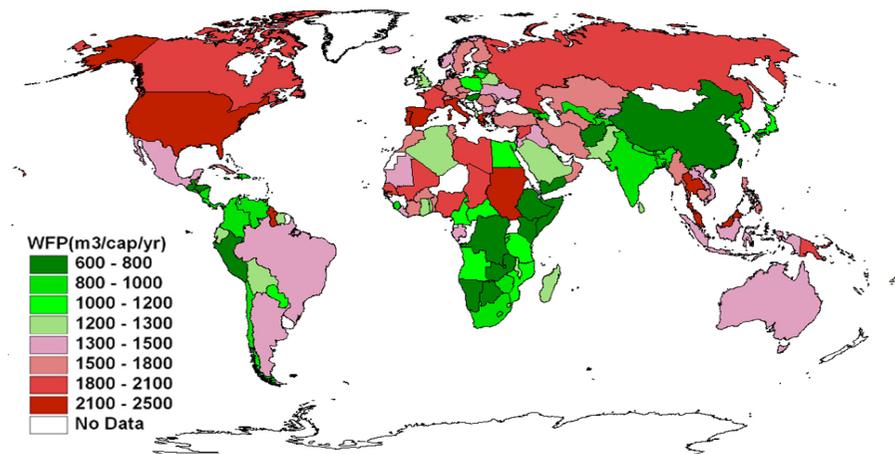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 (2011)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이란 단위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의 전 과정동안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뜻한다. 이것은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과 유사한 개념으로 유네스코 산하의 물 교육연구소(UNESCO-IHE: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지를 수치화해 만든 지표이다.

최근 ‘물 발자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용어이다. ‘물 발자국’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상품 및 식품이 얼마나 많은 물을 소비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어 물 소비가 적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물 교육연구소(IHE)에서 발표한 ‘물 발자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국가별 1인당 물 발자국(1997-2001)



자료: UNESCO-IHE.

<그림 1>은 국가별 1인당 물 발자국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세계 1인당 평균 물 발자국의 크기는 1,240m³/yr/cap로 나타났다. 미국의 1인당 물 발자국 크기는 2,500m³/yr/cap인 반면 중국은 700m³/yr/cap로 두 국가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물 발자국이 가장 큰 식품은 쇠고기(15,500L/kg)로 돼지고기(4,800L/kg), 닭고기(3,900L/kg)의 3~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물 교육연구소(IH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 1마리가 도축되기까지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 1,300kg과 목초 등의 조사료 7,200kg을 섭취하고 24m³의 물을 마신다. 또한 축사 청소 등에

7m³의 물이 들어간다. 그리하여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6.5kg의 곡물과 36kg의 조사료, 155L의 물이 필요하며, 곡물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5,300L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물 발자국은 사료생산과정까지 포함하여 쇠고기 1kg을 얻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모든 물의 양을 계산한 것이다.

표 1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물 발자국

| 제품군 | 제품 | | 제품군 | 제품 | |
|-----|-----|---------------|------|------|---------------|
| 농산물 | 사과 | 70ℓ /1개(100g) | 축산물 | 쇠고기 | 15,500ℓ/kg |
| | 오렌지 | 50ℓ /1개(100g) | | 돼지고기 | 4,800ℓ /kg |
| | 쌀 | 3,400ℓ /kg | | 닭고기 | 3,900ℓ /kg |
| | 보리 | 1,300ℓ /kg | | 계란 | 200ℓ /1개(60g) |
| | 밀 | 1,300ℓ /kg | 가공식품 | 맥주 | 75ℓ /250ml |
| | 콩 | 1,800ℓ /kg | | 빵 | 40ℓ /30g |
| | 감자 | 900ℓ /kg | | 우유 | 1,000ℓ /1ℓ |
| | 옥수수 | 900ℓ /kg | | 설탕 | 1,500ℓ /kg |

자료: UNESCO-IHE.

참고자료

www.waterfootprint.org

작성자: 윤종열, 이정희.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표 1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 국가 | 총공급량 Total Supply | | | 수출량 Total Exports | | |
|------------|-------------------|-------|----|-------------------|-------|----|
| | 1000톤, 지역기준 | 비율 % | 순위 | 1000톤, 지역기준 | 비율 % | 순위 |
| 알바니아 | 55 | 0.08 | 47 | | | |
| 알제리 | 205 | 0.32 | 29 | | | |
| 앙골라 | 145 | 0.22 | 36 | | | |
| 아르헨티나 | 2,503 | 3.86 | 6 | 270 | 3.49 | 11 |
| 오스트레일리아 | 2,262 | 3.49 | 8 | 1,350 | 17.43 | 3 |
| 아제르바이잔 | 87 | 0.13 | 42 | 2 | 0.03 | 27 |
| 벨로루시 | 301 | 0.46 | 28 | 1 | 0.01 | 29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43 | 0.07 | 50 | | | |
| 브라질 | 9,410 | 14.50 | 2 | 1,600 | 20.65 | 2 |
| 캐나다 | 1,545 | 2.38 | 10 | 525 | 6.78 | 6 |
| 칠레 | 415 | 0.64 | 26 | 10 | 0.13 | 18 |
| 중국 | 5,555 | 8.56 | 4 | 60 | 0.77 | 14 |
| 콜롬비아 | 852 | 1.31 | 13 | 3 | 0.04 | 24 |
| 콩고 | 21 | 0.03 | 58 | | | |
| 코스타리카 | 100 | 0.15 | 39 | 23 | 0.30 | 17 |
| 쿠르디부아르 | 40 | 0.06 | 51 | | | |
| 도미니카공화국 | 52 | 0.08 | 48 | | | |
| 유럽연합27 | 550 | 0.85 | 22 | | | |
| 이집트 | 51 | 0.08 | 49 | | | |
| 엘살바도르 | 8,450 | 13.02 | 3 | 295 | 3.81 | 10 |
| 가봉 | 13 | 0.02 | 61 | | | |
| 그루지야 | 35 | 0.05 | 54 | | | |
| 가나 | 38 | 0.06 | 53 | | | |
| 과테말라 | 79 | 0.12 | 45 | 9 | 0.12 | 19 |
| 온두라스 | 28 | 0.04 | 55 | 3 | 0.04 | 24 |
| 홍콩 | 170 | 0.26 | 33 | | | |
| 인도 | 2,960 | 4.56 | 5 | 1,000 | 12.91 | 5 |
| 이란 | 695 | 1.07 | 16 | | | |
| 이스라엘 | 162 | 0.25 | 35 | | | |
| 자메이카 | 14 | 0.02 | 60 | | | |
| 일본 | 1,364 | 2.10 | 12 | | | |

표 1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계속)

| 수입량 Total Imports | | | 수입의존도(수입량/총공급량) | | Country |
|-------------------|-------|----|-----------------|----|------------------------|
| 1000톤,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비율 % | 순위 | |
| 8 | 0.12 | 46 | 14.55 | 33 | Albania |
| 80 | 1.16 | 22 | 39.02 | 22 | Algeria |
| 60 | 0.87 | 23 | 41.38 | 19 | Angola |
| 3 | 0.04 | 54 | 0.12 | 58 | Argentina |
| 10 | 0.14 | 41 | 0.44 | 53 | Australia |
| 7 | 0.10 | 47 | 8.05 | 41 | Azerbaijan |
| 1 | 0.01 | 57 | 0.33 | 55 | Belarus |
| 15 | 0.22 | 34 | 34.88 | 24 | Bosnia and Herzegovina |
| 45 | 0.65 | 27 | 0.48 | 52 | Brazil |
| 240 | 3.48 | 10 | 15.53 | 31 | Canada |
| 200 | 2.90 | 12 | 48.19 | 16 | Chile |
| 55 | 0.80 | 25 | 0.99 | 50 | China |
| 2 | 0.03 | 56 | 0.23 | 56 | Colombia |
| 19 | 0.28 | 32 | 90.48 | 9 | Congo(Brazzaville) |
| 5 | 0.07 | 50 | 5.00 | 45 | Costa Rica |
| 7 | 0.10 | 47 | 17.50 | 29 | Cote d'Ivoire |
| 6 | 0.09 | 49 | 11.54 | 35 | Dominican Republic |
| 220 | 3.19 | 11 | 40.00 | 20 | Egypt |
| 28 | 0.41 | 30 | 54.90 | 15 | El Salvador |
| 450 | 6.52 | 5 | 5.33 | 44 | EU-27 |
| 12 | 0.17 | 39 | 92.31 | 7 | Gabon |
| 15 | 0.22 | 34 | 42.86 | 18 | Georgia |
| 13 | 0.19 | 38 | 34.21 | 25 | Ghana |
| 9 | 0.13 | 44 | 11.39 | 36 | Guatemala |
| 3 | 0.04 | 54 | 10.71 | 39 | Honduras |
| 155 | 2.25 | 13 | 91.18 | 8 | Hong Kong |
| 325 | 4.71 | 7 | 10.98 | 38 | India |
| 110 | 1.59 | 19 | 15.83 | 30 | Iran |
| 9 | 0.13 | 44 | 5.56 | 43 | Israel |
| 725 | 10.51 | 4 | 5,178.57 | 1 | Jamaica |
| 60 | 0.87 | 23 | 4.40 | 46 | Japan |

표 1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계속)

| 국가 | 총공급량 Total Supply | | | 수출량 Total Exports | | |
|----------|-------------------|--------|----|-------------------|--------|----|
| | 1000톤, 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1000톤, 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 요르단 | 78 | 0.12 | 46 | 35 | 0.45 | 15 |
| 카자흐스탄 | 420 | 0.65 | 24 | 1 | 0.01 | 29 |
| 한국 | 747 | 1.15 | 14 | 1 | 0.01 | 29 |
| 쿠웨이트 | 87 | 0.13 | 42 | | | |
| 레바논 | 98 | 0.15 | 40 | | | |
| 리비아 | 22 | 0.03 | 57 | | | |
| 마케도니아 | 21 | 0.03 | 58 | | | |
| 말레이시아 | 183 | 0.28 | 30 | 6 | 0.08 | 22 |
| 멕시코 | 2,075 | 3.20 | 9 | 120 | 1.55 | 12 |
| 뉴질랜드 | 598 | 0.92 | 19 | 478 | 6.17 | 7 |
| 니카라과 | 139 | 0.21 | 37 | 120 | 1.55 | 12 |
| 오만 | 23 | 0.04 | 56 | | | |
| 파키스탄 | 1,455 | 2.24 | 11 | | | |
| 파라과이 | 571 | 0.88 | 20 | 310 | 4.00 | 9 |
| 페루 | 172 | 0.27 | 32 | | | |
| 필리핀 | 390 | 0.60 | 27 | 2 | 0.03 | 27 |
| 러시아 | 2,300 | 3.54 | 7 | 4 | 0.05 | 23 |
| 사우디아라비아 | 175 | 0.27 | 31 | | | |
| 세네갈 | 85 | 0.13 | 44 | | | |
| 싱가포르 | 40 | 0.06 | 51 | 8 | 0.10 | 21 |
| 남아프리카공화국 | 700 | 1.08 | 15 | 9 | 0.12 | 19 |
| 스위스 | 165 | 0.25 | 34 | 3 | 0.04 | 24 |
| 타이완 | 127 | 0.20 | 38 | | | |
| 우크라이나 | 420 | 0.65 | 24 | 25 | 0.32 | 16 |
| 아랍에미리트 | 95 | 0.15 | 41 | | | |
| 미국 | 13,227 | 20.38 | 1 | 1,123 | 14.50 | 4 |
| 우루과이 | 565 | 0.87 | 21 | 350 | 4.52 | 8 |
| 우즈베키스탄 | 610 | 0.94 | 17 | | | |
| 베네수엘라 | 493 | 0.76 | 23 | | | |
| 베트남 | 605 | 0.93 | 18 | 1 | 0.01 | 29 |
| 전세계 | 64,886 | 100.00 | | 7,747 | 100.00 | |

표 1 세계 각국 쇠고기 수입 전망치(2011) (계속)

| 수입량 Total Imports | | | 수입의존도(수입량/총공급량) | | Country |
|-------------------|--------|----|-----------------|----|----------------------|
| 1000톤,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비율 % | 순위 | |
| 20 | 0.29 | 31 | 25.64 | 27 | Jordan |
| 400 | 5.80 | 6 | 95.24 | 5 | Kazakhstan |
| 85 | 1.23 | 20 | 11.38 | 37 | Korea, South |
| 55 | 0.80 | 25 | 63.22 | 14 | Kuwait |
| 15 | 0.22 | 34 | 15.31 | 32 | Lebanon |
| 14 | 0.20 | 37 | 63.64 | 13 | Libya |
| 155 | 2.25 | 13 | 738.10 | 2 | Macedonia |
| 300 | 4.35 | 8 | 163.93 | 3 | Malaysia |
| 11 | 0.16 | 40 | 0.53 | 51 | Mexico |
| | | | | | New Zealand |
| | | | | | Nicaragua |
| 19 | 0.28 | 32 | 82.61 | 12 | Oman |
| 5 | 0.07 | 50 | 0.34 | 54 | Pakistan |
| 1 | 0.01 | 57 | 0.18 | 57 | Paraguay |
| 5 | 0.07 | 50 | 2.91 | 47 | Peru |
| 150 | 2.17 | 15 | 38.46 | 23 | Philippines |
| 900 | 13.04 | 3 | 39.13 | 21 | Russia |
| 150 | 2.17 | 15 | 85.71 | 11 | Saudi Arabia |
| 10 | 0.14 | 41 | 11.76 | 34 | Senegal |
| 40 | 0.58 | 28 | 100.00 | 4 | Singapore |
| 10 | 0.14 | 41 | 1.43 | 48 | South Africa |
| 30 | 0.43 | 29 | 18.18 | 28 | Switzerland |
| 120 | 1.74 | 18 | 94.49 | 6 | Taiwan |
| 5 | 0.07 | 50 | 1.19 | 49 | Ukraine |
| 85 | 1.23 | 20 | 89.47 | 10 | United Arab Emirates |
| 1,014 | 14.69 | 2 | 7.67 | 42 | United States |
| | | | | | Uruguay |
| | | | | | Uzbekistan |
| 130 | 1.88 | 17 | 26.37 | 26 | Venezuela |
| 275 | 3.98 | 9 | 45.45 | 17 | Vietnam |
| 6,901 | 100.00 | | 10.64 | | World |

표 1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계속)

| 국가 | 총공급량 Total Supply | | | 수출량 Total Exports | | |
|------------|-------------------|-------|----|-------------------|-------|----|
| | 1000톤, 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1000톤, 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 알바니아 | 47 | 0.08 | 39 | 55 | 0.10 | 46 |
| 알제리 | 125 | 0.22 | 32 | 205 | 0.36 | 29 |
| 앙골라 | 85 | 0.15 | 34 | 145 | 0.26 | 36 |
| 아르헨티나 | 2,500 | 4.36 | 6 | 2,233 | 3.95 | 7 |
| 오스트레일리아 | 2,140 | 3.73 | 7 | 765 | 1.35 | 14 |
| 아제르바이잔 | 80 | 0.14 | 35 | 85 | 0.15 | 42 |
| 벨로루시 | 300 | 0.52 | 25 | 300 | 0.53 | 26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28 | 0.05 | 43 | 43 | 0.08 | 49 |
| 브라질 | 9,365 | 16.33 | 2 | 7,810 | 13.82 | 4 |
| 캐나다 | 1,275 | 2.22 | 11 | 990 | 1.75 | 12 |
| 칠레 | 215 | 0.37 | 28 | 405 | 0.72 | 23 |
| 중국 | 5,500 | 9.59 | 4 | 5,495 | 9.73 | 5 |
| 콜롬비아 | 850 | 1.48 | 12 | 849 | 1.50 | 13 |
| 콩고 | 2 | 0.00 | 58 | 21 | 0.04 | 58 |
| 코스타리카 | 95 | 0.17 | 33 | 77 | 0.14 | 44 |
| 쿠르디부아르 | 33 | 0.06 | 42 | 40 | 0.07 | 51 |
| 도미니카공화국 | 46 | 0.08 | 40 | 52 | 0.09 | 47 |
| 유럽연합 27 | 330 | 0.58 | 23 | 550 | 0.97 | 20 |
| 이집트 | 23 | 0.04 | 48 | 51 | 0.09 | 48 |
| 엘살바도르 | 8,000 | 13.95 | 3 | 8,155 | 14.44 | 3 |
| 가봉 | 1 | 0.00 | 60 | 13 | 0.02 | 62 |
| 그루지야 | 20 | 0.03 | 49 | 35 | 0.06 | 53 |
| 가나 | 25 | 0.04 | 45 | 38 | 0.07 | 52 |
| 과테말라 | 70 | 0.12 | 37 | 70 | 0.12 | 45 |
| 온두라스 | 25 | 0.04 | 45 | 25 | 0.04 | 55 |
| 홍콩 | 15 | 0.03 | 51 | 170 | 0.30 | 33 |
| 인도 | 2,960 | 5.16 | 5 | 1,960 | 3.47 | 8 |
| 이란 | 370 | 0.65 | 21 | 695 | 1.23 | 15 |
| 이스라엘 | 52 | 0.09 | 38 | 162 | 0.29 | 34 |
| 자메이카 | 5 | 0.01 | 56 | 14 | 0.02 | 61 |
| 일본 | 510 | 0.89 | 18 | 1,236 | 2.19 | 11 |

표 1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계속)

| 수입량 Total Imports | | | 수입의존도(수입량/총공급량) | | Country |
|-------------------|------|----|-----------------|----|------------------------|
| 1000톤,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비율 % | 순위 | |
| | | | | | Albania |
| | | | | | Algeria |
| | | | | | Angola |
| | | | | | Argentina |
| 147 | 23 | 2 | 19.22 | 1 | Australia |
| | | | | | Azerbaijan |
| | | | | | Belarus |
| | | | | | Bosnia and Herzegovina |
| | | | | | Brazil |
| 30 | 5 | 5 | 3.03 | 5 | Canada |
| | | | | | Chile |
| | | | | | China |
| | | | | | Colombia |
| | | | | | Congo(Brazzaville) |
| | | | | | Costa Rica |
| | | | | | Cote d'Ivoire |
| | | | | | Dominican Republic |
| | | | | | Egypt |
| | | | | | El Salvador |
| | | | | | EU-27 |
| | | | | | Gabon |
| | | | | | Georgia |
| | | | | | Ghana |
| | | | | | Guatemala |
| | | | | | Honduras |
| | | | | | Hong Kong |
| | | | | | India |
| | | | | | Iran |
| | | | | | Israel |
| | | | | | Jamaica |
| 128 | 20 | 3 | 10.36 | 3 | Japan |

표 1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계속)

| 국가 | 총공급량 Total Supply | | | 수출량 Total Exports | | |
|----------|-------------------|--------|----|-------------------|--------|----|
| | 1000톤, 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1000톤, 지육기준 | 비율 % | 순위 |
| 요르단 | 18 | 0.03 | 50 | 43 | 0.08 | 49 |
| 카자흐스탄 | 400 | 0.70 | 19 | 419 | 0.74 | 22 |
| 한국 | 298 | 0.52 | 26 | 660 | 1.17 | 17 |
| 쿠웨이트 | 2 | 0.00 | 58 | 87 | 0.15 | 41 |
| 레바논 | 43 | 0.07 | 41 | 98 | 0.17 | 39 |
| 리비아 | 7 | 0.01 | 53 | 22 | 0.04 | 57 |
| 마케도니아 | 7 | 0.01 | 53 | 21 | 0.04 | 58 |
| 말레이시아 | 28 | 0.05 | 43 | 177 | 0.31 | 30 |
| 멕시코 | 1,775 | 3.09 | 8 | 1,955 | 3.46 | 9 |
| 뉴질랜드 | 587 | 1.02 | 15 | 120 | 0.21 | 38 |
| 니카라과 | 139 | 0.24 | 30 | 19 | 0.03 | 60 |
| 오만 | 4 | 0.01 | 57 | 23 | 0.04 | 56 |
| 파키스탄 | 1,450 | 2.53 | 9 | 1,455 | 2.58 | 10 |
| 파라과이 | 570 | 0.99 | 16 | 261 | 0.46 | 27 |
| 페루 | 167 | 0.29 | 29 | 172 | 0.30 | 32 |
| 필리핀 | 240 | 0.42 | 27 | 388 | 0.69 | 24 |
| 러시아 | 1,400 | 2.44 | 10 | 2,296 | 4.06 | 6 |
| 사우디아라비아 | 25 | 0.04 | 45 | 175 | 0.31 | 31 |
| 세네갈 | 75 | 0.13 | 36 | 85 | 0.15 | 42 |
| 싱가포르 | | | | 32 | 0.06 | 54 |
| 남아프리카공화국 | 690 | 1.20 | 13 | 691 | 1.22 | 16 |
| 스위스 | 135 | 0.24 | 31 | 162 | 0.29 | 34 |
| 타이완 | 7 | 0.01 | 53 | 127 | 0.22 | 37 |
| 우크라이나 | 400 | 0.70 | 19 | 380 | 0.67 | 25 |
| 아랍에미리트 | 10 | 0.02 | 52 | 95 | 0.17 | 40 |
| 미국 | 11,946 | 20.83 | 1 | 11,869 | 21.01 | 2 |
| 우루과이 | 565 | 0.99 | 17 | 215 | 0.38 | 28 |
| 우즈베키스탄 | 610 | 1.06 | 14 | 610 | 1.08 | 18 |
| 베네수엘라 | 338 | 0.59 | 22 | 488 | 0.86 | 21 |
| 베트남 | 330 | 0.58 | 23 | 604 | 1.07 | 19 |
| 전세계 | 57,358 | 100.00 | | 56,493 | 100.00 | |

표 1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전망치(2011) (계속)

| 수입량 Total Imports | | | 수입의존도(수입량/총공급량) | | Country |
|-------------------|------|----|-----------------|----|----------------------|
| 1000톤,자육기준 | 비율 % | 순위 | 비율 % | 순위 | |
| | | | | | Jordan |
| | | | | | Kazakhstan |
| 86 | 13 | 4 | 13.03 | 2 | Korea, South |
| | | | | | Kuwait |
| | | | | | Lebanon |
| | | | | | Libya |
| | | | | | Macedonia |
| | | | | | Malaysia |
| | | | | | Mexico |
| | | | | | New Zealand |
| | | | | | Nicaragua |
| | | | | | Oman |
| | | | | | Pakistan |
| | | | | | Paraguay |
| | | | | | Peru |
| | | | | | Philippines |
| | | | | | Russia |
| | | | | | Saudi Arabia |
| | | | | | Senegal |
| | | | | | Singapore |
| | | | | | South Africa |
| | | | | | Switzerland |
| | | | | | Taiwan |
| 15 | 2 | 6 | 3.95 | 4 | Ukraine |
| | | | | | United Arab Emirates |
| 235 | 36 | 1 | 1.98 | 6 | United States |
| | | | | | Uruguay |
| | | | | | Uzbekistan |
| 5 | 1 | 7 | 1.02 | 7 | Venezuela |
| | | | | | Vietnam |
| 646 | 100 | | 1.14 | | World |

주: 1) 쇠고기는 Meat, Beef and Veal을 의미함 2)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의 전망치임.
 자료: <http://www.fas.usda.gov/psdonline/>

M45-131 세계농업 제131호 (2011. 7)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1년 7월

발 행 2011년 7월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